열린예배의 신학적 해석과 시대적 역할

A STUDY OF THEOLOGICAL INTERPRETATION OF SEEKER SERVICE AND CONTEMPORARY ROLE

By

Ko Uiyong

A DEMONSTRATION PROJECT

Submitted to

New York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Fort Lee, New Jersey

2012

This is certify that the
Demonstration Project entitled

열린예배의 신학적 해석과 시대적 역할

THE STUDY OF THEOLOGICAL INTERPRETATION OF SEEKER SERVICE AND CONTEMPORARY ROLE

presented by

Ko, Uiyong

has been accepted towards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____
Director for D. Min Program's Signature

____
Academic Dean's Signature

May 2012

ABSTRACT

A STUDY OF THEOLOGICAL INTERPRETATION OF SEEKER SERVICE AND CONTEMPORARY ROLE

by

Ko, Uiyong

Christianity is a religion of salvation. In Christianity, it is very natural for us, as God's people, to worship the God who saves. However, many young people are not adapting to current traditional worship, and the unfortunate result is that they are leaving the church. Meanwhile, new worship programs and formats are required; new approaches and styles of worship, such as "open worship" services, are being tried to lessen the resistance of non-believers, new believers, new converts, and older members, making it easier for them to come to service.

God looks for worshippers in each generation, and no matter the given circumstances, he has allowed the most appropriate worship. Today, the growth of the church has slowed, and many young people are leaving the church because of their rejection of traditional worship. With these circumstances in mind, the open worship style is meant for such young people; considering the current situation, I want to call this the most appropriate new worship style that God has allowed for them. However, things are still in the experimental stage, and various issues are apparent. Even when we look at the historical shifts in worship, we can see that in the beginning, the best of intentions and methods are used in the new worship; yet, with the change in generations, they deteriorate due to the limitations and wickedness of human beings.

Different issues arise in worship, not because the particular worship God allows for that age is imperfect, but the human beings that participate in that worship are imperfect. Hence, the worship deteriorates, and various problems crop up. I want to say that open worship is the same way. The problem does not lie with open worship itself but with the people who take part in it. Therefore, in adapting open worship to this generation, we need to encourage what is appropriate; and based on unchanging, absolute revelation, properly apply diverse circumstances, environments, and culture. In doing so, we can achieve the restoration of true worship. Amid today's unique circumstances, we need to adapt to different circumstances while rooted in objective, revealed truth.

Open worship needs to be worship where evangelism takes place from beginning to end. In particular, the evangelism has to come from the believers' lives. Evangelism that is only words cannot inspire anyone. It is about coming to Christ by seeing the living Jesus Christ in the believers.

Believers preparing open worship have to have the fervent heart for the long-time believers, a heart given by the Lord. In addition, to people who want to know the gospel and God's true message, programs that merely appear true and powerful should not be introduced, nor should the contents of other churches be imitated. Even the unique praise style and dramas fitting for that church, or anything else for that matter, should not become the focus of worship. Worship needs to be centered only on God. Training with the praise team at Hanmuri Church for a period of two years, as research for this thesis, was a time of spiritual growth, restoration of worship at Hanmuri Church, and a precious time of God's grace overflowing. This thesis did not end with tears: for everyone who participated in the thesis together, it was a challenging time, a chance to see God at work, witness true growth in faith and confess that faith. I conclude my

thesis by expressing a desire to see fulfilled God's work of having the immigrant church, as well as all the churches worldwide, achieve true worship and become true churches.

감사의 글

지난 6학기 동안의 NEW YORK THEOLOGICAL SEMINARY에서 목회학 박사 논문 연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恩惠와 祝福으로 본 論文을 쓰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동안 여러 가지 부족했던 많은 부분들이 주의 종으로 다듬어져 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바쁘신 가운데서도 수차례의 논문지도를 해 주신 김상목 교수님과 모든 것을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신 백창건 교수님 그리고 여러 교수님들을 통하여 지금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늘 부족한 저에게 가장 큰 동역자이며 언제나 힘이 되어준 나의 아내 具善憙 사모에게 함께 해 주는 시간이 없어 미안했던 그러나 늘 아빠에게 격려자가 되어준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 高曜韓과 高貴韓과 韓國에 계신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 咸榮琡 사모님과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셨던 나의 부친 고준규 牧師님과 저를 위하여 늘 기도해 주신 박성규 목사님과 논문과 사역을 위해 협력해 주신 한무리교회의 찬양팀 모두와 논문을 위하여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論文을 바칩니다.

주후 2012년 5월　　　　高 義 鎔

목　　차(Table of Contents)

Ⅰ. 서 론

인간이 자신이 창조물임을 깨닫게 된다면 자신을 창조한 창조주의 존재에 대한 경배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창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예배하지 못하며 오히려 자기 자신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고 또는 세상을 예배의 대상으로 섬기고 있는 이들이 세상 가운데 수없이 존재하고 있다. 그 존재들 가운데는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세상을 예배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 예배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것과 나 자신이 창조물임을 인정하는 가운데 예배의 시작이 되어 진다. 진정한 교회는 의미 있는 예배를 통하여 끊임없는 동력을 얻는다. 이동력은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바로 보며, 미래를 창조하는 동력이다. 그러므로 이 예배를 통한 동력을 얻지 못하는 교회는 예배의 기쁨을 얻지 못한다. 또한 교회 안에서 예배가 살아 있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생명력을 잃어갈 것이다.

예배는 호흡이다. 마치 숨을 쉬는 것과 같다. 그러기에 규칙적으로 드려져야 하고, 적합한 동력을 지녀야 하며, 마음을 다 쏟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훌륭한 예배는 하나님의 구원 행동을 밝히 나타내고, 특수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 응답할 수 있게 한다. 여기서 특수한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공간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것은 곧 삶이 예배라는 의미와 같은 것이다.

예배학적인 견지에서 볼 때 현재 한국교회의 예배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예배를 집례 하는 목회자가 예배신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지나치게 독단적이거나 압도적인 태도로 임하거나 예배를 드리는 평신도들이 예배의 의미와 목적을 이해하지 못해 “자기 자신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얻어 가려는 일”에 더욱 마음 쏟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한국교회의 또 다른 결

함은 구도자들의 예배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한 이들 또는 기독교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 기존의 예배는 다가가기 힘든 부분들이 있다.

본 연구자는 한국에서 사역할 때 예배에 대한 좋은 예를 보았다. 그 당시 본인이 사역한 교회는 대예배 전체가 4부까지 드리는 교회였다. 그런데 1부 부터 4부까지 모든 예배의 형식이나 느낌이 달랐다. 다른 4가지의 예배로 교인들은 자신에게 맞는 예배에 참석을 하였고 새로 신설되어 드려진 4부 예배는 열린예배로 드렸는데 예배를 신설한지 6개월 만에 기존의 예배와 예배 참석인원이 비슷해지는 부흥을 체험하게 되었다. 그 당시 예배에 대한 모든 찬양을 담당하고 예배를 기획했던 본인은 그 때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사역을 체험하게 되었으며 예배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교회의 담임목사와 중직자들의 열린 마음과 지금의 시대를 바라보며 지금의 세대를 이해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열린예배로 드려진 4부 예배에는 새로 등록 한 사람들이 가장 많았다.

그 당시 예배의 특징은 다음과 같았다. 1부는 전통적인 예배와 같았다. 2부는 찬양단이 예배 전 15분 정도의 찬양을 하고 전통 예배로 예배를 드렸고 3부는 처음부터 마지막 순서까지 전통예배와 같이 드렸다. 물론 성가대의 찬양도 각 부마다 선곡을 다르게 하였다. 4부는 예배 전 25분 정도의 찬양을 드리고 드라마나 영상물을 준비하여 예배자들이 설교 주제에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열린예배 형식으로 드렸다. 이러한 예배 형식에서 본인은 형식과 예배의 모든 부분들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높이며 그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된다. 또한 모든 순서들과 예배를 돕는 이들도 예배자 모두가 그 목적을 이루도록 협력해야 한다.

1. 한무리교회

1) 지역적 배경

지역적 배경을 조사한 것은 지역의 특징을 알아야 그 지역의 한인들의 특성을 이해 할 수 있으며 특성의 이해는 곧 목회에 있어서의 방법론의 다양성을 기대할 수 있기에 지역적 배경을 조사했다. 본 연구의 대상인 한무리교회가 속해 있으며 뉴저지에서 가장 많은 한인이 분포 된 지역인 버겐 카운티(Bergen county)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버겐 카운티는 약 884,000 명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뉴저지의 쇼핑, 교통, 교육, 문화의 중심지이다. 미국 산업과 문화의 중심인 뉴욕 맨하탄과 근접해 있으며, 또한 아름다운 공원과 유원지 등을 가지 있다. 또한 이곳은 한인교회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다. 버겐 카운티 중에도, Ridgewood, Glen Rock, Allendale, Wyckoff, Closter, Cresskill, Demarest, Tenafly, Englewood Cliffs, Haworth, Upper Saddle River, Harrington Park, Alpine 같은 도시들은 뉴욕 맨해튼과 3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 안에 있으며, 또한 뉴저지 안에서 교육열리 높은 곳으로 교육에 관심이 많은 한인들이 선호하는 교육이 발달한 도시들이다. 이 도시들은 대부분 Blue Ribbon Award Winning Schools (상위 랭크의 공립학교) 들을 가지고 있다.

버겐 카운티 안에는 삼성, 대우, 현대, LG, SK, 한솔, 한국 타이어 등의 한국의 대기업들의 지사가 있고, 한국에서 오는 많은 주재원들이나 교민들이 많이 살고 있고, 또한 선호하는 지역이다. 그러기에 젊은 부부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연구 대상인 본 교회가 위치한 지역은 뉴저지의 타운 가운데 한인들이 가장 많이 밀접해 있으며 맨해튼과 한국 기업들이 있는 지역이다. 한무리교회는 자체교회 건물이 없는 관계로 주일예배는 Cresskill High School에서 예배를 드리고 수요예배와 새벽예배는 Englewood에 있는 미국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실정이다. 주일예배를 드리는 Cresskill 지역은 백인들과 아시안 계통의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는 곳이다. 이곳은 학구열이 높은 한인들이 선호하는 지역으로 한인들의 거주가 많은 곳이다. Cresskill은 한인 교회가 여러 개 있다.

크레스킬(Cresskill)은 뉴저지 버겐 카운티에 위치하고 있는 학군이 좋고, 비

교적 조용한 타운이며 백인과 한인의 비율이 높은 타운이다.[1] 2000년도 인구 센서스 기준으로 전체 인구는 약 7,746명이며 타운 랭킹은 뉴저지 주에서 259위이다. 또한 인종 분포는 백인 (78.05%) 흑인 (0.92%), 아시아인 (18.64%) 히스패닉 (3.99%) 네이티브 어메리칸 (0.04%) 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은 한인들의 인구 비율이 더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2] 다수의 한인들이 분포하고 있으며 이곳에 있는 한인들은 대부분 자녀들의 교육을 위하여 이주한 이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30 - 40대의 연령층이 많으며 그들의 자녀들은 초, 중, 고 학생들이 많다. 그러므로 본 교회의 연구 주제인 열린예배에 크레스킬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관심을 줄 수 있는 연구이다. 30 - 40대 연령층과 그들의 자녀들에 대한 교회의 준비가 되어 진다면 많은 이들을 통하여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사역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역사적 배경

New Jersey 의 Cresskill에 있는 한무리교회는 1988년 10월 30일 지금의 담임목사인 김춘실 목사 외 3가정이 모여 개척을 하였다. 지금 현재 한무리교회의 특징 중 가장 건강한 특징은 젊은 교회라는 것이다. 교인의 70%정도가 30-40대의 성도로 분포 되어 있다. 지금은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와 준비를 하고 있다. 30-40대 연령층이 많은 교회의 특성상 교회 안에 새로운 도전과 프로그램들과 그리고 예배의 변화 등을 기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인력 확보도 용이 할 것으로 기대되어 진다. [3] 본 논문의 저자는 한무리교회에 열린예배를 도입하여 예배를 통한 교회 부흥의 관계와 성도들의 신앙적 성장을 기대한다. 또한 본 논문의 저자와 한무리교회의 찬양팀과 협력하여 교회 부흥의 디딤돌이 되는 연구가 될 것을 기대한다.

3) 상황적 배경

진정한 교회는 의미 있는 예배를 통하여 끊임없는 동력을 얻는다. 이 동력은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바로 보며, 미래를 창조하는 동력이다. 그러므로 이 예배

---

[1] *http://www.njhomebuy.com/school_info.html?town=Cresskill* 12. 15. 2011.

[2] *http://en.wikipedia.org/wiki/File:Census_Bureau_map_of_Cresskill,_New_Jersey.gif*..12. 15. 2011.

를 통한 동력을 얻지 못하는 교회는 예배의 기쁨을 얻지 못한다. 또한 교회 안에서 예배가 살아 있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생명력을 잃어 갈 것이다.

본 연구자는 한국에서 사역할 때 예배에 대한 좋은 예를 보았다. 그 당시 본인이 사역한 교회는 대예배 전체가 4부까지 드리는 교회였다. 그런데 1부 부터 4부까지 모든 예배의 형식이나 느낌이 달랐다. 다른 4가지의 예배로 교인들은 자신에게 맞는 예배에 참석을 하였고 새로 신설되어 드려진 4부 예배는 열린예배로 드렸는데 예배를 신설한지 2개월 만에 기존의 예배와 예배 참석인원이 비슷해졌다. 열린예배로 드려진 4부 예배에는 새로 등록 한 사람들이 가장 많았다. 1부는 전통적인 예배와 같았다. 2부는 찬양단이 예배 전 15분 정도의 찬양을 하고 전통 예배로 예배를 드렸고 3부는 처음부터 마지막 순서까지 전통예배와 같이 드렸다. 물론 성가대의 찬양도 각 부마다 선곡을 다르게 하였다. 4부는 예배 전 25분 정도의 찬양을 드리고 드라마나 영상물을 준비하여 예배자들이 설교 주제에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열린예배 형식으로 드렸다. 이러한 예배 형식에서 본인은 형식과 예배의 모든 부분들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높이며 그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된다. 또한 예배자로서 자신들의 존재를 파악하고 그 본성과 의무를 깨닫는다는 것은 예배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요건이라 아니할 수 없다.

최근 많은 교회에서는 예배를 통한 교회의 부흥을 다시금 기대하고 있다. 그에 해당하는 예배의 형태로 열린예배를 들 수 있다. 교회들은 열린예배로 앞서가는 교회들의 예배의 형태만을 복제하여 예배를 드리고 부흥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도입하여 시도한 교회들은 대부분 얼마 가지 않아 포기하고 만다. 열린예배라는 형태는 있지만 그에 필요한 전문적 견해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부분에 실제적인 그리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연구하므로 한무리교회와 열린예배를 준비하는 교회들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2. 연구의 동기와 목적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이다. 구원(salvation)이란, 죽음의 현장에서 아우성을

치는 사람들을 구출하여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인도한다는 뜻이다. 즉 기독교는 죄의 대가로 죽어 가는 실존들을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incarnation)하심으로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와 인간을 구원시킨 사실을 믿는 종교이다. 따라서 예배는 인간들을 찾아와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보답하는 행위이다. 타종교에서 말하는 예배가 하나의 의식을 위하고 인간의 욕구 충족을 위한 행위라고 본다면 기독교의 예배는 전 인격적인 감격 속에서 자신이 받은 거대한 은총의 주인 앞에 나아와 감사와 보답을 표현하는 행위이다.[4]

하지만 이런 감격적인 예배행위가 다양화된 오늘날의 젊은이들에게 있어서는 적응하기 어려운 형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심지어는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이탈하게 되는 결과까지도 낳게 되었다. 하지만 젊은이들의 이런 반응과는 상관없이 대부분의 기존 교회들은 여전히 장년중심의 예배 스타일로 대단히 엄숙하고 전통적인 분위기 속에서 예배를 진행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교회에 있어서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젊은이들을 감동시킬 새로운 예배 프로그램, 새로운 예배 형식의 모색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윌로우크릭 커뮤니티 교회와 새들백 교회 등 일부 교회에서 시작된 비전통적인 예배형식은 젊은이들에게 큰 호응을 가져왔고, 이 두 교회의 구도자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목회 철학과 전략은 발전, 성장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런 현상을 보고 오늘날 한국 교회도 온누리 교회(故하용조 목사 시무)나 사랑의 교회(옥한음 목사 시무)등 몇몇 교회에서 열린예배라는 이름으로의 새로운 예배형식을 시도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것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예배형식이므로 아직까지 많은 찬·반의 논란이 있고, 또한 복음전도, 영혼구원이라는 교회 지상 최대의 과제에 있어서 열린예배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형식인지 아니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교회의 관심이 한낱 '유행물'처럼 휩쓸고 지나가는 일시적인 형식은 아닐까 하는 우려에서 열린예배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느 때보다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따라서 교회마다 예배의 갱신을 추구하며 나름대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변화에 대한 관

---

[4]정장복, *예배학 개론* (서울: 종로서적, 1997), 6.

심은 주로 두 방향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전통의 재발견에 대한 관심이고, 다른 하나는 이의 현대적 적용에 대한 관심이다.[5] 이러한 두 가지 방향으로의 관심은 지난 2천년 동안 기독교가 계속해서 발전시켜온 예배의 내용과 질의 연속선상에 있다. 기독교는 유대 팔레스틴의 지역종교에서 세계 종교로 발전하면서 각 나라와 문화의 영향으로 서로 다른 형태와 방식의 예배를 드려왔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그 질적 변화가 폭넓은 현재의 한국 사회 역시 지역에 따라, 세대에 따라, 교회에 따라 독특한 형식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 신세대는 기성세대의 전통적인 예배에서 은혜와 감격을 느끼기에 어렵게 되고, 기성세대는 신세대의 자유롭고 다소 산만한 듯한 예배 분위기에 이질감을 느낀다. 이는 앞에서 얘기한 두 가지 방향의 변화에 대해 양쪽으로 조화롭게 관심을 갖지 못하고 어느 한 방향으로 치우친 경우에 해당한다.

예배에 관련된 성구 중의 하나인 요한복음 4: 24절 말씀은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이 '신령'과 '진정'이란 과연 무엇일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존 맥아더 목사는 이 두 가지를 분리하는 것이 예배의 양 극단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즉 사마리아인들이 드리는 예배는 적절한 지식이 없는 열광적인 예배였고(다시 말해 신령으로만 예배했고 진리로 예배하지는 않았다), 유대인들은 진리를 알고 있었으나 신령함이 없는 차갑고 율법적이며 위선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며 이 시대에 교회를 이탈하는 젊은 이들과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찾고자 하는 구도자들을 위한 새로운 예배 프로그램과 새로운 예배 형식이 필요하다는 전제 아래 예배학적인 측면에서 개신교회의 열린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필요성에 대해 고찰하며, 그 비판과 문제점에 대해서, 그리고 새로운 대응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

[5]로버트 웨버, *예배가 보인다 감동을 누린다*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4), 5.

II. 예배란 무엇인가?

1. 예배의 정의

정일웅은 그의 저서 “21세기를 향한 한국교회와 실천신학”에서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에 대해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적인의미를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 우리말에는 예배란 ‘예를 다하여 절한다’는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예배는 즉 경배의 대상인 하나님께 그를 신뢰하며 그를 섬기는 믿음의 표현이요, 신앙의 순종을 나타내는 행위로 이해된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이 책에서, 경배는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는 것으로 성경은 교훈하고 있으며(마 4:10; 요 4:21-24), 이러한 경배적인 행위를 기독교는 예배의식(Ritus)으로 표현한다고 말한다. 교회는 회중의 공적인 모임을 통하여 이러한 의식으로서의 예배를 순서들의 진행으로 실현하고 있다고 한다.[6] 따라서, 기독교의 예배는 이러한 예배의식을 떠나서는 하나님께로 향한 경배로서의 섬김을 표현할 길이 없는 것이다.

예배란 하나님의 현존을 인지한 인간의 응답을 표현하는 마음가짐과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예배는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일이다.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의 양심을 깨우는 것이며, 그 분의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살찌우는 것이며, 나아가 그 분의 아름다움으로 우리의 상상을 정화시키는 것이다. 또한 그 분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활짝 여는 것이며 그 분의 목적에 우리 의지를 내려놓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예배에 다 들어 있다. 예배란 우리의 전 존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이타적인 감정이다. 예배는 최상의 존재에게 표하는 경의이다. 즉 최상의 존재에게 존경, 경의, 찬양, 영광을 드리는 것이다. 따라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자이시기에 예배는 그분의 피조물

[6]정일웅, *21세기를 향한 한국교회와 실천신학* (서울: 여수론, 1999). 257.

들이 누리는 권리요 기쁨이다.[7]

먼저 예배라는 말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신약용어는 “프로스퀘네오(proskunco)”라는 단어인데 “~에게 키스하다, 손에 키스하다, 절하다, 엎드리다”라는 뜻을 의미한다.

예배라는 개념은 사람이 존경, 경외감을 갖고 최상의 존재 앞에 엎드려 절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하며 또 그에게 그의 최상의 성품에 합당한 영광을 드리며,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이다.[8] 그렇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한다. 그래야만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예배의 대상에 대해 알지 못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다음으로 구약에서 예배에 대한 용어를 찾아보면 대표적인 어휘 둘을 들 수 있는데 그 첫째가 “봉사”, “섬김‘의 뜻을 가진 “아바드(abad)”이고, 두 번째의 중요한 어휘는 “굴복하는 것”, “자신을 엎드리는 것”의 뜻을 가진 “샤하아(shachah)”라는 단어이다.[9] 이 두 가지 예배에 대한 어휘 속에 나타난 뜻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자주성을 버리고 그의 뜻을 따르며 섬겨야 할 존재라는 사실과 경배와 복종의 생활이 예배하는 자들의 주요한 삶의 근본이 되었다는 뜻이다. 이 외에도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예배를 의미하는 여러 단어들이 있다. 그 단어들은 다음과 같다.

성경에는 ‘예배’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많이 있다. 각각의 단어들은 예배하는 자의 마음의 자세와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경외, 존경의 의미로서의 예배: 다음의 단어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중심으로 한 그 분의 성품들을 향한 반응으로써, 주로 심령의 태도와 관계되어 있다.[10]

· 히브리어 동사 ‘야레’(yareh - 렘 32:39; 신 6:13)

· 헬라어 동사 ‘세보마이’(sebomai - 마 15:9; 행 18:13)

---

[7]Graham, Kendrik, *경배,* 김성웅 역 (서울: 두란노, 1993), 78.

[8]John. MacArthur, *참된 예배,* 한화룡 역 (서울: 두란노, 1993), 123.

[9]정장복, *예배학 개론* (서울: 종로서적, 1997), 6.

[10]조태현, *열린예배 기획 워샵* (서울: 예루살렘, 1998), 74.

절하다, 몸을 굽히다, 엎드리다 혹은 입맞추다라는 문자적 의미로서의 예배: 다음의 단어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분의 권위 앞에 완전히 순복할 때 그 분과의 온전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해 준다.[11]

· 히브리어 동사 '샤하'(shachah - 시 99:5)

· 헬라어 동사 '프로스퀴네오'(proskyneo - 요 4:20-24)

노예나 종이 주인을 섬긴다(fo serve)는 문자적 의미로서의 예배: 구약의 종의 개념은 비천하고 부자유한 노예의 개념과는 달리 오히려 친밀한 관계를 의미했다(출 21:1-6). 그러므로 종에게 있어 섬김의 관계는 비인간적인 구속으로서가 아니라 특권과 영광으로 받아 들여졌다. 이러한 면에서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 이라 칭했다. 다음의 단어들은 예배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부담스러운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특권이며 영광스러운 것임을 깨닫게 해준다.

· 히브리어 동사 '아바드' ('abad - 신 10:12), '샤라트' (sharat - 대상 16:4)

· 히브리어 명사 '아보다' ('abodah - 출 1:14)

· 헬라어 동사 '라트류오' (latreuo - 롬 1:9),

'레이투르게오' (leitourge - 행 13:2)

· 헬라어 명사 '라트레이아' (latreia - 롬 12:1),

'레이투르기아' (leitourgia - 빌 2:17)[12]

이러한 단어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의미로 쓰여 진다. 우리들은 예배에 있어서 봉사의 마음과 섬김의 마음 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굴복시키는 마음가짐으로 예배드리는 이들을 찾기가 어렵다. 주일이기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기에 예배의 감격도 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들이 많기에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기 어렵다. 영어에서 표현하는 worship에 해당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가치(worth)라는 말과 신분(ship)이라는 말의 뜻을 가진 합성어이다. 이 말의 뜻은 "존경과 존귀를 받을 가치가 있는 자"이다. 좀 더 구체화시킨다면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리는 것"이란 뜻이 된다.[13]

---

[11]Graham kendrik, *경배,* 김성웅 역(서울: 두란노, 1993), 78.

[12]정장복. *예배학 개론(*서울: 종로서적, 1997), 8.

예배에 대한 용어들의 몇 가지 공통점은 예배의 대상 앞에서 한 인간은 자신의 인간적인 요소를 다 버리고 그 대상의 뜻을 따른 다는 것과 그를 경외하고 그 앞에 섬기는 존재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로버트 레이번(Robert G. rayburn)은 성서에 나타난 예배 용어들의 뜻을 다음과 같이 종합했다. 첫째, 기독교 예배는 신실한 신앙인 이 하나님의 영화로운 존엄성을 인식하고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굽어 엎드리는 것이다. 두 번째로, 예배 자들은 예수그리스도가 보여 주었던 대로 순종하는 종의 자세로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놓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예배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 의해서 계속되어져야 하고, 인간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능하게 되는 모든 것을 순종의 자세로 응답해 가는 태도가 있어야 한다.[14] 결국 예배는 나를 하나님 앞에서 창조물임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되심을 절대적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나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되어 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실 분임을 인정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1) 예배의 개념 이해

예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해는 언어에서부터 시작된다. 예배라는 말(단어)을 한자어로 이해하면 '예를 다하여 절한다'는 의미이다. 이 단어는 기독교의 예식을 지칭할 때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국어사전[15]은 "공경하는 마음으로 경례하고 절함, 신을 신앙하고 숭배하면서 그 대상을 경배하는 행위 및 그 양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예배를 지칭한 영어의 'worship'은 앵글로색슨 어인'weorthscipe' 즉, 'worth(가치)와 ship(신분)'에서 유래했는데 '존경과 존귀를 받을 가치가 있는 신분(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결국 이 단어가 의미하는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최대한의 존경으로 최상의 가치를 돌리는 것(to ascribe Him supreme worth)'이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영어나 독일어를

---

[13]Ibid., 9.

[14]Ibid., 10.

[15]국어국문학회 감수, *새로 나온 국어대사전* (경기: 민중서관, 2006), 1806.

사용하는 서국 국가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예배의 개념을 살펴보면 예배를 섬김과 봉사의 의미로 이해하여 ‘봉사적 개념’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예를 들어 영어에서는 God's service 또는 Worship service란 표현을 예배 용어로 사용하기도 한다.[16] 따라서, 우리가 예배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인식해야 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과 그를 섬김과 그의 뜻에 순종하는 봉사의 신앙인 것이다.[17]

2) 성경에서의 예배의 의미

구약성경에는 ‘예배’로 번역되는 중요한 단어로 봉사의 섬김을 나타내는 ‘아바드(abhadh)'와 굴복하는 것 또는 엎드리는 것을 뜻하는 ’샤하아(shachah)'가 있다. 봉사 또는 섬김의 의미를 지나는 ‘아바드(abjadh)'는 성전에서 드리는 공식적 예배에 사용된 단어로 본래 노예나 고용된 종들의 노동을 의미했다(창 14:4, 15:14; 레 25:40). 이 단어가 여호와를 섬기는 데 사용되면서부터(출 3:12) 제물을 드리는 일이나 레위인이 회막에서 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이사야 19장 21절에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 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는 말씀이 나오고, 예레미야 44장 3절에도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는 말씀이 있다. 이사야의 ‘경배’와 예레미야의 ‘섬긴다’는 말은 그 동사를 명사로 한 ‘에베드’가 ‘종’을 가리키는 것을 미루어 보건대,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주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존재임을 나타낸다.

‘샤하아’는 엎드린다. 굴복한다는 의미로서 예배자들이 숭배 대상에게 최대한으로 존경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역대 29장 30절에는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로가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느니라”는 말씀이 나오고, 욥기 1장 20절에도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

---

[16]황성철, *예배학*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1998), 16.

[17]정일웅, *21세기를 향한 한국교회와 실천신학* (서울: 여수론, 1999), 257.

하며”라는 말씀이 나온다. ‘엎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복종해야 하는 존재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신의 죄됨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용어에서처럼 구약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무한의 겸손으로 자기를 낮추고 그분의 뜻을 좇아 봉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외적 표현은 ‘육체적인 겸손의 자세’와 ‘물질적인 희생으로서의 봉사 행위’로 예배자의 진실한 마음과 생활의 표현이어야 한다.[18]

신약성경의 대표적인 70인역(Septuagint) 성경에서는 히브리어 ‘샤하아(shachah)’를 헬라어 ‘프로스쿠네오(proskunewo)'로 번역한다. 프로스쿠네오(proskunewo)는 신약 성경에서 예배를 가리키는 가장 많이 사용된 헬라어로서 문자적인 뜻은 ‘누구의 손에 입 맞추는 것’ 혹은 ‘존경의 표시로 다른 이 앞에 엎드리는 것’이다. 이 용어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통용되었던 것으로 흔히 지상의 통치자들에게 존경을 표하여 허리를 굽히는 행위를 말한다(마 18:26). 이 단어를 예배에 사용할 때의 주도적인 의미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어 경배하는 것을 뜻한다(마 28:9, 17; 고전 14:25; 요 4:24 등). 프로스쿠네오(προσκυνεω)와 함께 예배를 표현하고 있는 단어는 ‘레이투르기아(leiturgia)'로,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봉사로서 예배를 의미한다. 레이투르기아(λειτουργια) 이 레이투르기아는 ‘백성을 위하여 일한다’라는 뜻이며, 소국가였던 아테네를 위하여 수행되었던 일반적인 임무에 사용되던 단어이다. 즉, 이것은 ‘고대 헬라의 정치적 공동체를 위한 봉사’ 또는 ‘공공 목적을 위해 부자가 무보수로 하는 봉사’를 표현하던 말이다. . 이 용어는 ‘섬기기’ 혹은 ‘봉사’로 번역되었고, 여기에서 예전(liturgy)이라는 말이 나왔으며, ‘공적인 일 혹은 행위’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낱말은 옛 언약 아래서의 레위인과 제사장의 직무(눅 1:23; 히 9:21참조), 그리스도의 직분(히 8:26)과 교회의 예배(행 13:2)를 표시하는 구체적인 언어로 사용되었다. 교회를 위한 공적인 봉사를 예배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

[18]황성철, *예배학*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1998), 17.

사도바울은 이 용어를 이방인의 교회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헌금하는 것(롬 15;27)을 포함한 교회를 위한 모든 연보(고후 9:12)와 기독교인의 생사와 죽음(빌 2:17),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장면(행 13:2)에 사용하여 예배의 범위를 교회를 위한 공적 봉사의 의미로 확대하고 있다. '라트레이아(gatreia)'란 구약성경의 아바드를 70역에서 번역한 것으로 '섬긴다'는 의미이다. 이 단어는 '종으로서 자신의 성전을 섬겨야 할 신분을 확인시키는 일'에 사용된 말로서, '지위가 높은 자에 대한 봉사'(요 16:2; 롬 9:4, 12:1; 히 9:1)를 뜻한다. 이 용어가 종교적 의미를 지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성경에서 이 단어는 기도와 간구와 대망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으로 표현되었고(눅 2:37; 계 7:15), 자기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가르치는 것으로 사용(롬 12:1-2)되었다. 이와 같이 '가트레이아(λατρεια)'라는 단어를 통해 제사적인 예배와 전문적인 종교적 행위로서의 예배, 기독교인의 전생활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참 예배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예배의 생활, 그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참 예배인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용어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신약 성경의 예배는 최대한 존경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 교회를 위한 공적인 봉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고백, 믿음의 순종으로서 말씀 선포,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섬기는 삶, 자체 등의 개념이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19]

3) 예배의 다양한 기능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봉사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 그 자체이다. 그 섬김은 예배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으로 귀결된다. 물론 그 만남은 대화의 과정으로 설명된다. 그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 계시적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 되는 것이며, 교회에 대한 하나님이 봉사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교회의 봉사의 관계 속에 존재하는 사건을 말한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목적인 것이다. 이처럼 예배는 그 자체가 목적이고 다른 어떤 것도 그것을 대신할 수 없으며, 절대로 수단시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여러 가지의

[19]Ibid., 17.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

(1) 교육적 기능

종교개혁자 루터는 예배의 교육적인 의도와 본질을 인식하고 벌써 그의 글 ‘독일미사’에서 “예배는 우리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하는데, 먼저 하나님에 대한 자의식을 일깨우고, 신앙을 강화시켜주며, 믿음을 도우는 역할로 표현되어야 할 것이라”[20]고 강조하였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예배의 교육적 이해는 19-20세기 초엽의 독일 신학자 니버갈(F. Niebergal)에 의해 발전되었는데 그것은 소위 신앙의 교회에 대한 것이다. “교화란 가르침을 통하여 감동을 받게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적인 자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21]을 뜻한다. 이것은 예배의 전체를 통하여 신앙이 연약한 자들에게 신앙적인 감화와 깨달음을 주고자 하는데 그 의도가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예배의 교화적 성격은 바로 교육적인 기능을 대변하는 것으로서 경건주의 시대의 예배적 이해가 그러한 것이었다고 하겠다. 이러한 경건주의적인 예배이해인 교화적인 성격은 한국교회의 예배에서도 그래도 반영되고 있다고 할 것인데, 역시 예배에서 가장 큰 비중을 갖는 순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설교인 것이다.[22]

그러므로 예배는 언제나 교회를 위한 신앙적 삶의 새로운 원리를 강화하는 장이요, 그 속에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인 가르침으로서, 항상 윤리적 관점 하에서 삶의 지표로써 선포되는 것이며, 개개인의 신앙강화에 교육적인 여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2) 축제적 기능

기독교 예배는 본질적으로 역사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활동, 즉 창조, 섭리, 구속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적 계시, 그리고 성령님의 강림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나심을 찬양하고 축하하는 축제이다.[23] 예배의 이런 이해에 관련하여 랑게(E. Lange)도 그리스도인 개체와

---

[20]정일웅, *기독교 예배학 개론* (서울: 도서출판사 솔로몬, 1996), 123.

[21]황성철, *예배학*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1998), 29.

[22]정일웅, 기*독교 예배학 개론* (서울: 도서출판사 솔로몬, 1996), 123.

[23]황성철, *예배학*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1998), 26.

교회의 생명을 위한 기능관계에서 예배를 "하나님의 언약갱신의 잔치(Fest der Bundeserneuerung)"[24]로 해석 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예배에 나타나야 할 그리스도 안에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언약관계에서 본 것이며, 매 예배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믿는 자에게 보증하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언약의 새롭게 됨을 위한 축제로 이해한 것이다.

예배의 축제적 성격은 구약의 예배에서 근원을 찾을 수 있다. 구약 시대의 장막(성막 또는 회막) 예배는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인 유월절과 오순절 및 초막절에 집중되어 있는데 유월절은 해방의 축제일이고(출 3:18; 신 16:18; 눅16:10-11; 행 20:16),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방황할 때 경험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기념 축제였다(출 23:16; 신 16:14-15) 신약의 예배도 본질적으로 축제의 성격을 띠고 있다. 신약의 예배가 축제의 성격을 가지게 된 것은 부활의 승리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승리이다. 그러므로 승리의 축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25]

결론적으로 예배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베푸신 은혜를 상기하고 신뢰를 회복하며 말씀을 들음으로써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그에게 나타내는 것이며, 이것을 묘사하는 행위로서의 축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3) 기도적 기능

종교개혁자 루터는 기도적 기능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 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예배에서 그의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는 다시금 그 예배에서 기도와 찬양(Gebet und Lobegesang)을 통하여 그에게 말한다.[26]

예배는 근본적으로 개개인의 기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며, 공적인 교회의 예배

---

[24]정일웅, 기독교 *예배학 개론* (서울: 도서출판사 솔로몬, 1996), 126.

[25]Ibid., 26.

[26]Ibid., 124.

는 바로 공동체의 공동적인 기동의 장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기도라고 할 때 우리의 영육의 필요를 간구하는 요청의 내용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나, 그 중심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영광돌림이 그 중심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기도의 본질은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서 찬양(Doxologie)을 의미한다.[27]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말하는 표현의 양식이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는 적어도 다섯 가지의 요소가 포함 된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다. 감사와 찬양, 회개와 도고와 간구 등이다. 그리고 음악적으로 표현되는 교회의 노래와 찬송, 악기 등은 바로 신학적으로 기도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표현의 또 다른 방식이라고 할 것이다.

예배에는 여러 다양한 기능들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주요 기능인 세 가지 기능을 다루었다. 즉 교육적 기능, 축제적 기능, 기도적 기능이다. 예배를 통하여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가르침을 교육할 수가 있는 것이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이러한 예배의 교육적 기능은 큰 도움을 주는 것이다. 또한 예배는 그 자체가 축제이다. 이것은 구약성경에서부터 근원을 찾을 수 있다. 하나님의 안보하심에 대한 감사의 메시지가 바로 예배의 축제적 기능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예배는 기도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예배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와 창조주 하나님의 소통인 것이다. 즉,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다.

2. 예배의 목적과 대상

1) 예배의 목적

예배의 목적은 예배 그 자체이다. 예배의 비중이 사람들에게 있거나 행사에 더 많이 실려 있다면 그것은 예배가 될 수 없다.[28] 예배의 첫째 목적은 하나님께

---

[27]조기연, *한국교회와 예배갱신*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2004), 168.

[28]Graham Kendrik, *경배,* 김성웅 역 (서울: 두란노, 1993), 39.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우리는 그분에 대한 우리의 숭모(崇慕)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겸손한 마음으로 그 분 앞에 나아간다.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는다. 그분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릴 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고양(高揚)된다. 예배는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다. 첫째,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다.[29] 둘째,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예배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 진리는 사도 요한이 본 하늘의 환상에서 아주 잘 나타난다.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계 5:11,12).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정당한 일이요 옳은 일이다. 마땅히 존귀를 받아야 할 분께 존귀를 돌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우리는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예배는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큰 유익을 준다.[30] 인간이 바칠 수 있는 최고의 헌신과 사랑은 곧 하나님을 향한 그것인데, 바로 이 헌신과 사랑을 그분께 바칠 때 우리는 최고의 만족을 얻게 된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의 목적을 복음전도에 두고, 예배를 캠프모임으로 전환시킨 사람도 있다. 예배의 일차적인 목적이 복음전도에 있어서는 안 된다.[31]

예배의 목적은 예배의 대상은 바뀌어서는 안 된다. 예배의 일차적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다. 예배의 목적을 상실한 이들은 결국 바닷가에 버려진 목적 잃은 배와 같은 것이다.

29Ibid., 45.

30주숙일, *찬송의 향기를 온누리에* (서울: 코이노니아, 1993), 27.

31Sally. Morgenthaler, *이것이 예배다,* 임하나 역 (서울: 하늘사다리, 1998), 135.

2. 예배의 대상

종교의 기본적인 삼대요소를 든다면 믿는 대상과 그 대상을 섬기는 의식과 그 종교가 제시하는 내세관(來世觀)이라고 하겠다. 종교란 어떤 존재를 섬기느냐에 따라 그 형식과 내용이 결정되는 것이며, 또한 섬기는 의식을 통하여 오늘의 현재적 생활에 변화 및 적용을 가져오고, 그 종교가 갖고 있는 내세관에 따라 미래 지향적인 삶의 형태가 창조된다. 기독교는 이상의 삼대요소를 훌륭하게 제시하는 가장 우월한 종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으며, 어떤 종교도 그 내용을 같이 할 수 없는 고도한 예배 의식을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지속과 더불어 내세관이 가장 확실하게 제시 되어진 유일한 종교이다.[32]

일반적인 종교들이 예배의 대상을 어떤 특정한 인간이 나 사물에 두고 그것들을 섬기는 예를 우리는 주위에서 많이 보아왔다. 그것은 흔히들 사이비 종교 또는 이단이라고 말한다. 또는 "Tortemism" 이나 "Sharmanism"이라고도 말한다. 그러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의 대상은 그 어느 것도 아닌 즉 그 어떤 피조물이 아닌 이 땅위의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이 땅위의 모든 피조물은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은 피조물을 예배하는 그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조작된 것이 아닌 아기가 어미를 찾는 진실한 영적 갈구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인간들에게 자신들의 갈구함을 채워 줄 그 어느 것을 만들어 내지 말 것을 명령하셨다. 그것은 곧 십계명에서 말씀하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창조 이후 하나님을 섬겨야 할 피조물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 내었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예배의 대상은 인간이 아니며 어떤 사물도 아니다. 예배는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은 항상 예배에 있어서 알파 (alpha)이며 오메가 (omega)가 되신다. 그러므로 기독교 예배는 하나님을 중심하고 있는 것이다.[33] 하나님께서는

---

[32]Richard H. Niebuhr, *그리스도와 문화*, 김재준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98.

[33]Graham. kendrik, *경배,* 김성웅 역 (서울: 두란노, 1993), 125.

자기와 더불어 교제할 사람을 창조함으로써 예배에 솔선하셨으며 존재의 근거로서 생명의 원천이며 보존자가 되신다.[34] 그는 최고의 통치자로서 사람과 만나고 또한 사람을 심판하시고 요구하신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사람이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하심과 사랑을 새롭게 들어내셔서 사람으로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한 이상이나 생활철학이나 형이상학적인 원리가 아니라,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인격적이고 영적인 존재이시며 초월적인 분이시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의 생활에 끊임없이 임재 하시사 풍성한 사랑과 용서를 하신다.[35] 이에 대해 사도바울은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않는다(행 17:27)"고 했으며 시편 기자는 "하늘에 가도, 음부에 가도, 바다 끝에 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고 했고 흑암 중에서도 주에게는 숨기우지 못한다"고 했다 (시 139:7-12).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예배하기를 요구하시기 때문인 것이다.

3. 시대의 흐름에 따른 예배

1) 성경 39권 시대의 예배

열린예배를 연구함에 있어서 예배 형식의 역사적 변천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또한 기존의 예배에 대한 이해가 없이 열린예배를 기획하고 준비 할 수는 없다. 또한 예배 위원으로 서는 것도 위험하다. 기존의 예배에 대해 반발력이나 좋지 않은 반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없이 현재가 없고 현재가 없이 미래가 없는 것이다.[36]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예배란 어느 개인의 주장이 그대로 펼쳐지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의 예배는 어느 한 개혁자의 주장을 따를 수 없는 것이다. 예배는 성경을 바탕으로 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기독교의 예배는 정확한 성

---

[34]김연택, *건강한 교회와 예배* (서울: 프리셉트, 2000), 78.

[35]Franklin M, Segler, *예배학 원론,* 정진황 역 (서울: 요단 출판사, 1979), 131.

[36]박기순, *인간, 매체, 커뮤니케이션*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0). 13.

경의 이해에서 출발하여야 한다.[37]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예배 자를 찾으셨으며, 각 시대마다 주어진 환경 가운데 가장 적절한 예배를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배 형식의 역사적 변천에 대한 구체적 이해는 중요하다.

(1) 구약시대의 예배

구약에는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반응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보여 주고 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완성시키는 예전 의식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감사 , 찬양 , 자발적 헌금 , 율법 준수를 함으로써 하나님을 경배했다. 구약에서 드려진 공적인 예배는 회막과 성전에서의 예배에 기원을 두고 있다. 희생 제물과 예물을 드리는 의식, 해마다 있는 절기들과 금식일은 이스라엘의 공적인 예배를 이루는 모든 요소였다. 공적인 예배는 기족과 공동체를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드려졌다. 속죄일에는 슬픔을(레 23:27-28), 그 외의 절기들에는 기쁨을 함께 공유하였다(신 16:15). 이러한 의식들과 더불어 공적인 예배에는 축도 또는 기도(민 6:24-26) 와 성가대 그리고 악기들 - 비파, 수금, 제금 등 - 이 사용되었다(대상 16:4-6).

하나님께서는 그가 받으시는 예배의 형식을 정하셨으며, 그 방법대로 정확하게 드릴 것을 명하셨다.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마음이 진실하게 표현되지 않을 경우 그 예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것은 단지 의식이나 예전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훈계에 대한 그들 자신의 태도와 관계되어 나타났다(시 50:12-15; 사 1:11-17; 암 5:21-24).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은 예배드리는 자의 기쁨으로 표현된다. 시편의 많은 부분들이 공적인 예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견한 신실한 신자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다. 가장 좋은 예가 다윗의 경우인데, 그는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에 가져오자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며 춤을 추었다(삼하 6:14-16).[38] 이와 대조적인 경우는 말라기 시대에 드려졌던 타락하고 무성의한 예배였다(말1:13).[39] 이러한 공적 예배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의식주의에 빠지게 하려고 고안된 것은 결코 아니

---

[37]James F. White. *예배의 역사.* 정장복 역 (서울: 쿰란 출판사, 1997). 154.

[38]Ralph Martin, *초대교회예배*, 오창윤 역 (서울: 은성출판사, 1986), 30.

[39]이상훈, *문화로 엿보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문화* (서울: 대한기독서회, 2003), 151.

었다. 신실한 세대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며 그 과정에서 개인적인 깊은 기쁨을 발견하는 길이었다.

(2) 모세 이전 시대의 예배

모세 이전의 시대라 함은 유대교의 가장 원시적인 시기로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로부터 모세가 부름 받기 전까지를 가리킨다. 이 시기의 예배 형태는 지극히 자연적인 현상을 띠고 있다. 에덴동산에서 살던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창조주를 경외하였으나 죄를 짓고 탈선했을 때 그 관계는 단절되고 말았다. 그러나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에 이르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제단을 쌓는 일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예배 자들의 심성을 따라 응답하셨던 기록[40]을 볼 수 있다. 그 후 에녹과 하나님과의 밀접성에서[41] 예배의 계속성이 다시 한 번 추측된다. 그리고 노아의 경우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대로 섬기고 순종한 뒤 스스로 제단을 쌓게 되는 과정[42]을 볼 수 있다.

이 시대의 예배의 특징은 해, 달, 별 등 자연의 신들을 섬기는 다신 적 예배이며 여기서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하는 독백적 예배이며 우상종교였던 이방 원시종교 예배와는 달리, 성서 초기의 예배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유일신 예배였다.[43] 하나님의 인격적인 응답이 있는 예배였으며, 일체의 형상을 남기지 않는 절대적인 권위와 말씀을 따랐던 예배이다. 이러한 독특성을 지닌 야웨 종교의 예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별된 민족의 시조로 불림을 받을 때부터 더욱 뚜렷이 그 윤곽을 나타내게 되었다. [44]

아브라함은 하나의 족장으로 출발하면서 제사장과 예언자와 통치자의 일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다니면서 어디에서든지 필요성을 느낄 때마다 제단을 쌓았다. 이러한 강한 예배 의식은 그의 후손

[40]창세기 4:3, *개역개정.*

[41]창세기 5:24, *개역개정.*

[42]창세기 8:20, *개역개정.*

[43]이상훈, *문화로 엿보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문화* (서울: 대한기독서회, 2003), 127.

[44]정장복, *예배학 개론 (*서울: 종로서적, 1997). 31.

인 이삭(창 22:9-10)과 야곱(창 26:24-25)에세 계승되었음을 보게 된다.[45] 이 시기의 예배의 특징은 예언적, 제사적 요소들이 다같이 나타나고 있다. 예언적 요소란 족장들 각자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이고, 개인적 접근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으며,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에 성품에 대한 통찰력을 갖도록 해 주었다. 개개인이 하나님과 직접 또는 간접적인 접근을 통하여 얻은 것들인데, 거기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자기의 목적을 밝히셨다.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예배자의 모습은 그 아들 이삭에게 또한 그의 후손 야곱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이어져 내려왔다. 내가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은 나는 물론이고 내 자손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길이 될 것이다.

제사 적인 요소에 있어서는 그들이 직접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희생의 제물을 드리면서 인간들이 앞으로 계속해야 할 예배의 본과 제사의 필요성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모세 이전시대 종교의 기본 원칙과 예배 의식은 예언적이고 제사적이라는 가장 기본적 형태로 출발하여 계속 이어져 오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46]

(3) 모세 이후 시대의 예배

모세라는 인물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새로운 장을 펼친 지도자이다. 그는 선조 야곱과 그의 열두 아들이 이집트로 가서 요셉 시대 이후 약 400년간을 노예 생활로 지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대이동을 성취시킨 인물이다. 그러나 예배학적인 차원에서 모세를 또한 새로운 기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율법 서를 기록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전의 구체적인 내용을 계시 속에서 기록으로 남겼다는 사실 때문이다. 그가 남긴 레위기에서 지금껏 이방 종교로 인해 오염되었던 예배의 형식을 종식시키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게 해 주었다. 이 당시의 그들 종교에 있어서 제사의식과 희생의식을 기뻐하시는 분으로 믿는 것이 주를 이루었다. 즉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의식을 기뻐하시는 분으로 믿었다. [47]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십계명이란 새 계약을

[45]Ibid., 32.

[46]Ilion T. Jones, *복음적 예배의 이해,* 정장복 역 (서울: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 출판국, 1988), 28.

그 백성에게 부여하였으며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제사제도를 명하셨다.

이로부터 노예생활 가운데 무질서했던 야웨 종교의 독특한 예배 형태를 쇄신해 가는 구체적인 발전 단계가 되었다.[48] 모세가 가나안 땅의 문전에서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계자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그토록 그리던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이르렀다. 그들은 거기서 바알신을 섬기는 그 땅의 토착 종교에 접하고 손쉽게 그들의 종교에 호감을 갖게 되면서 탈선을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 바알을 하나님과 동일시하고 하나님께 드리던 예배와 의식, 기념 축제 등을 바알에게 돌리는 심각한 과오를 범하고 만다. 더불어 거짓 예언자들까지 등장하게 된다. 그러나 그 백성의 이탈을 꾸준히 지적하는 사사(士師)들의 활동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명맥을 근근이 유지할 수 있었다.

이스라엘 2대 왕인 다윗 시대에 이르러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복고운동이 전개되었으며, 나아가 아모스, 미가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 부패된 예배의 회복이 가능해 질 수 있었다.[49] 모세 시대에 제정되었던 성전 예배는 솔로몬의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극치를 이루었다. 이 시기에 들어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었는데 그것은 아래와 같다. (1) 십계명이 담긴 법궤를 성전에 모셨던 일 (2) 진설병과 황금등대를 비롯한 기구들로 성전을 화려하게 장식 (3) 찬송과 함께 수금, 나팔 같은 악기의 사용 (4) 예배 참례자들이 십일조를 비롯하여 각종 제물을 드림. 이러한 성전예배는 솔로몬 말기부터 타락과 함께 형식화되기 시작했고 예배의 본래 목적을 상실하기에 이르렀다.[50] 그로 인해 아무리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원치 않으셨다. 결국 하나님은 〝오직 공의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라고 미가서 6장8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 하셨다.

---

[47]이상훈, *문화로 엿보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문화* (서울: 대한기독서회, 2003), 147.

[48]정장복, *예배학 개론* (서울: 종로서적, 1997), 36.

[49]Richard, H. Niebuhr, *그리스도와 문화,* 김재준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142.

[50]Ibid., 36-37.

(4) 예언자 시대의 예배

세속종교에 물들어 버린 이스라엘의 야웨종교는 이스라엘 민족의 존폐와 직결된 문제였음은 성서를 통해 잘 나타나 있다. 이때 허물어진 예전과 신앙을 되살려야 한다는 외침 가운데 몇몇 인물들이 개혁운동을 일으켰다.[51]

첫 번째, 요시야 왕의 개혁운동이 있다. 그는 주전 640-609년까지 유다의 왕으로 재위하는 동안 성전에서 대제사장 힐기야에 의하여 발견된 율법 책에 명령되어진 모든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는 대대적인 개혁을 시도했다.[52] 이 법전에 의하여 지금까지 이방 신 바알과 관련되었던 지방 성소와 제단들을 모조리 파괴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생활과 인도 주를 겸손히 서약하며 성전의 재건과 예전의 회복을 이룰 수 있었다.[53]

두 번째로, 예레미야의 개혁운동이 있다. 그의 집중적인 관심은 외형적인 의식에 사로잡혀 직업화되어 가는 제사장들의 종교성을 비판하는 데부터 시작하여 영적인 종교로서 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었다. 그는 제도적인 개혁보다도 개인의 책임성과 그들 심령의 변화가 시급함을 주장하며 내재적(內在的) 종교로서의 개혁을 의롭게 부르짖었던 것이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잡혀간 시기에 활동했던 에스겔의 개혁운동을 들 수 있다. 에스겔도 죄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성을 대단히 강조했다. 그는 이스라엘의 종교는 내면적인 일이며 하나님의 영은 모든 신실한 사람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영적 정화를 부르짖었다.[54] 결국 이 시대의 예배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어지는 부분이다. 예배자의 신실함은 예배자로서 필히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이다. 마음과 영과 육으로 드려지는 신실한 예배가 전적인 예배이기 때문이다.[55] 그러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적 정화를 이루시는 즉 영적 제사를 받으시는 것이다.

---

[51]정장복, *예배학 개론* (서울: 종로서적, 1997), 37.

[52]조계광, *참된 예배를 회복하라*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2), 107.

[53]Anthony, Giddens, *현대사회학,* 김미숙 외 6인 역 (서울: 을유문화사, 1993), 121.

[54]Ibid., 37.

[55]Ed, Dobson, *열린예배 실습 보고서,* 박혜영, 김호영 역 (서울: 홍성사, 1998), 86.

(5) 포로 후기 시대의 예배

주전 444년 느헤미야의 인솔 아래 이스라엘 민족은 포로 되었던 바벨론으로부터 마지막 귀환을 했다.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더불어 제사 법전의 발견과 함께 예언의 전승과 제사의식을 새롭게 다듬고 거룩한 공동체의 출발을 주도해 나갔다. 지금껏 포로지에서 형식을 갖추지 못한 채 임시적으로 드렸던 회당 예배는 새로운 정비가 불가피 했으며,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던 제사장의 임무도 율법을 가르치는 일부터 시작하여 성실한 이행이 요구되어졌던 것이다. 이 시기의 이스라엘은 단순한 국가라기보다 종교적 공동체, 소위 거룩한 공동체였으며 모든 사람들이 이 형태의 지속을 위하여 노력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포로 기간 중에 새로이 등장한 회당(synagogue)에 대한 언급이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현재적 상황에서 회당에 모여 나라 잃은 슬픔을 함께 하며 성전예배를 대체한 “회당 예배”를 갖게 되었다.[56] 이 예배의 강조점은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일이었다. 이 말씀 전에 모두가 일어서서 축원 또는 기도를 했고 말씀이 봉독되는 시간도 역시 일어서서 지극한 경외감을 표시하기도 했다.[57] 회당에서 드려지는 예배에서는 동물을 제단에 바치는 의식이 점차 약화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집전자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예배 자들의 참여 속에 경청되어 이해를 가져오는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성전의 제사대신 이들에게는 새벽, 아침, 정오로 드리는 기도가 성행하게 되었으며 가정까지도 예배드리는 성소로 바뀌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평신도들도 예배 활동에 직접 동참하게 되었다.[58]

포로후기 시대의 예배는 회당이라는 곳에 모여 드려졌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었고, 이전의 제사장들에게만 허락 되어진 예배의 활동이 평신도들에게도 직접 참여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되어졌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예배자로 직접 예배 할 수 있는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 되어진 것이다. 포로후기 시대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에서 고통을 당하였

---

[56]정장복. *예배학 개론* (서울: 종로서적, 1997). 39.

[57]Gary Smalley. John Trend, *사랑언어 그림언어*, 서원교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96), 43.

[58]Ibid., 38.

듯이 말이다. 그러나 지금에서 우리가 역사를 통하여 알듯이 그 일제 식민지 당시의 믿음의 선조들이 지켜나간 신앙의 절개와 순교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우리의 선조들이 포기하지 않은 믿음을 이어 나가는 것은 예배자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2) 성경 27권 시대의 예배

(1) 예수님의 사역과 예배

예수님은 예배의 완성자이다. 또한 예배자의 가장 좋은 모델이다. 하나님 앞에 늘 신실함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관계는 지금 우리가 해야만 하는 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당시 이스라엘이 행하고 있는 변질된 예배에 대해 판단하셨다. 예수님은 죄 속에 죽어 가는 생명들을 구원시켜야 한다는 특별한 사명감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당시의 종교적 상태와 그 내용들 및 예배의 제도들을 판단하였다.

그의 특별한 관심은 어떤 의식적인 제도보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하는데 있어 심령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는 회개운동을 전개했다. 백성들의 내면적 각성과 실천을 추구하는 가운데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함"[59]을 강조했다. 예수님은 결코 성전예배나 회당예배를 거부하거나 부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성전 예배를 부패시키는 무리들을 향하여 채찍을 들었고[60], 성전예배의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키는 일들을 행하였으며[61], 그의 생애의 절정을 의미하는 수난의 주간을 대부분 성전에서 보냈다.[62]

이러한 사실은 예수의 성전예배에 대한 관심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그리고 당시에 여러 곳에 산재해 있는 회당을 규칙적으로 돌아보시며 말씀을 가르친 일은 성경의 기록 속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63] 그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주제였던 "하나

---

[59]정장복, *예배학 개론* (서울: 종로서적, 1997), 40.

[60]요한 복음, 2:12-25. 개역개정.

[61]요한 복음, 5,7,8장. 개역개정.

[62]마태복음 21:12-16, 마가복음12:41, 누가복음2:5. 개역개정.

[63]누가복음 4:16. 개역개정.

님을 사랑하며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64] 는 요약된 계명으로 예배 중심의 종교성과 실천 중심의 윤리성을 계속 가르쳤음을 잘 알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에 의해서 새롭게 제정된 성례전(聖禮典)이다. 세례와 성만찬을 지칭하는 이 성례전은 구약의 성전 예배나 회당 예배에서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새로운 의미와 내용을 지닌 예배 의식이다. 이 의식은 기독교 예배의 이천 년 역사에 변함없는 예전이 되었고 예배의 구심점으로서 지금껏 지켜오고 있다.[65] 이 성만찬과 성례전은 예수님 이전의 시대에서는 없었던 부분이다. 예수님 이전의 구약시대에서는 죄를 지은 인간대신 제물이 필요했다. 그 제물의 피를 대신하여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며 성만찬과 성례전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며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이다.

(2) 사도시대의 예배

신약시대의 주역이었던 사도들은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과 출발을 같이 하고 있다. 그들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에서 좌절과 공포에 떨었으나, 부활의 사건에서 다시금 확고한 신앙을 소유하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의 승천 후 그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배 속에서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였고, 오순절 성령의 강림과 함께 새로운 형태의 교회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들의 예배에 대한 관심과 참례는 다음 세 분야에서 찾아 볼 수 있다.[66] 먼저,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옛 사도들의 예배와 활동이 눈에 띈다. 그들은 예수의 승천 이후 바로 성전으로 발길을 옮겨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 행위를 계속하였다.[67] 그 뿐만 아니라 오순절 사건[68] 이후에도 성전을 중심으로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미와 기도를 하면서 성전을 교회 활동의 근거지로 삼

[64]정장복, *예배학 개론* (서울: 종로서적, 1997), 41.

[65]Ibid., 41.

[66]Gallsoway, Dale E, *20/20. 비젼,* 송영조 역 (서울: 서울성경학교 출판부, 1994), 39.

[67]누가복음 24:55. 개역개정.

[68]사도행전 2장. 개역개정.

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다.[69] 다음으로, 회당중심의 예배와 그들의 활동이 뚜렷이 발견된다. 예루살렘 밖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은 언제나 쉽게 모일 수 있는 회당을 가지고 있었다. 이 회당을 예수께서도 안식일마다 정기적으로 찾아가 예배를 드렸고[70] 바울을 비롯한 많은 사도들도 전도와 예배의 처소로 계속 사용해 왔다. 마지막으로, 이 시대의 예배 활동은 유대교의 핍박 속에서 진행되어야 했기 때문에 예배 예전의 정립이 무척 어려웠다는 사실이다. 그러기에 자연적으로 그들의 일차적 관심은 복음전파에 있었고, 그 일을 위하여 그들은 순교적 자세로 사역에 임하였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도 시기의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구체적 행위로서의 예배보다는 복음 전파의 과정에서 흔히 병행되었던 비예전적(informal liturgy) 형태를 띠고 있었다.[71]

사도 시기의 예배가 비 예전적인 성격을 지닌 것은 당시의 상황이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복음 전파에 대한 중요성이 그 당시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은 언급 할 필요가 없으나 중요한 것은 예배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목적을 상실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후 사도시대의 예배는 오늘날 예배의 표준을 제공하였다. 사도시대 초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계속하였다. 행2:46에 그들이 매일 성전으로 갔다고 하였다. 누가는 그들이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 하니라"(눅 24:53)고 하였다. 사도 바울까지도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고 하였다(행 22:17). 또한 바울과 다른 사도들도 유대교의 절기와 성일을 지켰을 것이다(행 20:6,16, 고전 16:8).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유대의 절기와 안식일을 지킴이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강조했다(골 2:16-17). 사도들은 당분간 성전예배를 드렸지만, 그들의 예배의 근본 기초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것을 알았다. 초대교회 예배가 유대적 예배로 계속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으로 죄를 지시는 완전하신 분, 생명의 창조자로서 경배를 받으셨다.

69사도행전 2:46-47, 3:1, 5:42. 개역개정

70마가복음 1:21-28, 3:1-6,

71김세광, *예배의 역사와 그 발전* (서울: 장신논단 제6집, 1998), 128.

스데반은 복음을 반대하는 회당의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였으며(행 6:9), 바울은 가능하면 복음사역을 회당에서 하였다 (행 9:20, 13:5,14, 17:1,2,10). 아볼로도 회당에서 강론하였다(행 18:26). 유대 지도자들은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다"(요 9:22). 그리스도에게 고침 받았던 많은 기독교인들이 출교되었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에서 유대인의 반대와 훼방을 받고 회당에서 나와, 회당 옆의 집에 사는 유스도의 집에서 복음을 계속 증거 했다(행 18:6-7). 초대교회가 회당과 예루살렘 성전과 이런 관계를 가진 것은 A.D. 70년 성전이 파괴될 때까지였다.

(3) 초대교회의 예배

신약시대를 거쳐 주 후 200년까지에 해당하는 초대교회에서의 예배는 예배의 내용이나 형태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리스도를 증거 하는 일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왜냐하면, 예수는 그의 사역가운데 유대의 전통사회에 도전하는 새로운 세계를 선포했다. 특별히 예배의 측면에서 볼 때 그는 유대교의 제반 예전 활동의 종식을 선언하였다. 따라서 이런 가운데 기독교에 대한 가혹한 핍박이 시작되었고, 새롭게 노출된 예배의 실행은 더욱 어려워 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72]

그러나 하나의 분명한 사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통하여 그들의 생명이 결속되었고,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명령을 따라 가졌던 성만찬 속에서 늘 새로운 신앙의 활력소를 찾았다는 점이다. 이런 과정을 지내면서 그들은 자연적으로 예배의 내용의 중심은 그리스도가 되었으며 그가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의 성취이심을 믿는 신앙이 확고하게 되었다. 그리고 예배의 핵심적 순서도 말씀과 성례전에 집중되었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새로운 사명을 재확인하는 데 역점을 둔 예배의 분위기를 형성해 갔다.[73] 예배의 중심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 초대교회는 수많은 핍박의 시대였다. 그러나 그러한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통하여 온 세상을 변화 시키는 씨앗을 뿌리셨던 것이다.

진정한 예배는 고난을 이기는 힘을 준다. 고난을 주는 환경을 변화 시키는

---

[72]장성배, *글로벌 시대의 교회, 문화 그리고 사이버 스페이스* (서울: 성서연구사, 2001), 63.

[73]Ibid., 42.

힘을 준다. 초대교회에서 예배의 핵심은 성만찬이었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성만찬의 의미는 감사였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진 용서와 구원을 감사하는 예식이 그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만찬인 것이다. 그러다 보니 감사보다는 속죄와 용서의 의미로 성만찬을 이해하기 시작하였고, 더 나아가서 떡과 잔은 화해를 위한 희생제물로 여겨지게 되었다. 심지어 떡과 잔이 불사의 명약으로 오해되는 미신화의 과정을 거쳐서, 그리스도의 몸인 떡을 집으로 가져가서 보관하다가 떡이 상하는 것을 보고는 불안에 떠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였다고 한다.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떡과 잔을 높이 쳐드는 "성체거양(聖體擧揚)"이 가톨릭교회의 중요한 예배의식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시점이라고 한다.[74]

3) 중세시대의 예배

기독교 역사에 새로운 전환을 가져온 것은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 기독교를 공인한 일이다. 이 사건은 개인 가정이나 지하 동굴들(catacombs)에서 이십 명 또는 삼십 명씩 분산되어 소집단으로 모이던 기독교인들을 한 곳에 집결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들의 수용을 위하여 대형화된 교회의 건물들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75] 이러한 사실은 콘스탄틴 대제가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그리고 콘스탄티노플에 대 성전을 건축함으로써 입증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다수의 무리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집전을 위하여 성직자의 위치와 권위 역시 점차 확장되어 갔다. 중세기에는 콘스탄틴 황제의 개종으로 인하여 카타콤이나 동굴에 드리던 이전의 예배와는 달리 교회건물 안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그래서 외적인 예배의식도 발전되어 교회력 (Church Years)을 사용하고, 찬송가가 발전되어서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이 시기에는 로마 제국의 영향력 있는 도시들마다 교회의 중심지가 생겨났고, 이곳에서 그 나름대로의 독특한 신학과 예배 형태를 발전시켜 나갔다.[76] 그러나 380년 기독교의 국교화 이후 심화되어 간 일종의 부작용이 예배 현장에 신비적 요소와 미신적 형태를 발생시켜 놓게 되었다.

---

[74]홍지훈, *종교개혁과 예배갱신, 호남신학대학교 편, 예배란 무엇인가?* (서울: 한국 장로교 출판사, 2003), 108-109.

[75]정장복, *예배학 개론* (서울: 종로서적, 1997), 43-44.

[76]Robert E. Webber, *예배학,* 김지찬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8), 79.

인위적인 정교한 형식은 수많은 기도문을 비롯하여 교독문과 교창을 양산하게 되었다. 특히 주님의 만찬은 미사에 있어서 극적인 신비의 현상으로 그릇 이해되는 결과를 가져와 구약의 제사 제도로 되돌아가는 느낌마저 갖게 한 것도 사실이었다. 더욱이 마리아 숭배를 비롯하여 수많은 성자 및 유물 숭배 사상이 나타나 초대교회 시대에는 생각할 수도 없는 상태로 비약해 버리고 말았다. 이처럼 비약한 의식 위주의 교회는 드디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간의 예배 양식에 대한 심각한 대립을 야기 시켰으며 그 끊임없던 논쟁의 결말은 1054년 동안 동방과 서방 교회의 영원한 분열이라는 불행을 초래하게 되었다.[77] 동방과 서방의 분열은 예배의 대상과 그 중심이 변질되고 예배의 목적이 변질 되어져 생긴 결과이다. 지금의 우리에게도 예배의 목적이 변질되어 버린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 되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의 목적이 변질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예배의 대상은 마리아도 아닌 그 어느 누구도 아닌 오직 하나님임을 늘 고백해야 할 것이다.[78]

(1) 동방 교회의 예배와 순서

동방 교회의 예배는 350-380년경에 안디옥과 알렉산드리아를 중심하여 교구의 정착을 하고 나섰을 때부터 예전의 독특성이 나타나기 시작 했다. 헬라 문화권을 배경으로 한 이 지역은 시와 문학과 예술과 철학을 숭앙하여 그것이 다방면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그래서 동방 교회의 예배도 헬라적 상상력에 의해 그 형태가 이루어졌으며 수많은 상징들이 놓이기도 하였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동방 교회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비” 혹은 “비의 (mystery)”의 요소와 “상징주의 (symbolism)”의 내용을 지닌다. 예배의 움직임은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는 드라마 그 자체로써,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을 계시하며, 그 안에서 예수의 세례 받음과 십자가에 못 박힘, 그리고 부활이 재현된다. 그리고 다양한 상징들이 예배를 하나님에 대한 신비감과 계시에 접하도록 도와준다. 둘째, 동방 교회의 예배

[77]정장복, *예배학 개론* (서울: 종로서적, 1997), 82.

[78]김병삼, *열린예배? 현대예배!* (서울: 도서출판 프리셉트, 2000), 73.

특성중 하나는 “경외감 (the sense of awe)”의 표현인데, 이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에 대한 존경심이다. 이 존경심은 특별히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행위에서 밝히 드러난다. 그러므로 예배의 처음과 나중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영광을 찬송 드린다. 셋째, 그들은 주님의 부활 (the resurrection)과 승천 (ascension)을 대단히 중요시하고 강조한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주님의 고난으로 상징되기 보다는 “하나님의 영광 (the glory of God)”으로 상징되고, 이것이 그들의 예배생활에 있어서 주요 부분이 되었다.[79] 네 째, 예배의 기도는 대단히 상징적(imaginative)이었고, 시적(poetic)이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은 냉철한 지성보다는 느낌 (feelings)과 감정 (emotion)에 호소하는 것이었다. 다섯째, 동방 교회의 예배는 말씀의 예배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성찬탁 (Prothesis)을 준비하는 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동방 교회는 주로 안디옥 계열의 예배의식을 사용하였는데, 특별히 클레멘틴 예전은 현존하는 예배의식들 중에서 최초의 것에 해당한다. 380년경 도덕적인 교훈과 교회법, 예배규정등 사도적 전승을 보아 편집한 ‘사도규약’에 이 예배의식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것은 동방교회 예전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예배의식 중의 하나로서 4세기 후반 주로 시리아와 안디옥 지역의 교회에서 사용되었다. 이 클레멘트 예식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80]

* 말씀의 예전 (The Liturgy of the Word)

성서 일과의 낭독 (Lections)

강 론 (Sermons)

초신자의 해산 (Dismissal of Catechumens)

* 다락방의 예전 (Liturgy of the Upper Room)

신자를 위한 주교의 기도

---

[79]Richard H. Niebuhr, *그리스도와 문화*, 김재준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165.

[80]정장복, *예배학 개론* (서울: 종로서적, 1997), 83.

인사와 응답 (Salution and response)

평화의 키스 (Kiss of Peace)

봉　헌 (Offertory)

　주교와 집례자들의 손 씻는 의식

　성찬대에 떡과 포도주의 봉헌

　사제의 제의 착용 (Vesting of Celebrant)

　부제장에 의한 제단 보호

서　송 (Surum Corda)

봉헌의 기도 (Consecration Prayer)

　창조와 섭리에 대한 감사

　삼성송 (Sanctus)

　성찬의 말씀

　성령을 구하는 기도 (Epiclesis)

　대 중보기도 (Great Intercession)

주기도 (Lord's Prayer)

부제의 연도와 사제의 기도

　　(Deacon's litany and Bishop's Prayer)

성　별 (Elevation)

　거룩한 실체와 응답

　대 영광송

　복의 기원

배　찬 (Delivery)

성찬의 참여 (communion)

부제의 권면과 선언 (Deacon's Exhortation and Bidding)

성찬 후 사제의 감사와 중재

사제의 축복기도 (Bishop's prayer of blessing)

폐　회 (Dizmissal)

(2) 서방 교회의 예배와 순서

동방교회와 마찬가지로 서방교회의 예배 내용과 순서도 초기 기독교의 예배 형태에 근거를 두고 있다. 말씀의 예전과 성만찬 예전 등은 그들의 예배에 부동의 구심점이었으며 그 외에는 특별한 변화를 찾아보기가 힘들었다. 그리고 동방교회가 수많은 상징과 형태를 예배에 가미한 것과는 달리 로마인들의 심성 그대로 실용주의 정신(a spirit of pragmatism)이 이 예배 속에 적용되어 그 내용이 단순화 되었다.[81] 그래서 로마교회의 예배 의식은 명확성 (clarity)과 단순성 (simplicity)을 지니게 되었다.

서방교회 예배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 중심적이며 희생적 (sacrificial)이었는데, 이 희생의 정신은 단순히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회상하는 일에 그치지 않았다. 이 희생의 정신은 그리스도의 임재와 현존 (presence)을 깨닫고, 그 거룩한 뜻 안에서 하나가 된 회중이 자신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산 제물로 바치는 생활로 이어졌다. 이런 의미에서 주의 만찬의 의식 중 축성과 봉헌, 고난의 기억과 교제는 희생제사 및 화목제사로서의 중요한 의미를 나타냈다. 서방교회의 예배 의식 중 가장 단순한 의식은 그레고리 예전인데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82]

* 말씀의 예전

입당송

키리에 (Kyrie)

사제의 인사

기도문 (collects)

예언서 혹은 구약성서 낭독

교 창 (antiphonal)

서신낭독

층계송 (gradual)

* 다락방 예전

봉 헌 (offertory)

봉성체 (sursum corda)

봉헌기도 (prayer of consecration)

서문경 (preface)

성찬서식

삼성송 (sanctus)

축성기도

평화의 입맞춤

81 Ibid, 84.

82 Ibid, 97.

복음서 낭독	분 병 (fraction)	
초신자 해산	주기도	
	영성체 후 기도	부제에 의한 해산

(3) 종교개혁 시대의 예배

종교개혁은 단순히 예전(liturgy)의 불만과 시정을 위하여 발생된 것은 아니다. 개혁자들은 그리스도의 자리에 교황이라는 한 인간이 앉아서 믿음보다는 제도 속에서 비 성서적인 예배 및 행위들에 대해서 개혁의 필요성을 느꼈던 것이다. 그들은 중세교회 가운데 강조되어온 마리아를 비롯한 성자숭배를 비롯하여 회중이 알아듣지 못하는 라틴어 집전 등은 시급히 시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예전에의 새로운 개혁 운동은 크게 세 부류의 경향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83]

첫째, 루터를 중심으로 한 개혁의 기수들이 취한 경향이다. 이들은 지금껏 전래 되어온 예배 의식을 개혁할 생각을 좀처럼 하지 않는 지극히 보수적인 사고를 가진 세력이다. 루터는 가톨릭의 라틴어 미사에서 독일어 사용과 함께 독일어 찬송을 부르는 의식의 변화를 단순히 원했을 뿐이었다. 이러한 그들의 예배에 대한 보수적 성향은 오늘날 루터 교회의 예배 현장에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의 예배 의식은 성공회와 함께 구교의 의식에서 전혀 거리감을 느낄 수 없도록 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둘째, 쯔빙글리, 칼빈, 낙스와 같은 인물들을 중심으로 한 개혁교회의 탄생을 가져온 선구자들의 예배에 대한 관심이다. 이들은 앞에서 언급한 루터 계열의 개혁자들과는 달리 예전에 대한 대폭적인 수정을 가하고 있다. 이들은 로마 가톨릭의 우상 숭배적이며 미신적인 경향에 대해서 “마술사들의 주술(magical mumbling)"이라고 혹평을 가하면서 성서에 입각한 초기교회 예배형태의 복귀를 강하게 부르짖었다.

셋째, 급진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던 재세례파를 비롯하여 퀘이커교도들의 모임 같은 자유 교회를 들 수 있다. 이들은 지금껏 있었던 예배의 형태를 거의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재세례파의 경우 침례만을 정당화하고 또 성직자의 구별을 인정

[83]Hans Kung, *교회*, 정지련 역 (서울: 한들출판사, 2007), 129.

하지 않은 채 회중 중심의 말씀 전파와 그러한 형식의 예배를 강조했다. 그들은 교회 안에는 두 의식, 즉 침례와 주님의 만찬만이 있을 뿐이라는 주장을 펴기에 이르렀다.[84] 그런데 여기서 개혁가들은 예배 의식에 관한 많은 변화와 차이점이 있었다. 하지만 이들의 활동과 주장을 종합해 보면, 루터를 중심으로 한 개혁파들은 예배 의식의 전승을 철저히 지키면서 모국어의 활용 속에 회중의 이해와 참여를 시도해 갔고, 쯔빙글리와 칼빈은 성상 파괴와 함께 성서의 초대 교회 적인 형태의 예배의식 회복을 철저히 시행하였다. 이와 같은 개혁가들의 노력은 루터 파의 극단적인 보수주의 계열을 제외하고는 그들이 원하는 초대 교회의 예배형식을 되찾는 데 대단한 접근을 했다. 그들은 기독교 예배란 말씀중심의 예배여야 한다는 새로운 확신과 함께 14세기와 15세기에 극치를 이룬 로마교회 예전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이는 예배의 내용과 형태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실로 거대한 개혁이었다.[85]

(4) 종교개혁 이후 근대 청교도 예배

종교개혁 이후에 근대에 이르기까지 개신교회에 가장 큰 예배적 전통과 특징은 청교도예배에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한국교회는 특히 주로 미국 선교사에의 의하여 전수된 청교도 신앙을 초대기독교신앙의 모델로 보고 지향해 오고 있기에 그들의 예배를 살펴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86]

17세기 초반부터 미국으로 이주하기 시작한 유럽의 기독교도들은 종교개혁의 이론과 그 실천에 대단한 민감성을 보이면서 교회의 자유로운 형태와 예배 의식의 개혁을 인도해 나아갔다. 특별히 1800년경부터 발생했던 대각성 부흥운동[87]으로 말미암아 복음주의적 신학의 태동과 함께 탈의식의 예배가 각광을 받게 되었다. 미국의 감리교와 루터교회뿐 아니라 장로교 역시 그들의 예배의식을 탈의식적이며 복음주의적인 입장에 두고, 말씀 위주의 예배로 가두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84정장복, *예배학 개론* (서울: 종로서적, 1997), 98.

85Ibid., 46.

86김세광, *예배의 역사와 그 발전* (서울: 장신논단 제6집, 1998), 138.

87유종선, *한 권으로 보는 미국사 100장면* (서울: 가람기획, 2001), 16.

특성과 함께 예배의 모습을 갖추어 가는 자유로운 형태를 취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19세기 미국의 제2차 대각성 부흥운동과 서부개척기의 인구이동에 따른 집회 중심의 예배(이른바 프런티어 예배)에서 더욱 보편화되어 갔다. 이 프런티어 예배는 당시의 천막집회에서 유행하던 예배형식으로서 복음 전도를 주목적으로 하여 고안된 일종의 전도집회 형식이었다고 한다.[88] 당시 천막집회는 크게 3부로 구성되어 있었다. 1부는 한 시간씩 계속되는 열정적인 찬송, 2부는 '구원이냐 멸망이냐'의 2분법 도식으로 회심을 촉구하는 강력한 복음전도, 설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단을 촉구하는 초청의 순서가 그것이다.[89] 중요한 점은 이러한 전도집회가 당시의 주일예배까지도 바꿔놓았다는 사실이다. 1905년에 출판된 감리교 찬송가에 나타난 "공예배순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져 있다. 찬송, 사도신경, 기도, 주님의 기도, 찬송, 구약봉독, 영광송, 신약봉독, 광고, 헌금, 찬송, 설교, 초청이다. 프런티어 예배는 당시 북미 대륙에 광범위하게 퍼졌으며 교파의 구분 없이 크게 유행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프런티어 예배는 그대로 초기 선교사들에 의해 그대로 한국에 직수입되었다. 초기 선교사들이 미국과 캐나다, 스코틀랜드 등 여러 나라의 여러 교단 출신들이 섞여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국 교회에 가르쳤던 예배의 전통은 이 프런티어 예배였으므로 한국으로 도입된 예배형식 역시 프런티어 예배였던 것이다.

이 예배형식은 성서봉독과 설교 사이에 광고, 헌금, 찬송 등 많은 순서들이 들어가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한국교회에서 드려지고 있는 한국 교회의 예배형식과 놀랍도록 닮아있음을 알 수 있다.[90] 청교도 예배의 일반적인 모습으로는 우선 철저히 성경중심이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이런 설교중심의 예배는 강대의 중앙에 놓인 강단의 위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설교의 시간은 한 시간에서 두 시간까지 걸리기도 했는데, 그 이유는 설교에서 오늘날의 매스미디어와 시민교육의 역할도 담당했기 때문이었다.[91] 말씀의 묵상 후에 회중의 형편을 충분히

[88]조기연, *한국 교회와 예배 갱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35.

[89]Ibid., 35.

[90]Ibid., 36.

[91]Ibid., 77.

반영한 친밀하고 자연스런 즉석기도를 행했다. 검은 가운이나 높은 강단도 말씀에 대한 강조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한다. 그들의 설교의 특징은 요즘도 한국 개신교회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연속설교 형태에 구절마다 해석을 붙였다는 것이다. 다만 18세기 이전에는 설교자가 모두 즉흥적으로, 다시 말해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와 설교에 임하기를 기대했고, 18세기 초에는 설교메모에 매달리지만 않는다면 설교메모를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한다. 주기도문은 로마가톨릭이나 영국 국교회처럼 매주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기도의 모범이라고 생각했다. 교회음악에 대해서는 최초의 청교도들이 교회성가대에 대해 회중들의 찬양특권을 빼앗는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가졌던 것과는 달리 많은 개혁과 진전이 있었고 성가대들을 배출하는 음악학교들이 설립되었다. 성찬은 목사의 관심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월 1회 또는 격월로 집행되었다. 성찬받기 전에 회개와 믿음을 요구했고 앉은 자세로 받을 것을 강조했는데, 이는 무릎 꿇음의 우상 숭배적 위험을 피하는 것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종말론적 특권을 상기시키기 위함이었다고 한다.[92]

초기 청교도 예배의 형태와 순서를 보면 예배 자체는 무척 단순했지만, 내용은 길었다고 한다. 매 주일 오전 9시에 대예배를 오후2시에 오후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마다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 걸렸다. 예배시간이 긴 이유는 긴 기도 때문이었다. 개회 기도도 15분이나 길었지만 설교 후의 기도는 설교만큼 길어서 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었다. 오후 예배도 마찬가지여서, 회중들은 주일의 6시간 이상을 예배시간으로 보냈다.

그럼에도 이들은 이 예배들에서 지루함을 느끼지 않고 일주일의 삶의 절정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청교도들이 예배를 통해 성화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는 진지한 자세를 잘 보여준다. 이러한 청교도 예배는 영어 언어권 세계에서 성장해온, 장로교회, 개혁교회, 회중교회, 그리스도의 제자교회, 감리교회, 침례교회, 유니테리언 교파들에게 지배적인 형식이 되었고 한국교회의 신앙형태에 큰 영향을 미쳤다.[93]그 밖의 예전적 요소를 배제한 비예전적 예배들도 나타났다. 의식문

---

[92]김세광, *예배의 역사와 그 발전* (서울: 장신논단 제6집, 1998), 139.

[93]Ibid., 140.

을 철저히 거부하고, 심지어 성경의 직접적인 사용도 배제하였던 침례교 예배가 있고, 칼빈주의와 청교도 예배의 영향을 보다 많이 받은 회중교회(Congregation Church) 예배도 있다. 이들은 예전적인 기도를 거부하고, 웨스트민스터 예배지침서를 비성서적인 것으로 반대한다.

스코틀랜드 장로였던 알렉산더 캠벨로부터 시작된 그리스도의 교회(Church of Christ)는,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별을 철폐하고, 사도신경은 비성서적으로 보고, 믿음을 고백하면 바로 침례를 행하고, 매주일 성찬을 주장하였다. 오순절교회예배는 특별한 체험과 황홀함이 성령의 임재라고 확신하는데, 늘 성령의 은사를 구한다. 이는 회개의 체험이나 성령세례와 관계되는데, 대부분 치유를 목표로 한다. 그들의 예배의 특징은 자발성인데, 기도와 간증과 고백과 찬송에서 잘 나타난다.

종교개혁으로부터 비롯한 개혁교회의 예배는 현대로 오면서 좀더 다양해지고 풍부해진다. 20세기 초에 결성된 캐나다 연합교회(the United Church of Canada)는 이런 점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 교회는 1925년에 장로교회, 감리교회, 회중교회가 합쳐서 한 교단을 이루고, 예배의식 또한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와 감독교회, 성공회의 예배의식, 감리교와 회중교회로부터 가져왔다. 이런 예배의식의 장점은 융통성이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찬송도 생략할 수 있고, 사도신경도 필수적은 아니다. 다만 성서일과와 함께 기도문들이 제공되는데, 고전적인 기도문-크리소스톰의 예전, 성공회의 공동기도서, 칼빈의 기도 등-에서 취하여 짧게 변형시킨 것들이라 한다. 성만찬은 매월 또는 년 4회 집례된다.[94]

새로운 예배로의 개혁을 부르짖었던 개혁자들의 주장도 영국을 비롯한 유럽 일각에서는 뚜렷한 혁신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었다. 영국의 성공회나 루터 교의 영향권 아래 있는 지역에서는 예배에 있어서 사실상 큰 변화가 없다가 청교도를 중심으로 한 개혁자들의 후예들이 미국으로 이주하여 본격적인 변화와 결실을 얻게 되었다. 17세기 초반부터 미국으로 이주하기 시작한 기독교는 종교 개혁의 이론과 그 실천에 대단한 민감성을 보이고 있었다. 그들은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철저히 시행하면서 교회의 자유로운 형태와 예배의식의 개혁을 인도해 나갔다. 이런

[94]Ibid., 141.

한 모습은 “종교 개혁은 유럽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그 성숙은 미국 땅에서 이룩되었다 ”는 말을 실감하게 할 정도였다. 여기에서 웨슬리의 영향 속에 있던 감리교는 복음주의 적인 열심과 영적인 능력으로 예배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발전을 이루었다. 미국의 루터 교회도 전통적인 예배 의식을 강조하면서도 복음주의적 열정을 가지고 설교의 중요성을 잊지 않았다. 미국 장로교 역시 그들의 예배 형식을 탈 의식적이며 복음주의 적인 입장에 두고 말씀 위주의 예배를 발전 시켰다. 교단 적인 일정한 예식에 예배의 형식을 묶어 두지 않고 개체 교회(local church)의 특성과 함께 예배의 모습을 갖추어 갔던 것이다. 그리고 성직자의 문제를 비롯하여 교리의 문제, 그리고 의식에 구애를 받지 않고 자유로운 형태 속에 머물면서 오직 말씀의 선포에만 관심을 둔 회중 교회와 침례교회도 나타나게 되었다.[95]

4) 현대 교회의 예배

19세기에 들어서 선교에 대한 운동이 크게 일어났고, 미국에서는 1857년 종교개혁자들이 사용했던 예배 의식을 담은 예배 의식 서를 발간하여 예배 복고 운동(liturgical movement)이 일어났다. 이것은 1858년 독일 개혁교회의 의식의 회복을 가져왔고, 1905년, 1946년, 1972년 장로교회의 새로운 예식서가 출간되면서 개혁자들이 실행했던 의식과 초대 교회들이 갖고 있던 예배의 기본 질서를 회복하는 노력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현대 교회의 예배를 말함에 있어서 빼 놓을 수 없는 것은 1963-1965년까지 열렸던 제2차 바티칸공의회이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들의 현대 종교 개혁이라고 불리는 이 회의를 통하여 지금껏 그들의 미사가 라틴어로 국한되어 있던 것을 과감히 탈피하고 미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모국어로 대체 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결의는 구교의 미사에 대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게 되었다.[96] 구교의 이러한 움직임은 개신교에까지 예배의 참 의미 발굴에 촉진제 역할을 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예배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새삼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예배 복고 운동으로까지 발전을 가져오게 한다. 개신교는 각 교회마

---

[95]Jamews F. White, *예배의 역사,* 정장복 역 (서울: 쿰란 출판사, 1997), 207.

[96]김병삼, *열린예배? 현대예배!* (서울: 도서출판 프리셉트, 2000), 147.

다 예배의식을 돌아보게 되고 예배당 안의 구조를 살피며 성직자의 역할에 대한 관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새로운 각도에서 뒤돌아보게 되었다. 예배당 안의 설교단과 제단의 위치가 변화를 가져오면서 성찬 상을 설치하고 십자가를 단 위에 세우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잊고 있었던 신앙의 상징들도 새로 만들어 교회 안에 부착시키는 일들이 조심스럽게 진행되었다. 그리고 성만찬의 집례에서도 더욱 진지한 자세를 취하게 되었으며 그 회수도 늘려나가기 시작했다.[97] 예배 의식에서도 칼빈과 같은 개혁자들이 주장했던 예배의 부름, 죄의 고백, 용서의 선언과 같은 순서를 넣어 훨씬 다양한 의식을 갖추게 되었다. 여기에 수반하여 목사의 역할도 예배의식의 집례 자로서의 기능을 중요시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복장까지도 개혁 당시처럼 성직자 셔츠를 입기도 하고, 강단에서의 가운이나 교회력에 따른 스톨의 착용 등을 활발히 하게 되었다.[98]

예배의 예전을 되찾으려는 현대 교회들의 경향은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존엄성을 인식시켜 주었으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의 의미 속에 구체화된 의식의 회복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현대 교회의 예배의 변화는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개혁교회 속에 확산되어 가면서 단순히 “듣는” 예배만이 아니라 “드리는” 예배도 겸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깨닫고 이를 힘써 추구하기에 이르렀다.

(1) 가톨릭교회 예배

가톨릭교회의 예배는 앞에서 서방교회의 예배순서를 다룰 때 이미 언급한 바가 있다. 수세기동안 아무런 변화 없이 계속 이어져 오던 가톨릭교회의 예배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계기로 가톨릭교회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예배의 영역에서 혁신의 커다란 문을 열어 놓았다. 이 공의회 이후 예전신학이 재언급 되었고,[99] 예배를 교회 생활의 중심에 두려는 노력을 했다. 예배에 관한 이해에 있어서 “희생의 신비”의 형식으로 규명되어, 성찬에 초점을 두게 된다. 또 한 설

[97]Gallsoway. Dale E, *20/20. 비젼.* 송영조 역 (서울: 서울성경학교 출판부, 1994), 137.

[98]Jamews F. White, *예배의 역사.* 정장복 역 (서울: 쿰란 출판사, 1997), 209.

[99]조계광, *참된 예배를 회복하라*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2), 136.

교의 회복과 자국어 언어의 사용이 도입되었다.[100] 현행의 예배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과 지침에 따라 개정된 새 로마 미사 경본을 토대로 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정에 도달하는 성서적 계시의 전망에서, 계시된 예배의 독창성은 예배의 형태에서가 아니라 예배의 내용에서 찾아진다. 그러나, 계시된 종교는 다른 종교들의 표현 양식과 형태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초월자에 대한 탐구 속에서 인류가 얻어낸 결과들을 받아들이고 그 경험을 자신의 것에 합한다. 이런 의미로, 인류의 종교적 역사에서 계시된 예배 이전 단계,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에게서 그 정점에 도달하게끔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역동성의 단계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첫째, 예배의 공동체적 차원은 우선 사회, 정치 그리고 종교의 공생관계에서 드러난다. 백성은 주님께 속해있으며, 계약을 지킬 의무가 있다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다(참조. 출애굽 19, 5-6; 신명 6, 4-9; 시편 33, 12). 축제, 예절 그리고 예배의 모든 행위들은 하느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현존 속에서 살아가겠다는 백성의 제안들을 드러내도록 방향잡고 있다.

둘째, 예배의 내적 차원은 봉헌이나 희생제사 같은 예절들을 제외시키는 것을 의미하거나, 영적 예배라고 표현되는 것들이 불가능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적 정결의 필요성과 계약에 충실할 필요성은 성서에서 계속 언급되고 있다. 예언자들은 예배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이런 요청들을 계속 주장한다(참조. 1사무 15, 22; 호세 6, 6; 미가 6, 8; 예레 7, 22-23). 예배는 관대하고 올바른 영혼(참조. 집회 35, 1-10), 즉 회개하는 마음(참조. 시편 40; 시편 50)의 봉헌으로 행해지는 것이다. 유배 이후에 종교 생활의 영성화(참조. 다니 3, 29-41)가 주를 이루게 된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예배는, 또한 가난하고 억압받는 이들과의 연대성과 사회 정의와 연결된다(참조. 신명 10, 12-13; 이사 29, 13; 58, 6-11: 아모 5, 21-24).

셋째, 예배의 종말론적 차원은 기념적 차원과 긴밀하게 연결된다. 과거의 모든 사건들은 주님께서 항상 그분의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축제에

---

[100]Richard J. Foster, *영적 훈련과 성장,* 권달천, 황을호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9), 89.

서 그리고 예절에서 그것들은 앞으로의 계속적인 성취에 대한 보증으로 기억된다. 성서를 봉독하는 것과 구원 사건들을 열거하는 것은(참조. 시편 78; 80; 105; 106 등), 구세주 하느님(참조. 출애굽 3, 7-10; 20, 1), 새로운 탈출(참조. 이사 43, 16-21; 48, 20-21) 그리고 인간의 양심에 새겨진 새로운 법(참조. 예레 31, 31-34; 에제 36, 17-32)에 대한 경험을 강하게 하였다. 신약성서의 예배 : 앞에서 살펴본 구약성서의 예배에 대한 관점들은 신약에서 실재적인 연속성을 가진다.7) 이러한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제의적 규정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는 결정적이다(참조. 마태 5, 17).

이후에 그분의 모든 삶은 성서의 빛으로 제자들의 공동체로부터 해석되었다(참조. 루가 24, 27.44-45). 첫째, 예배와 예배의 모든 표현의 토대는 이제 참된 예배의 '성전'이신 예수 그 자체이시다(참조. 요한 2, 19-22). 사도들의 설교는 그분에게 성취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선포한다(참조. 사도 1, 4; 2, 33.38-39; 갈라 3, 14). 하느님의 선물은 마음의 회개와 신앙에 연결되어, 신적 거룩함을 본받는 삶을 영위하게 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같이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마태 5, 48; 참조. 1베드 1, 15-16). 사실 이 선물들은 성화시키고 거룩하게 할 능력이 전혀 없던 제사들을 대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빠스카 희생제사의 열매이다(참조. 히브 9, 13). 세례(참조. 마르 16, 16: 로마 6, 4-10), 성체(참조. 1고린 11, 23-26; 사도 2, 42.46) 그리고 그 밖의 성사들은 이 희생제사의 구원능력을 가지고 있다.[101]

둘째, 새 예배 또한 사회적이고 공동체적이다. 이전에 '왕다운 사제요 거룩한 겨레'(1베드 2, 9; 참조. 묵시 1, 6: 5, 10)로 모였던 백성들은 이제 성령 안에서 하나의 형제로서 모이게 된다(참조. 사도 2, 42-45; 4, 32-35 등).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참조. 1 고린 1, 2), 전례회중으로 모이는(참조. 1고린 11, 18.20; 14, 28) 이들 공동체는 "교회"(참조. 사도 5, 11; 신명 4, 10), "주님의 교회"(사도 20, 28; 1 고린 1, 2), "그리스도의 교회"(로마 16, 16)등으로 불린다.

셋째, 새 예배는 이제 더욱 큰 이유로 내적이고 영성적이다. 새 예배는 성령의 활동으로 백성들 속에서 성장하지만, 무엇보다도 '성령과 진리' 안에서의 예배

[101] 조계광, *참된 예배를 회복하라*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2), 69.

이다. 예수와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참조. 요한 4, 7-26)는 예배에 대한 신약성서의 가르침을 압축한다. 예배 장소에 대한 논란(20절)은 하느님 자신이 어떻게 경배되어지기를 바라시는 지를(22절), 다시 말해서, 새로운 성전이신 부활한 예수 자신 속에서 경배되어지기를 바라시는 지를 지적하는 예수님에 의해 반박되었다(참조. 요한 2, 21-22; 묵시 21, 22).8) 요약하면, '그리스도교 예배는 신자들과 공동체가 그리스도에 대해 표현하는 존재론적 연관과 함께, 자신의 삶을 신앙과 사랑 속에서 아버지께 합당한 영적 예배가 되도록 성령의 힘으로 변화를 이루는 내적이고 외적인 행위이다'라고 정의된다.9) 예배의 세속화에 대한 비판은, 예배가 사람이 된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근원적인 성성에 연결되어 있음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사인 교회에 연결되어 있기에 사그라지고 만다.

(2) 개신교회의 예배

400년 전 종교개혁가들은 종교개혁을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개혁의 내용 가운데서 예배의 개혁을 가장 중심적인 것으로 간주하였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천주교의 예배는 성직자들만의 예배였고, 회중들은 단지 구경꾼에 불과하였기 때문이었다. 예배는 형식화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라틴어로 진행되는 예배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예배는 회중들에게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했고,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예배는 드려지지 못했다. 그래서 개혁가들은 많은 의식과 예전으로 이루어진 로마 천주교의 예배를 개혁하고자 하였고, 특별히 칼빈 같은 이는 초대교회의 예배로 돌아가기를 원했다.[102]

이런 개혁교회의 예배 전통을 이어받은 많은 개신교회는 그 동안 예배가 창조적이고 신선한 것이 되게 하려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아마 열린예배라고 하는 것도 그 노력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그런데 이 열린예배 혹은 구도자의 예배라고 불리는 예배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는 것 같다. 열린예배가 전통적인 예배의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리고 조금 어려운 표현을 하자면 그것이 예배 신학적으로 타당한 예배인가 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본 논문은 먼저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통해서 예배의 정의를 밝히고, 그 정의에 비추어 열린예배에 대한 긍정적인 면과 비판적인 면을 밝히

102김연택, *건강한 교회와 예배* (서울: 프리셉트, 2000), 141.

고자 한다. 현대의 개신교회는 수많은 예배의 범람 가운데 있다. 또한 예배의 형식도 이전의 예배 형식이 아닌 여러 형태의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다. 개신교 예배의 본질은 첫 번째로 기독교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모든 예배자들이 마음속에 확신해야 한다. 둘째, 모든 기독교 예배는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로 계속되어져야 한다. 셋째로 개신교의 예배 가운데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예배의 형태와 내용과 메시지가 성경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점이다. [103] 17세기 초반부터 미국으로 이주하기 시작한 유럽의 기독교인들은 국가와 교회의 분리를 철저히 시행하면서 교회의 자유로운 형태와 예배의식을 인도해 나갔다. 여기에 1800년경부터 발생한 대각성 부흥운동은 탈의식의 예배로 방향을 바꾸게 된다.

이 대각성 운동은 예배와 말씀을 통한 영적 각성을 불러 일으켰으며 미국과 유럽의 전반에 걸친 영적 부흥 운동이 되었다.

Franklin M. Segler는 예배의 쇠퇴원인을 네 가지로 지적하고 있다. 첫째로 의식적 예배에 대한 과장된 적개심이며, 둘째로 미국 식민지 개척자들의 원시적 환경과 문화적 무능력이며, 셋째로 부흥운동의 지나친 강조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낭만적인 초월주의였다.[104] Franklin M. Segler의 주장은 예배의 대상과 목적을 상실했으므로 생긴 예배의 쇠퇴이다. 그로 인해 미국의 기독교의 부흥에도 영향을 끼쳤다. 결국 예배의 쇠퇴는 기독교 전체의 쇠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개신교회는 1857년 예배복고운동의 시작으로 예배의식에 대한 회복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으며, 가톨릭의 제 2차 바티칸 공의회와 함께 예배 예전을 되찾으려는 경향들이 일어나게 되었다.[105] 1982년 남미에 있는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모였던 세계교회협의회의 "신앙과 직제 위원회"총회에서 채택한 "세례·성만찬·교역"이라는 소위 "리마 문서"에 있는 "리마예식서"[106] 를 통하여 예배갱신의

---

[103]정장복, *예배학 개론* (서울: 종로서적, 1997), 116.

[104]Franklin M, Segler, *예배학 원론,* 정진황 역 (서울: 요단 출판사, 1979), 98.

[105]Jamews F. White, *예배의 역사,* 정장복 역 (서울: 쿰란 출판사, 1997), 227.

[106]박근원, *오늘의 예배론* (서울: 대한기독서회, 1992) , 89.

강한 바람이 일어나게 되었다. "리마예식서"는 성서와 초대교회의 전승, 역대 교회의 유산, 그리고 오늘의 예배 신학을 충분히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정치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어느 한편에 치우치려고 하지 않았다.[107] 리마문서는 근대 에큐메니칼 운동에 있어서 최초로 합의된 문서로서 "공동합의문"이라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커다란 중요성을 갖는다. 리마문서의 가치는 그들 각 교단의 다양성이 부인된 일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의 수렴 과정에 있다.

4. 예배의 신학적 기초

기독교인으로서 예배의 현장에 임한 사람은 무엇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와 있으며 어떠한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이 여기에 서 있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못할 경우 그 예배자는 맹종의 신앙인이 되기 쉽고 그러한 자세 속에서는 깊은 의미와의 만남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배자는 예배 가운데서 생각되어져야 할 신학적인 초점들에 대하여 전체적인 이해가 필연적으로 있어야 한다. 특히, 전통적인 종교 의식이 사회 바탕에 계속 흐르고 있는 우리 상황에서는 예배자들이 확고한 신학적인 이해를 가지지 못할 때 유교나 불교의 예배의 연장 내지 변모된 형태가 우리의 예배에서 발생되기 쉽기 때문이다.[108] 그러므로 오늘의 예배자들은 최대한 다음의 몇 가지 신학적인 문제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필요로 한다.

1)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

예배의 대상은 성부 하나님이시다. 일반적인 종교들이 예배의 대상을 어떤 특정한 인간이나 사물에 두고 그것들을 섬기는 시례를 우리는 보아왔다. 인간의 손으로 만든 상징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절을 하면서 갖은 정성을 쏟는 모습은 우리의 주변에 아직도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이런 행위를 절대 금하고 있다.

---

[107]Ibid.. 90.

[108]정장복, *예배학 개론* (서울: 종로서적, 1994), 12.

그 이유는 이런 류(類)의 예배 대상이란 인간의 손으로 조작되어진 우상이기 때문이다. 우상이란 인위적으로 만들어 낸 신의 형상이나 개념의 표현이기 때문에 모두가 인간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되어졌을 뿐 아니라 저급한 형태를 벗어나지 못한 것들이다. 즉, 타종교들의 예배대상은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 주도적인 예배의 내용과 형식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으나, 기독교의 예배는 예배의 대상인 창조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피조물이 순종할 따름인 것이다. 그의 부르심과 은총의 계시가 창조와 구속의 역사 속에 먼저 나타났기 때문에 거기에 응답적 행위로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다.[109]

다시 말해서 인간이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시는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붙잡고 계신다. 예배 역시 마찬가지이다.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배의 주체가 되셔서 인간을 통하여 예배 받으시는 것이다. 출 30:34-38은 예배에 대한 생생한 예를 보여준다. 실제로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향이었던 이 향료는 성막 안에서만 사용되었다. 그것은 거룩해야만 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자신을 위하여 그것을 만들면 생명이 끊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요점은 여기에 하나님만을 위해 고안된 향이 있다. 이 향이 하나님의 코에 닿았을 때, 그것은 그에게 독특한 것이었다. 이것은 예배란 하나님의 코에 닿는 독특하고, 분리되고, 정화되고, 인간의 마음에서 나온 거룩한 행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예배에 대한 아름다운 묘사이다.

기독교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섬겨주신 '하나님의 일'로 보는 것이다.[110]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행위를 깨닫게 된 사람들이 예배에 나아가 그 하나님의 행위(구원)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를 찬양하는 인간의 반응과 응답이 예배이다.

이때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

---

[109]Ibid., 51.

[110]정일웅, *한국교회의 예배변화와 예전의 문제성* (서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134.

한 구원의 사역을 가리킨다. 즉 그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여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말이다. 예배는 '하나님의 일'이면서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일'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며, '하나님의 섬김'과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섬김'인 양면의 만남을 형성하는 것이다. 예배의 주도권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2) 그리스도 중심적인 예배

예배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모든 예배는 기독론적 강조점을 가진다. 이것은 기독교 예배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에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에 매우 당연한 것이다. 폴 훈 박사는 “기독교 예배는 본질적으로 기독론적이다.”[111]라고 말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 계신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인간에게 계시하시며, 인간은 또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응답한다. 그 이유는 아담 이래로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께 직접 예배드릴 수 있는 길이 막혀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우리와 동일한 신분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대속의 죽음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길을 다시 열어 놓았다. 그리하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하여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서도 하나님께 직접 예배드릴 수 있는 은총을 입게 되었다. 따라서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는 무의미 한 예배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기독교 예배의 독특한 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드린다는 점이다. 예배가 하나님께 대한 경배요, 순복이요 또한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하나님께 대해 영광을 돌리는 인간의 지고한 행위라고 볼 때, 이와 같은 영적인 일들을 가능케 하신 분이 바로 구속자 그리스도 예수이다. 그분은 무지한 인류로 하여금 예배할 대상이신 하나님을 계시해 주신 분이요, 죄인 된 인류에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예배의 길을 열어 놓으신 분이며,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할 수 있도록 교회를 통하여 예배자들을 지켜 주시는 분이다. 그와 같은 사실들을 다음과 같다.

첫째, 예배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111김의작. *예배음악* (서울: 아가페음악선교회, 1992), 116.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딤전2:5).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는 완전하신 성자 하나님이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골1:16)라고 했듯이, 그리스도는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완전하신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누리셨고(참조; 요1:1-3; 요17:24)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분은 또한 성부,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천사'들로부터 경배를 받고 계셨다(참조; 욥38:7). 그러므로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영적으로 무지한 인류에게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기에 충분하고 합당한 분이시며, 성육신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인격과 뜻을 온전히 보여 주셨다(참조; 요일14:9; 요일1:1).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요1:18). 또한 속죄자이신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예배의 대상'을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 되고 유한한 우리 인간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의 길'을 마련해 놓으셨다. 바로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벽'이 된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이다(참조; 롬3:23-25; 롬5:1-5; 엡2:14-16).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엡3:12).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이다. 그리스도는 '예배의 길'을 열어 좋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배자들이 그 길을 영원히 갈 수 있도록 예배의 파수자가 되신다.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원하신 중보자로 계시며 예배자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고(참조; 롬8:34) 변호해 주신다.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으로서 예배의 문을 열어 놓으실 절대 권세도 가지고 계시지만 완전하신 인간으로서의 삶을 사셨기에, 또한 예배자의 영적 연약함을 체험하셨기에,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히2:18)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히2:17)하실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히4:16)

예수 그리스도는 예배의 완성자이시다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히10:21,22). 예배를 지속시키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예배의 제사자요 중보자이실 뿐만 아니라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지속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

푸신다. 즉 삼위 하나님 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죄악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도와주시고 격려, 위로해 주신다.[112] 또한 죄 중에 실족하거나 낙심한 성도들을 회개의 길로 인도하사 그 죄를 대속의 은혜를 적용시켜 깨끗하게 해주사 담대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주신다.[113]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심령에 자유와 영생의 확신을 얻고 평화를 누리는 이유는 바로 성령님을 통하신 그리스도의 도우시는 은총 때문이다. 예배를 승화시키시는 그리스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히10:24).

그리스도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로 승화시켜 주신다. 즉 '진리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예배 중에 교육시키사 성도들로 하여금 더욱 거룩한 자세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인격자로 만들어 주신다. 역시 성령님을 통하여 그와 같은 은총을 베푸신다.[114] 특히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들에게 그 거룩하신 삶을 영원한 '예배의 모범'으로 남겨 놓으셨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자세와 이웃과 더불어 화목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자세를 남겨 주셨다.

현대의 교회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단면적인 예배 자세만을 비운 것은 아닌지 성찰해 봐야 한다. 즉 예배란 오로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 그러나 온전한 예배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과 나누고 화목하며 더불어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온전한 예배임을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참조; 마5:23,24; 마6:14,15). 즉 기독교의 예배는 오로지 '종교적'인 요소만으로는 부족하다. '사회성'도 수반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자의 하나님을 입술로 사랑한다는 고백만으로는 기뻐하시지 않으신다. 그 피조물인 이웃도 사랑하는 삶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 온전한 예배로 받아 주신다(참조; 히13:16; 요일3:17-20). 이와 같은 '사회적 제사'가 결여된 종교 주의적이요 형식적인 예배는 자연종교인들의 미신적 예배와 다를 것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현대의 예배자들은 교회당 내에서의 공 예배뿐만 아니라

---

[112] *히브리서* 10:34-39, 개역개정.

[113] *요한일서* 1:8-9, 개역개정.

[114] *요한복음* 14:26, 개역개정.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회에 대한 헌신, 희생, 전도를 통하여 예배를 사회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예배를 완결시키시는 그리스도는 교회를 장차 완전한 천국으로 입성시키사 예배를 완결시키실 것이다[115]

3) 성령 중심적인 예배

예배자는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시인하는 신앙을 요구받는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성자 예수를 통하여 실현시키셨고 오순절 이후부터 주님의 재림까지는 성령을 통하여 완성시키고 계시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얻는 감동과 변화와 바른 삶의 인도들은 무두가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다.[116]

예배의 진실성 여부는 얼마나 성령의 통치 아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사실에 대한 사람의 응답이요 감격을 예배라고 할 때, 그 놀라운 구원사실 한 성령으로 말미암는 감격이 없는 한 진정한 예배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배에 있어서 성령의 중요성인 것이다. [117]우리가 영적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성령에 의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한다. 성령의 인도함이 없는 모든 예배는 예배의 형식은 있으나, 그 내용은 죽은 예배에 불과하다. 따라서 성령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성령을 알아야 영적예배를 드리지 그렇지 않고서는 그 어느 형태도 영적예배라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성령이란 무엇인가? 성령에 대한용약 지금까지 우리는 성령에 관하여 설교를 통하여, 책을 통하여 수없이 가르침을 받아왔다. 그러나 일반 기독교인들은 물론이고, 목사들이나, 직분자들이나, 심지어 거듭난 형제자매들조차 성령에 대하여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성령이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삼위일체로서의 영과 같이 지극히 피상적인 것들뿐이다. 일부의 사람들은 성령을 가리켜 불과 같이 뜨겁다고도 하고, 비둘기 같이 온유하다고도 하고, 바람과 같다고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상식으로서는 성령

---

[115]*http://www.cjob.co.kr/bbs/board.php?bo_table=worship&wr_id=1630.*

[116]정장복, *예배학 개론 (*서울: 종로서적, 1994), 14.

[117]Robert Weber, *예배학,* 김지찬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4), 17.

이 설명되어질 수 없고, 또한 이러한 지식은 우리의 신앙에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거나, 혹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 성령님은 현재 어디에 어떻게 존재해 계시는가를 먼저 알아야 할 것이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아무리 기도를 하여도, 아무리 성령님을 찾으려고 하여도,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가 않는다. 따라서 성령을 하나의 영적인 것, 형이상학적인 것, 혹은 이데아 세계의 그 무엇으로 생각하고 이를 찾기를 쉽게 포기하고 만다. 이것은 성경에서 인류의 조상이 아담이라고 명백히 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기록된 성경말씀은 믿으려고 하지 않고, 애써 진화론을 믿을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에 대해서도 성경에서 명쾌한 정의를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고 이를 알기를 쉽게 포기하고 마는 경향이 있다. 성령님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먼데 있는 것도 아니고, 좀처럼 찾기 어려운 것도 아니다. 대부분의 진리가 알고 보면 지극히 단순한 논리인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님에 대해 알고 또한 깨닫고 보면 이처럼 단순하고 알기 쉬운 진리도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4) 말씀 중심의 예배

예배의 특징을 들라하면 대부분 말씀 중심이라고 이야기 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종교개혁시대의 루터와 칼빈에게서 강조되고 제시된 예배의 성격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는 우리의 말씀 중심 예배가 설교 하나에만 국한하여 생각한다면 말씀 중심 예배는 어떻게 이야기 할 수 있는가?

말씀 중심의 예배란 예배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이다.[118] 그것이 설교와 같은 직접적인 순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며 초대교회에 계속되었던 성경낭독의 순서가 재생된다면 더 풍성한 말씀 중심의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외의 모든 다른 순서들도 역시 말씀에 기초한 간접적 표현으로 보아야 할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즉, 말씀중심 예배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며,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며, 말씀 안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배요, 만남이 되는 것이다. 그 때문에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

---

[118]정일웅, 기독교 *예배학 개론* (서울: 도서출판사 솔로몬, 1996), 132.

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며, 그에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는 것을 말한다.

5) 공동체성을 가진 예배

예배는 고립된 개개인의 행위가 아니라 교회 전체의 행위이다. 교회란 본뜻이 언제나 공동성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는 공동체의 만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119] 그 이유는 예배가 경건한 개인적인 모임이 아니라 교회의 주(主)와의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공동 행위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엡 1:23; 고전 12:27)이라고 했다. 그리스도는 그 몸 된 교회의 머리(골 1:18)이며, 교회는 조직적 기구 이상의 것이다.[120]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공동체의 행위인 예배라는 신진대사를 통해 날마다 새롭게 갱신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다.(엡 4:13). 그럴 때에 예배를 드리는 세계교인들은 하나의 거룩한 공회로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교회의 본질을 이탈하지 않게 된다. 그런 점에서 교회의 예배는 신학적으로 하나의 공동체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 예배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 본, 예배의 다섯 가지 신학적인 기초는 예배를 예배답게 만드는 점이다. 예배는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 성령 중심, 말씀 중심적 이어야하고, 마지막으로 공동체성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다섯 가지를 모두 가지는 것이 바로 예배이다. 어느 한 가지가 빠져도 바른 예배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

[119]Ibid., 133.

[120]황성철, *예배학*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1998), 79.

Ⅲ. 열린예배란 무엇인가?

1. 열린예배의 어원적 의미

한국 교회에서는 열린예배의 뜻을 단순한 말 그대로 열린이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열린예배는 정신없고 예배의 형식도 무시해 버리는 예배로 예배가 아닌 하나의 콘서트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열린 것과 구하는 것이라는 두 가지의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

첫 번째로 “Open Service”로 오해하고 있다. 요즘에는 미국에서 사용하는 구도자 예배로 즉 “Seeker Service"로 열린예배를 이야기 하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자는 열린예배나 구도자 예배는 열린예배라고 명칭 되어 지며 드리는 예배와는 의미상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특히 구도자 예배에서 구도(求道)란 뜻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신앙의 깊이가 깊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것을 의미한다. 예전의 수도원에서 세상과의 거리를 두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구도자 예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121]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구도자의 갈구함이 있지만 그것을 모른다. 그러기에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구도자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구도자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기 힘들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초대된 저들이 참여한 예배가 구도자예배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122] 따라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불신자”와는 그 성격이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다. 이는 기독교적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미국적인 배경을 고려해야만 한다. 그러나 한국적 상황에서의 “Seeker"는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는 이교도들도 포함

---

[121] 박은규, *예배의 재발견* (서울: 대한 기독교 서회, 1988), 145.

[122] Richard H. Niebuhr, *그리스도와 문화,* 김재준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122.

하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적 열린예배에서 주장하고 있는 Seeker의 의미와 기독교에서 말하는 깊은 의미의 Seeker의 의미를 분리해서 다루어야 함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열린예배의 의미를 전자에서 다루는 의미로 간주하고 있다.

2. 열린예배의 예배학적 의미

열린예배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들이 좀 더 쉽게 예배의 자리에 나아올 수 있도록 배려하는 형식과 접근 방법을 택한 예배 스타일을 말한다. 즉 기존 신자들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러들여 그들이 거부감을 갖지 않는 여건에서 복음을 명료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예배이다. 즉, 복음에 낯선 사람, 복음을 알려는 사람들,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깊은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예배의 형식으로 다가가는 예배가 바로 열린예배이다.

그런데 주의 할 사항은 열린예배가 기존의 전통적인 예배를 부인하거나 대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전통적인 예배를 "닫힌 예배"라고 비난하는 것도 아니다.[123] 그러나 전통적인 예배의 형식과 분위기는 교회에 익숙한 사람들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른바 "교회문화"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 처음 발을 내딛는 사람들에게는 낯설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본인의 인내심으로 익숙해질 때까지의 과정을 잘 마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문화적 장벽" 때문에 깊은 신앙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볼 때 교회는 교회 안의 "문화적 장벽"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논의와 갈등이 있어왔다.[124] 열린예배는 교회 안의 문화적 장벽을 최소화함으로써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열려는 취지에서 생겨난 것이다. 따라서 열린예배는 기존의 예배에 대한 반발이나 대안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사람들 중

[123]김세광, *예배의 역사와 그 발전* (서울: 장신논단 제6집, 1998), 98.

[124]Anthony Giddens, *현대 사회학,* 김미숙 외 6인 역 (서울: 을유문화사, 1993), 124.

“문화적인 고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나 기독교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배려로 생겨난 것이 열린예배이다. 그러나 조심해야 할 것은 그들을 배려한다고 해서 사람이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예배는 예배이다. 그러기에 열린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다. 단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을 배려하는 방법론이 열린예배 가운데 있는 것이지 목적이 변한 것은 아니다.

3. 열린예배의 특징

열린예배에는 여러 가지 기존의 예배와 다른 특징들을 볼 수 있다. 본인은 그러한 9가지의 특징들을 다음과 같이 열거 하였다.

첫째, 사회학적 조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그들의 필요를 먼저 파악하고 예배의 많은 기능들을 첨가했다는 것이다. 음악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나 드라마나 비디오를 사용하는 것, 헌금시간을 두지 않았다는 것 등이다.[125] 열린예배는 구도자들의 나이와 그들의 직업 또는 구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것을 파악하여 그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다가가는 것이다.[126]

둘째로, 예배를 정확하고도 세밀하게 기획하는 것이다. 흔히 일주일에 한번씩 드려지는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와 같이 일정한 형식이 반복되어 지는 것이 아니다. 부활절 예배나 성탄절 예배를 준비하듯이 예배를 기획 하며 준비하는 것이다.

셋째로, 예배 중에 환희의 기쁨, 축하의 요소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기존의 예배에 기쁨과 축하의 요소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 단지 열린예배에서는 축하의 요소가 구도자예배에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다. 예배에서 환희와 기쁨의 요소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의 주요 요소이다. 그 예배의 요소를 우리가 너무 망각하고 잃어버린 것이 아닌지, 구도자예배는 이러한 환희와 축하의 요

[125]Anthony Giddens, *현대사회학,* 김미숙 외 6인 역 (서울: 을유문화사, 1993), 124.

[126]Richard J. Foster, *영적 훈련과 성장,* 권달천, 황을호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9), 113.

소를 살리고 있다.

넷째로, 음악선택을 아주 신중히 하는 것이다. 현대음악을 많이 사용하면서 영적으로 고갈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심정을 그대로 노래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곡을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도 영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한다. 처음에는 약간 느린 감성적인 곡으로 시작했다가 다음에는 빠른 템포의 곡을 부르는데, 찬양시간의 60%정도를 사용하면서 나머지 시간은 앞뒤로 약간 느린 곡들로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 벤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가사를 보여주기 위해 멀티미디어를 사용하는데 상당히 앞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스도인의 육체는 반드시 통제 아래 있어야 한다.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 아래 있어야 하는 것처럼 교회 음악에 있어서도 리듬은 멜로디(선율)의 통제 아래 있어야 한다. 강렬한 비트의 음악은 이듬 위주의 음악이므로 감각적이며, 세속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리듬은 배제하고 음악을 한다면 마치 생동감이 모자라고 질서가 없는 것 같은 음악 일 수밖에 없다. 음악의 3요소인 Melody, Harmony, Rhythm 은 기독교 음악에서 조화를 잘 이루어야 한다.[127]

다섯째로, 예배진행과 흐름에 상당히 민감하다는 것이다. 예배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순서와 순서 사이 중간 중간에 지루하지 않게 하는 요소들을 많이 가입한다. 그러므로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 위원들은 모든 예배의 순서들을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어야 한다.

여섯째, 말씀을 나누는 설교시간에 상당한 비중을 두되, 이 말씀을 접근해 나가는데 있어서 다양한 접근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드라마와 비디오인데 필요에 따라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스타일이 자꾸 변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고 약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염려할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복음에 대해서는 명료하고 그 내용이 정확하고 분명하게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단순히 드라마와 비디오가 아니라 그것도 예배에 필요한 하나의 요소이다. 또한 구도자들이 설교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윤활류의 역할을 감당하는 요소이다.

---

[127]최유만, *찬양 사역을 위한 드럼 교본* (서울: 예영 B&P, 2000), 136.

일곱째, 전체적인 분위기가 따뜻하다는 것이다. 건물은 따뜻하고 조명은 좋고 음향은 듣기에 아주 편하도록 신경을 쓰고 좌석도 편리하게 되어 있다. 실내 온도라든지 화분의 위치등도 아주 섬세하게 놓여있는 것도 발견하게 된다. 어떤 교회에 들어가면 분위기가 너무 딱딱하고 차가운 교회가 있는가하면 어떤 교회는 오랜만에 집에 들어간 것처럼 따뜻한 분위기의 교회가 있다.[128] 구도자들이 영적으로 세상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 품에 즉 영적인 집으로 다시 들어 왔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따뜻한 품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신 주님을 기억하면 좋을 것이다.

여덟째, 다양한 변화를 통해서 기대감을 갖도록 한다는 것이다. 열린예배 전체 형식에 있어서는 나름대로의 틀이 있다. 이 틀을 유지하면서도 늘 변화를 시도한다. 매번 똑 같은 것을 반복하여 준비성이 없는 것을 보이면 안 된다. 최고의 최상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홉째,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평가하고 향상시키는 것에 전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129] 그들은 열린예배를 디자인하고 실행하고 드리고 난 다음에는 늘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할 수 있을까 고민한다. 이러한 열린예배의 특징들은 기존의 예배와의 모습과는 다른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다. 그러기에 담임목회자와 당회 또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예배에 대한 생각의 패러다임의 변하를 요구하기도 한다.[130]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는 것이다. 준비 되어 지지 않는다면 준비되어진 후에 시도하는 것이 좋다. 밭을 갈지 않고 씨를 뿌릴 수는 없는 것이다. 예배를 위해 준비 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다.

4.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본 열린예배

1) 열린예배의 필요성

---

[128]Hans Kung, *교회,* 정지련 역 (서울: 한들 출판사, 2007), 101.

[129]양낙흥, *한국 기독교 사회의 역사적 책임* (서울: IVP, 1998), 115.

[130]조계광, *참된 예배를 회복하라*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2), 142.

예배는 창조주이신 절대자 하나님을 향한 경배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행동에 대한 지식을 밝히시는 것이 계시이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모든 계시에 대하여 어떤 식으로든지 반응하도록 되어있다.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무시하든지 둘 중의 하나이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받으셔야할 마땅한 영광을 마땅히 돌려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시가 부인할 수 없도록 분명히 전달되기 때문이다.[131]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깨달을 수 있는 언어와 사건으로 나타내셨기 때문이다. 특별계시라고 할 수 있는 성경도 당시의 독특한 상황 가운데 독특한 언어와 사건을 통해서 기록된 것이다. 즉 Context와 Text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인간에 대한 사랑과 용서가 계시이다.[132] 그러므로 인간은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기에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는 계시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계시는 인간이 깨달을 수 있는, 이해되고 설득될 수 있는 상태로 전달되어야 하는 것이다.[133]

이전의 예배는 소수의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의 형태였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되었다.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은혜의 사건으로 시작되어진 것이다. 성육신은 내용일 뿐만 아니라 방법도 되는 것이다. 따라서 예배에 있어서는 성육신 적인 요소가 나타나야 하며 당대의 문화는 거부될 수 없는 중요한 요소로 등장할 수밖에 없다. 배타적인 문화관으로는 성경의 계시 성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구약의 제사의식도 시대에 따라 변해 온 것을 볼 수 있다. 신·구약 중간시대의 회당중심의 예배나 사도시대의 예배의 변천은 예배가 하나님의 계시의 전달 현장으로서 변화될 수 있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흔히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주장하는 사람

131김병삼. *열린예배? 현대예배! (*서울: 도서출판 프리셉트), 2000.

132오세인, *영상매체란 무엇인가*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132.

133Richard J. Foster, *영적 훈련과 성장.* 권달천. 황을호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9), 139.

들 가운데 탈 문화적인 발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교회가 있다. 이러한 사람들이나 교회는 예배에 있어서 악기 사용을 금하거나, 시대에 역행하는 교회문화를 고집하기도 한다. 초대 교회의 조직이나 예배 형태는 변화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갓 피어난 순과 같이 계속해서 성장해야 하며 변해가야 하는 것이다. 일부 열린예배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일치된 견해는 예배가 "기획"되는 것은 인간 중심이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이다. 예배를 기획한다는 것은 예배를 모독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없다면 이 부분은 이해되어 질 수 없다. 아직 믿음이 연약한 홀로 예배드리기 힘든 그러한 이들을 위해 피조물임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피조물로서의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배려하는 것이 예배에 있어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다.[134]

반응이 없는 계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합당한 반응을 드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예배의 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기도 가운데 준비되고 기획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전통적인 예배도 그 순서에 따른 제반 사항들이 기획되지 않고 드려질 수 있는가? 오히려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합당히 반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와 기획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예배자들이 열린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배 참석자들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들의 연령은 어떠하며 그 당시 사회적 상황의 특징은 무엇이며 그들이 거하는 위치와 그들은 기독교에 대해 어떠한 반응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그들을 예배로 인도하는 기획팀들은 알고 있어야 한다.[135]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시대와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서 확연히 다른 것이 있다. 그것은 예수그리스도께서 고안하신 예배방법이다. 오늘날 성례로서 드려지는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제정하기 전에는 없던 것이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식사하는 것이었다."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함께 먹고 마심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134]오세인, *영상매체란 무엇인가*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134.

[135]양낙흥, *한국 기독교 사회의 역사적 책임* (서울: IVP, 1998), 102.

의 죽으심을 기념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오늘날 만일 식사하는 것이 예배라고 한다면 받아들일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우리는 성찬을 예배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기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성찬을 기획하셨고, 그것은 당시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선택이었다.[136]

열린예배에서 또한 중요한 것은 예배자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선입견을 없애 주어야 한다. 그들 마음속에 처음 교회에 들어오면서 수십 명의 사람과 마주치고 예배당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이런 교회는 처음인 걸, 내가 생각 하는 것과는 정반대인데 라는 잔잔한 감동을 주어야 한다. 물론 이 부분도 열린예배의 한 부분이다.

2) 열린예배의 성서적 근거

로마서 15장 9-11절, 시편 86편 9절과 67편 5,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을 잠재적인 예배자로 보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사도행전 10장 34, 35절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모습을 보면서 고백한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통해서도 그를 경건하게 경외하는 자들을 부르신다고 말하고 있다.[137] 고넬료의 모습을 보면 그는 이방인이지만 진정 하나님을 찾는 구도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진정한 구도자의 모습은 막연한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구도자는 하나님을 찾는 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영적 갈구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고넬료는 이방인으로서 최초로 세례를 받은 자였다. 복음이 이방 세계로 확산되던 초대교회 시대에 고넬료는 이방으로 구원의 복음에 동참하는 상징적인 인물로 소개 되고 있다. 그는 로마 장교라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경건한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의구원의 은총을 받게 되었다.[138]

진정한 예배의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어야 한다. 성경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개방된, 그들이 쉽게 와서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만드는 예배를 디자인하는

[136]문희곤, *예배는 콘서트가 아닙니다* (서울: 도서출판 예수전도단, 2009), 126.

[137]조계광, *참된 예배를 회복하라*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2), 163.

[138]인물강해 편찬 위원회, *성경인물강해* (대구: 서진문화, 1994), 106.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불신자나 초신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신학적인 문제를 동반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열린예배가 초신자나 불신자를 위한 집회의 명칭으로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반론도 펴고 있다. 물론 초신자나 불신자가 요한복음 4장 23-24절의 말씀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139] 그러나 불신자라 하더라도 그들은 나름대로의 신(神)개념이 있으며 그러한 개념을 열린예배를 통해 올바로 이끌어서 복음의 실체에 접근하도록 하자는 것이 바로 열린예배의 취지인 것이다. 더 나아가 열린예배의 신학적 본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열린예배를 통해 복음을 전달하는 방법적인 특징은 상황화와 문맥화를 통한 방법이다. 열린예배의 스타일은 새롭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첫째,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모든 것이 상황화 또는 문맥화의 결과이다. 히브리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어로 선포되고 기록되고 전승되었다. 따라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미를 바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인들의 문화적 전제들(Cultural presuppositions)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140]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어 또는 히브리 민족이라는 한 컨텍스트를 전제하여 오늘의 기록된 말씀을 낳게 하였다.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과 채널이 사용되었던 것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포되고 기록되고 전승되었다. 예를 들어,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아 선포할 때 청중이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사용했다. 물론 이사야가 의도한 대로 반드시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겠지만 말이다. 그러나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능한 한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이사야 바로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익숙해 있는 문화적 요인들-언어, 개념, 표현방법, 수사학, 관습, 비유 등-을 사용했다.[141] 그러나 이사야가 전하고 싶은 말의 개념이 호세아의 입에 담겨졌을 때는, 호세아 앞에 있는 사람들의 문화적 옷이 입혀진 상태로 선포되었다. 호세아는 자기 시대 사람들의 문화와 상황을 사용하여

[139]조계광, *참된 예배를 회복하라*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2), 124.

[140]문동학, *열린예배의 신학적 이해와 영성, 목회와 신학 제94권* (서울: 두란노, 1997), 51.

[141]Ibid., 52.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모든 성서 기자들이 이러한 의도성을 가지고 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상황화의 한 결과라는 것이다. 이를 일반화하면 모든 언어현상은 상황화의 과정이다.

모든 문화, 역사, 영화, 코미디와 유머 등 상황화가 아닌 것이 없다. 만약에 이러한 상황화가 없거나 약할 때, 흔히들 시대에 뒤떨어진, 표현력이 부족한 또는 말솜씨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말을 해도 능력이 없고, 말이 많아도 변화가 없는 것은 바로 이 상황화의 결핍 또는 부족 때문이다. 문화와 역사가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이다.

둘째, 성서 안에 있는 내적인 역사를 통하여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어 일어났다. 이러한 개념이 시대와 문화적 배경이 변화됨에 따라 상황화의 과정을 거친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성경에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 구원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변화됨에 따라, 즉 광야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 포로시대, 포로이후시대, 중간사 시대, 신약시대에 따라 다른 옷을 입게 된다. 또 다른 예는, 제사도 이러한 역사적 시대를 거치는 동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상황화의 과정을 거쳤다. 성경 안에서도 제사의 형태와 스타일이 변화되었다.[142] 예를 들어 레위기에서의 성전-희생제사(Temple-Sacrifice)가 중간사를 거쳐 신약시대의 회당 - 율법낭독(Synagogue-Law)으로 변화되고 이것이 교회사를 통하여 변화되고, 종교개혁을 통하여 변화되어 현재까지 이른 것은 상황화의 대표적인 예이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은 앞으로 계속 반복될 것이며, 또 계속 반복되어야 한다.[143] 이러한 제사-예배의 변화과정을 염두에 둔다면, 열린예배라고 부르는 최근 스타일의 현대화된 예배는 새로운 현상이 전혀 아니다. 오히려 적극 권장하고 적용해야 하는 것이 된다.

셋째, 열린예배의 영성은 성육신의 신학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다. 성육신은 계시와 역사의 본질이다. 하나님이 사람되심은 기독론과 구원론의 처음이요 끝이다. 말씀이 육신된 것은 상황화의 또 다른 모습이다. 육신이 되지 아니한 말씀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 육신이 없는 그리스도는 영지주의적인 현상에 불과하다.

142김영재, *교회와 예배* (서울: 합동신학교 출판부, 1995), 41.

143문동학, *열린예배의 신학적 이해와 영성, 목회와 신학 제94권* (서울: 두란노, 1997), 53.

성육신은 요한복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전체를 증거하는 진리이다. 성육신은 구원의 내용이며 동시에 구원의 방법이다. 하나님이 사람되심의 모든 것이 되는 그리스도는 복음의 본질적 진리인데 이 진리가 전달될 때도 역시 성육신적인 방법이 사용되어지는 것이 열린예배의 영성인 것이다.

커뮤니케이션의 원리 가운데 하나는 어떤 메시지든지 받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다. 복음의 커뮤니케이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받는 사람이 가장 효율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전하는 사람이 전하기 쉬운 방법이 아니고, 받는 사람이 가장 효율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성육신인 것이다. 예배에도 바로 이러한 성육신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전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함께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문화이다. 한쪽 문화에서 효율적으로 전달되는 메시지가 다른 문화에서도 똑같이 전달되는 것은 아니다.

열린예배가 미국 문화에서 효율적으로 전달되는 스타일이 한국에 그대로 복사될 때, 전달되는 메시지는 왜곡될 수도 있고 오해될 수도 있다. 따라서 복음의 메시지가 효율적으로 전달되려면 미국에서는 그 나라 문화에서 가장 적합한 스타일을 찾아야 하고 한국에서는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스타일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이다. 하나님이 사람되시는 것보다 더한 사랑은 없다. 또한 예수님은 거룩함의 극치이다. 절대자가 상대자가 되고 무한자가 유한자가 되고 거룩하신 분이 속된 몸과 옷을 입은 것은 하나님 사랑의 극치이며, 거룩하심의 절정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의 언어와 몸짓을 사용하고 영적인 어른이 영적인 아이에게 아이가 기뻐할 언어와 몸짓을 사용하여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노력은 하나님의 성육신을 몸소 실천하려는 영성인 것이다. 영성의 극치는 사랑이며, 하나님의 사랑은 성육신으로서 극적으로 표현된다.

넷째, 이런 측면에서 바울의 성육신적 전도방법을 참고해야 한다.[144]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약한 자들 등 세 종류의 대상에 따라 각기 다른 전략을 사용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

---

[144]문동학, *열린예배의 신학적 이해와 영성, 목회와 신학 제94권* (서울: 두란노, 1997), 57.

은 사람을 얻고자 함"(고전 9: 19)이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을 얻으려면' 융통성과 적응성과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다가가고자 하는 대상에 따라 다른 전략을 사용한 것이다. 이것을 선교학적인 용어로 '이문화간의 동일시'라고 말한다. 바울은 복음 전파의 방법을 한 가지로 표준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불신자들이 처해있는 그 자리에서 만나는 방법을 선택했다. 그는 이런 방법으로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된다면 기꺼이 종교적인 전통과 율법적인 기대치들을 포기하고자 했다. 미시간 주 갈보리교회의 에드 답슨 목사는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는 종교적인 전통 그 자체를 방어하고 옹호하려는 데 있으며, 또한 이렇게 서로 다른 방법들을 놓고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할 문제로 보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145]

3) 전함을 받는 자의 입장에서의 열린예배

열린예배는 구원 얻는 자들만이 드릴 수 있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결코 대신할 수 없다. 이 예배는 다만 전통적인 형태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문화적 차이가 뚜렷한 불신자 그룹에게 문화적인 거부감 없이 접근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들을 거듭난 크리스천의 공동체로 인도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며, 소그룹 모임 등을 통해 영적으로 양육하는 전체적인 사역의 첫 번째 단계일 뿐이다. 그렇다고 해서 열린예배가 예배의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젊은이들의 교회 이탈자의 수가 장년에 비해 4배에 달하고 있다. 40대 이상의 장년그룹은 비교적 전통에 쉽게 적응하는 편이지만 청소년과 청년그룹은 그들과는 판이하게 다른 문화에 젖어있기 때문이다. 젊은 사람들의 문화는 하루가 다르게 변해 가는데, 일반적인 교회들은 장년부 중심으로 수십 년 간 똑같은 예배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열린예배는 여러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한 전체적인 사역의 한가지이다. 또한 각 교회가 똑같은 형태의 열린예배를 추구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각 교회마다 처한 환경과 접근해야 할 대상들이 다르기 때문이다.[146] 그 이유는 구체적인 이유는 서론의 지역적 배경에서 다루었다.

[145]에드 답슨, *열린예배 실습보고서,* 박혜영, 김호영 역 (서울: 홍성사, 2000), 99.

[146]Eddie Gibbs, *NextChurch*, 임신희 역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0), 179.

5. 열린예배의 대상과 메시지

1) 기준 잡기와 대상 정하기

열린예배의 기획에서 기준이 없으면 대상을 잡지 못한다. 열린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의 파악이 얼마나 되었는가이다. 그래야만 대상을 기준으로 하여 프로그램을 기획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열린예배의 모든 행사 진행 방법 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누구와 이야기 할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만 무엇을 말할 것인가? 어떻게 이야기 할 것인가? 이 방법론들이 다루어 질 것이다. 이 시대는 너무나도 빠른 변화의 시대이다. 또한 사람들도 개성이 천차만별이고 그로인한 사람들의 영적 공허함을 만드는 요인도 여러 가지다. 그러기에 열린예배를 통하여 영혼을 구하는 사역에 힘을 더해 주기 위해서는 당연 그 많은 대상들을 향한 구령의 열정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열린예배에 초대 되어 질 대상들을 구체적으로 구분해 본다. 우리는 흔히 눈높이 교육이라는 말을 한다. 그것은 피교육자들의 수준에 맞추어 그들이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이기 쉬운 방법으로 가르치는 교육법을 말하는 것이다. 예배도 마찬가지이다. 열린예배를 드리기에 앞서 열린예배의 초대 대상이 누구이며 어떠한 환경에 있는 이들이 예배에 참석하는지를 아는 것이 열린예배의 세밀한 부분을 준비 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그것은 열린예배의 주제와 모든 순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147]

---

[147]조태현, *열린예배 기획 웍샵* (서울: 도서출판 예루살렘, 1998), 125.

표 - 1 ◈ 열린예배 초청 대상자들의 분류 ◈

A 계층	기독교에 대해서 막연한 호감을 가지고 있는 계층
	기독교의 복음에 대해서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계층
	기독교가 말하는 말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계층
B 계층	기독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심을 가지고 있는 계층
	기독교와 다른 종교관의 선택에서 갈등하는 계층
	기독교에 관심을 가지지만 선택을 못하는 계층
C 계층	타종교관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독교를 반대하는 계층
	기독교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계층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계층
	기독교에 대한 상처로 인해 반대하는 계층

대부분의 교회는 전도에 전력을 다한다. 그리고 열린예배로 많은 이들을 초청한다. 그러나 초청된 사람들에 대한 분류는 세분화 되지 못한 채 프로그램은 진행되어진다. 대상자들의 파악도 없이 프로그램이 먼저 만들어 진다. 결국 프로그램에 대상자들이 맞추어 져야 한다. 위의 계층을 보면 교회에서는 당연 A계층에 관심이 많은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계층보다는 열매 맺기가 쉽기 때문이다. A계층에 대한 프로그램들은 다양하게 있다. 그러나 B계층이나 C계층은 교회에서 그다지 환영 받지 못한다. 오히려 전도의 대상이지만 외면의 대상이 되어버리기도 한다. 그러나 열린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계층별 파악이 필요하다.[148] 열린예배를 기획할 때는 개교회 자신의 시점과 관점에서 정해서는 안된다. 대상자들이 열린예배에 초대 되어 왔다면 초대 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공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그들의 영혼이 주님을 만나길 갈구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윌로우크릭 교회와 새들백 교회에서 드리는 열린예배의 핵심주제는 언제나 '친숙과 친밀(Intimacy)'라고 할 수 있다. A, B, C, 그들이 열린예배에 참여 했을 때 다가가야 할 것이다. 열린예배의 스텝들은 가장 먼저 훈련 되어져야 할 부분이다.

---

[148]이성희, *미래목회 대예언* (서울: 규장문화사, 1998), 252.

2) 어떠한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

교회는 성도는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것이다. 본 논문자도 불신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들이 많다.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그러나 불신자들은 처음부터 이러한 말을 듣는다면 부담스러워 할 것이다. 그렇다고 불신자들이듣기에 좋은 윤리적인 말이나 세상적인 지혜의 말만을 하는 것은 열린예배의 본질을 잊어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열린예배에서는 아니 모든 교회에서는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쉽도록 많은 준비와 방법론 등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149] 또한 그들에게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를 먼저 생각하기 전에 저들이 무엇을 듣고 싶어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본 논문자도 지금까지 많은 사역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불신자들도 많이 만나왔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은 항상 경험 했었다.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후에 그들이 듣고 싶어 하고 그들이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을 우선시 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는 것을 경험했다. 그렇다. 그들을 데려와서 자리에 앉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우리는 계층별로 그들을 나누었다. 그렇다면 그들 계층별로 질문과 답변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열린예배의 전략이다.

3) 어떻게 전할 것인가?

예배는 모든 순서가 중요하다. 그러나 꼭 경중을 정한다면 말씀의 선포이다. 그런데 주제의 말씀들이 선포하기 전후에는 그 주제의 말씀이 그들에게 쉽게 마음에 고백이 되게 끔 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 마임, 촌극 , 드라마, 음악, 슬라이더, 무용, PPT(Power Point)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주제에 대한 불신자들의 접근을 통하여 그들 스스로가 프로그램 안에서 주제를 찾게 하는 방법도 있고 말씀을 통하여 직접 전달하는 방볍들이 있다. 예수님은 세리장과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희는 먼저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내가 너희 집에 머물리라.. 또한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물을 달라고 하셨다. 열린예배의 과정들 간에는 복음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새로운 모습인 친밀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열린예배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 갓난아이에게 딱딱한 오징어를 줄 수 없다.

---

[149]김소영, *예배와 생활*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2), 127.

당연 고기가 맛있지만 고기를 줄 수는 없다. 열린예배는 어머니의 젖과 같이 포근함이 있어야 한다. 교회의 심장은 사랑이다. 사랑이 없으면 심장은 멎어 버린다. 교회의 생명력은 사랑에서 시작되어진다.[150]

6. 열린예배의 현황과 흐름

1) 열린예배의 상황

현대의 수많은 교회들이 열린예배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졌다. 그러나 열린예배에 대한 개념조차도 모르고 있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열린예배라하며 그것을 교회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열린예배가 한국교회에 처음 소개됐을 당시 새롭고 신선하다는 이유로 많은 교회들로부터 주목을 받았고 또 이를 도입하기 위한 노력들이 여러 교회에서 이어졌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열린예배에 대한 개념이 점차 모호해졌고 현재로선 열린예배를 시도하고자 하는 흐름도 대부분 끊어진 상태다. 때문에 한국교회에 다시 열린예배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열린예배의 정확한 개념은 무엇일까.

열린예배란 바로 불신자 또는 초신자들을 위해 마련된 예배로 미국 윌로크릭 교회의 구도자예배(Seeker service)가 그 원형이라 할 수 있다. 즉 찬양이나 기도, 어려운 설교 등 초신자 또는 불신자들이 잘 적응하지 못하는 예배요소들을 제외하고 대신, 토크쇼, 연극, 영화와 같이 초신자들이 적응하기 쉬운 요소들로 구성된 예배라 할 수 있다.

한국교회에서 개념의 혼란화가 생긴 것은 바로 이 열린예배가 불신자, 초신자를 위한 예배라는 것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단지 예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나 교회성장의 한 방편으로 열린예배를 도입, 낭패를 본 교회들이 적지 않다. 이것은 열린예배가 애초에 그 대상을 불신자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배형식을 정말 변화시켜보고자 한다면 '열린예배' 대신 '현대식 예배' 또는 '멀티미디어 예배'를 도입할 것을 교회전문가들은 권하고 있다.[151] 또 만일 열린예배를 교회

150조계광, *참된 예배를 회복하라*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2), 129.

151이상훈, *문화로 엿보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문화* (서울: 대한기독서회, 2003), 64.

에 도입하려면 반드시 소그룹이나 제자훈련과 같은 새신자 양육대책이 준비돼 있어야 한다.

열린예배는 세상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초신자들을 교회와 매개시키기 위한 하나의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할뿐 예배자의 영적인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열린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들은 대부분 신앙이 성숙한 이들은 위한 예배를 따로 마련, 그것을 더욱 중요시 여기고 있다.[152] 열린예배를 계획하는 일부 교회들의 경우, 불신자와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관심은 존재하지 않고 단순히 교회성장이나 잘못된 과시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다. 이같이 열린예배에 대한 명확한 인식부족으로 열린예배가 '질이 떨어지는 예배', 혹은 '경박스런 예배'로 오해받고 있는 것이다. 지금 다시 한국교회는 열린예배를 구도자예배의 원모습으로 돌려놓아야 할 때를 맞았다.

열린예배는 세상과 교회를 이어주는 다리임을 새롭게 인식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길 기대해본다.[153] 열린예배인 구도자 예배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구도자에게 민감한 예배(Seeker Sensitive Service)로 '참여도가 높은'(High Participation) 예배이다. 이 경우는 대상의 변화에 따라 예배 자체의 성격과 스타일이 예민하게 변형된다. 이런 형식의 열린예배는 대게 구도자들을 소그룹에 소속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그 대표적인 교회가 새들백 교회의 경우이다. 이러한 열린예배는 몇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기존 교인만을 대상으로 드려지는 예배로 열린예배를 통해 교회에 정착하게 된 초신자, 전입자들이 기존의 전통적인 예배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들은 이를 거부하고 열린예배에 계속 참여하게 된다.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배가 여기에 속한다.

둘째, 구도자들만을 대상으로 드려지는 예배로 이 예배는 교회에 나가지 않는 불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예배이다.[154] 이 경우 자신의 교회에 따분함을 느낀 타

152김병삼, *열린예배? 현대예배!* (서울: 도서출판 프리셉트, 2000), 118.

153조태현, *열린예배 기획. 웍샵* (서울: 도서출판 예루살렘, 1998), 132.

154문희곤, *예배는 콘서트가 아닙니다* (서울: 도서출판 예수전도단, 2009), 102.

교회의 교인들이 방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험적인 형식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기존 예배를 드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셋째, 구도자 예배가 가미된 변형 예배로 기존 전통적인 예배가 열린예배를 통해 교회에 정착하게 된 초신자나 전입자들이 크게 증가하였을 때 기존 교인들을 위한 예배가 초신자 혹은 전입자들에게 문화적으로 적절하게 변형된 예배이다.[155] 열린예배에 익숙해진 초신자들과 전입자들이 기존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을 때 이들의 수가 기존 교인의 수보다 훨씬 더 많고, 또 갈수록 더 늘어가는 상황일 때, 기존 예배 형식에 변형을 가할 수밖에 없을 경우 나타나는 것으로 이러한 경우 오래된 기존 교인들의 불만이 적지 않으며, 교회를 떠나는 이들도 생기게 된다.

넷째, 내용은 기존예배, 스타일은 구도자 예배로 예배 형식 자체는 완전히 구도자들만을 위한 예배인데, 설교의 내용이 기존 교인들을 충분히 커버하는 예배를 말한다.[156] 예를 들면 새들백 교회의 경우 주말 예배는 그 목적과 형식이 철저하게 구도자들을 초점으로 구도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린예배에 기존 교인들이 점차적으로 많이 참여함으로 해서 구도자들과 기존교인들 사이에 현실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메시지를 준비한다. 이러한 경우 다른 교회의 기존 신자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진다.[157]새들백 교회의 예배는 다양하다. 교회는 각기 다른 구도자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2) 구도자를 위한 예배(Seeker Targeted Service)

전적인 구도자를 위한 예배로 '보여주는'(High Performance) 예배이다. 이 경우는 그 대상을 분명히 한정시키고, 철저하게 그 대상들만을 위해 제공되는 예배로서 열린예배, 기존 전통적인 예배로 분류된다. 이러한 경우 기존 전통적인 예배 역시 대상 분석을 통한 예배 갱신으로 예배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이런 종류의 열린예배의 목적은 대개 구도자들을 기존 신자들의 전통적인 예배로 이끌기 위한 전략으로 사용되고 있다.[158]

---

[155]조계광, *참된 예배를 회복하라*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2), 120.

[156]장성배, *글로벌 시대의 교회, 문화 그리고 사이버 스페이스* (서울: 성서연구사. 2001), 55.

[157]김기영, *미국 교회의 구도자 예배의 현황과 흐름. 목회와 신학 통권94호* (서울: 두란노, 1997), 101.

열린예배를 준비 할 때 대상이 도는 청중을 정하고 이들과 관련된 프로그램과 성격들을 개발하는 일은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 우리는 몇 개의 분야를 나누고 이에 따라 위원회의 작업을 나누기로 하였다. 각 분야는 주제선정, 프로그램 개발, 광고, 스텝진 선정, 그리고 예산이었다.[159] 열린예배는 전문적인 일군들이 필요하다. 최상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산도 분리되어 책정 되어야 한다. 이렇게 열린예배를 실행하며 미국 교회의 경우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변화 시켰다.

첫째, 닫힌 자세에서 열린 자세로의 변화이다. 단순히 복장이나 예배의 형식적인 분위기만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진정한 목회자의 열린 마음과 열린 지도력, 열린 목회력에서 시작되고 있다. 둘째, 닫힌 설교에서 열린 설교로의 변화이다. 구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적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설교인데, 설교에 있어 청중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법을 연구하고, 청중의 마음을 열게 하는 설교의 유형 자체도 구도자를 중심으로 민감하게 변화하였다. 셋째, 봉건 영주 적인(닫힌) 지도력에서 섬김의(열린) 지도력으로의 변화이다. 방법론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신의 목회지도력의 변형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고, 상대방의 여건의 변화보다는 우선 자신의 변화에 열중하게 되었다.[160] 넷째, 불투명한 성실성을 투명한 성실성으로의 변화이다. 열린예배의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자의 성실성과 진실성이다. 청중들에게 이것만이 인정될 때에만 지도자와 청중과의 관계는 열려 질 수 있다. 설교자의 투명성이 중요하게 되었다.[161] 다섯째, 기존 신자에 대한 관심을 불신자에게로 돌리는 변화이다.

열린예배의 지도자들은 열린예배를 실시하기 이전에 기존 교인들에게 열린예배의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동의를 받으며 사역을 시작하고 있다. 불신자 전도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인 만큼 교회의 다양한 교육, 홍보를 통해 기존 교인들에 대한 관심을 불신자들에게 돌리고 있다. 열린예배는 이러한 미국을 중심으로

---

[158]Gallsoway. Dale E, *20/20. 비젼.* 송영조 역 (서울: 서울성경학교 출판부, 1994), 113.

[159]Ed Dobson, *열린예배 실습 보고서,* 박혜영, 김호영 역 (서울: 홍성사, 1998), 166.

[160]장성배, *글로벌 시대의 교회, 문화 그리고 사이버 스페이스* (서울: 성서연구사. 2001), 104.

[161]오세인, *영상매체란 무엇인가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101.

이러한 흐름으로 발전하고 있고, 한국 교회 역시 이를 점차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상황이다.[162]

3) 열린예배의 문제점

예배형식의 변화를 추구하는 동기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최근의 양적 성장 둔화 현상을 극복하고 신세대들에게 신앙적 관심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예배 변화를 모색하는 것은 권장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그 일반적 흐름은 예배의 대상에 대한 관심에서가 아니라 예배드리는 자들을 위한 배려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보다 참되게 섬기고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바른 예배'에 대한 동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회중'에게 더 흥미로운 예배를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163]

다음으로 형식의 변화가 내용을 변질 시킬 수 있다. 형식의 변화 속에서 그것이 또 하나의 형태로 고정화 될 때 그 의미가 변질 되어 버리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전함 받는 자의 입장에 따르는 형식의 변화는 많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각각의 교회마다 열린예배를 도입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젊은이들을 위한 새로운 예배 프로그램을 찾는 사람들과 기존의 전통적인 것을 고수하려는 사람들 사이에 의견의 일치를 찾지 못하고 많은 찬·반의 논란이 있다.[164] 사람들은 열린예배를 시도한 목회자의 열정을 칭찬하고, 전통적인 교회의 예배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으로 적절치 못한 현상과 현대인들에게 비효과적인 접근으로 인해 교회 안의 젊은이들이 떠나게 되는 이런 반작용에 있어서 새로운 대안인 열린예배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반면, 열린예배는 비지니스적인 목적으로 미끼를 사용하는 낡은 수법이라든지, 종교적인 코미디 연속극이라든지, 보여주기 위한 예배에 모이는 청중들의 주 관심은 예배에 있을 수 없다 라고 하며 반대를 하고 있다.[165]

162Anthony Giddens, *현대사회학*, 김미숙 외 6인 역 (서울: 을유문화사, 1993), 89.

163Don Tapscott, *N세대의 무서운 아이들*, 허운나 역 (경기 안양: 도서풀판 물푸레, 2000), 78.

164Anthony Giddens, *현대사회학*, 김미숙 외 6인 역 (서울: 을유문화사, 1993), 132.

165Eugene H. Peterson, *묵상하는 목회자*, 차성구 역 (서울: 좋은씨앗, 2008), 56.

셀처치가 교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에도 많은 교회들은 이를 반대하기도 했으며 기존의 성도들은 셀에 대해 거부 하며 교회를 떠나기도 했다. 그로인해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셀처치로 인해 성공한 교회들의 예를 보면 토양 작업을 충분히 한 후에 셀을 도입하였다. 마찬가지로 열린예배를 기존의 예배에 대처 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열린예배는 구도자를 위한 예배이기에 구도자들을 위한 예배로 분류 되어야 할 것이다.[166]

사실상 이 시대에 있어서 새로운 예배 프로그램은 절실히 필요하다. 그 대안으로 제시된 열린예배도 사실상은 많은 약점들과 문제점들을 포함하고 있다.[167] 그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첫째, 열린예배는 인간의 즐거움을 위한 예배는 아닌가? 현재 개신교의 상황에서 수적 성장 둔화 현상을 극복하고 신세대들에게 신앙적 관심을 고양시킨다는 관점에서 예배 변화를 모색하는 것은 권장할 만한 일이나 '하나님'보다 예배의 참여자인 회중들에게 어떻게 더 흥미로운 것을 보여줄 것(show)인가에 관심이 지대하다. 즉 회중들은 예배를 '드린다', '참여한다'라는 생각보다는 예배를 '본다'는 의식이 강하게 된다. 결국 예배 형식의 변화라는 것이 자칫 보는 즐거움을 더하는 '우리의 방식'의 예배로 변질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즉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재미있게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새로운 세대들에게 지루하지 않은 예배 형식을 개발 할 수 있을까? 하는 회중 지향적 동기는 예배 형식을 '여흥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예배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즐거움을 구하게 될 위험이 없지 않다.[168] 둘째, 형식의 변화가 내용을 변질시킬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 물론 형식 그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절대적일 수 없다. 내용의 변질만 없다면 형식을 특별하게 고정시킬 필요는 없다.

그러나 동시에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형식 그 자체가 때로는 내용을 변질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예배에 있어서 형식이 내용을 대신할 수 있다

166Hans Kung, *교회*, 정지련 역 (서울: 한들 출판사, 2007), 230.

167이상규, 김요셉, *구도자 예배가 가진 약점, 목회와 신학 통권94호* (서울: 두란노, 1997), 115.

168Richard H. Niebuhr, *그리스도와 문화*, 김재준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121.

는 위험이 있다. 그 변질이란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보는 예배, 보여주는 예배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169] 셋째, 젊은이들 가운데는 전통적인 예배를 추구하는 현상도 나타난다. 미국의 경우 열린예배 즉 예배 형식의 파괴라고 볼 수 있는 변화들이 많이 있지만 동시에 젊은이들 사이에서 전통적인 예배를 추구하는 경향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170]

즉 80-90년대를 거치면서 열린예배 쪽으로 가는 교회들이 새롭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지만은 일부 몇몇의 교회들은 미국사회에서 일어난 복고풍의 영향으로 복고적 형태의 예배를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열린예배가 이 시대에 모든 젊은이들이 추구하는 형태가 아니라는 사실에서 그리고 열린예배 형식과는 반대 방향으로 간다고 할 수 있는 전통적인 예배를 선호하는 것도 있다는 점에서 열린예배를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171] 넷째, 미국형 열린예배가 한국 정서에 저항감을 줄 수도 있다. 미국교회는 다양한 예배 형식들을 경험해 왔다. 미국 교회 안에는 다양한 형식의 예배 형식이 상존 하고 있고, 개별성을 중요시하는 미국인의 정서로는 이런 특별한 예배 형식이 오히려 호감을 갖게 한다. 반면에 한국교회는 장로교나 침례교나 감리교나 예배 형식에 큰 차이가 없다. 지금까지 거의 획일적인 형식의 예배를 경험해 왔고, 또한 한국인의 의식 가운데 집단으로부터 소외되지 않으려는 정서 때문에 다양성을 중요시하는 미국의 경우와는 조금 다르다. 비록 젊은 세대들이 전통적인 예배에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한국적인 정서에서 미국에서 시행되는 것을 그대로 시행한다는 것은, 한국적 정서를 고려해 볼 때 저항감이 저변에 깔려 있기 쉽다.

그러므로 최소한 한국에 있어서 열린예배는 한국인의 정서와 문화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172] 다섯째, 열린예배, 예배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요즘 열린예배, 구도자 예배에 대해서 왜 새로운 호기심

---

[169]Richard J. Foster, *영적 훈련과 성장,* 권달천, 황을호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9), 101.

[170]Gary Smalley, John Trend, *사랑언어 그림언어,* 서원교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96), 131.

[171]장성배, *글로벌 시대의 교회, 문화 그리고 사이버 스페이스* (서울: 성서연구사. 2001), 141.

[172]Ed Dobson, *Seeker Senstive Service, 열린예배 실습 보고서,* 박혜영, 김호영 역 (서울: 홍성사, 1998), 45.

을 갖게 되었는가? 그것은 지금까지의 우리들의 예배에서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 예배의 깊은 원래적 의미들을 맛보고 있다면 다른 새로운 예배에 대한 호기심은 별로 없을 것이다. 문제는 오늘날 예배가 '의미를 상실한 형식'에 있다.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의미를 상실했다는데 문제가 있다.

따라서 열린예배가 식상해진 예배 스타일을 바꾸기 위한 새로운 형식으로 이해된다면 위험천만한 일이다. 적어도 열린예배는 우리가 잃어가고 있는 예배의 의미를 회복하는데 기여한다는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173] 여섯째, 열린예배 과연 '복음화'를 노리는가? 열린예배는 그 출발이 불신자들을 향한 복음 전도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복음 전도 적인 마인드가 부족하다. 한국 교회의 경우 성장에 있어서 복음 전도보다는 교회 밖의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 회원을 만드는 '교인화'성향이 다분했다. 그냥 불신자들을 교회 안으로만 들여놓으면 전도라고 생각했고, 복음 전파라고 생각했다. 이런 상황에서 열린예배를 도입하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더 많이 모아들이겠다고 의도한다면 예배에 적지 않은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174] 그리고 열린예배가 세속 문화를 단순히 기독교로 세례 시키자는 정도나 대중문화를 기독교화 시키자는 쪽으로 나갈 소지가 많다. 현대인들에게 맞는 예배를 드린다는 취지로 교회의 예배를 대중들에게 익숙한 것이 되게 하려는 '대중화'현상이 그것이다. 열린예배는 기독교 문화로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한 것으로의 예배로 자리해야 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예배의 초점 이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열린예배는 신앙에 기초하기보다는 인기에 부합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제공하려는 시장 개념을 따르는 실수를 범하게 될 우려가 있다.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태도는 자연히 유행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예배가 유행에 따른 다면 얼마나 위험하겠는가? 예배는 우리 모두 참여해 자신을 드리는 것이다.[175] 오직 우리의 예배를 관람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

---

[173]Anthony Giddens, *현대사회학*, 김미숙 외 6인 역 (서울: 을유문화사, 1993), 104.

[174]양낙흥, *한국 기독교 사회의 역사적 책임* (서울: IVP, 1998), 142.

[175]James F. White, *예배의 역사*: 정장복 역 (서울: 쿰란 출판사, 1997), 151.

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위치에 사람이 서서 바라 볼 수는 없다. 예배의 성공은 하나님께 얼마나 맞추어지느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열린예배는 예배 참석자의 취향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하나님보다는 예배에 오는 사람들의 반응에 더 관심이 많다.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의 앞뒤가 바뀔 우려가 있는 것이다.[176]

4) 열린예배에서 주의할 점

첫째, 우리교회에서는 어떠한가 즉 자신이 섬기는 교회의 정서를 고려해야 한다. 미국교회는 한국교회와는 다르게 다양한 예배형식들을 경험해 왔다. 개별성을 중요시하는 미국인의 정서로는 이런 특별난 예배형식들이 오히려 호감이 가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인의 의식 가운데 집단으로부터 소외되지 않으려는 정서도 한몫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양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국인의 의식과는 사뭇 다른 것이다.

둘째, 열린예배는 그 출발이 불신자들을 향한 복음전도에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복음전도적인 마인드가 매우 부족하다. 대체로 불신자들을 교회에 데려오는 것에 열심이었고, 이것이 전도라고 생각했다. 이런 전도에 대한 의식 속에서 열린예배를 도입, 교회밖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더 많이 모아들이겠다고 의도한다면 예배에 적지 않은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다. 열린예배를 드리기 이전에 교회가 '복음화' 마인드로 충분히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177]

셋째, 열린예배는 참석자들의 취향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하나님보다는 예배에 오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할까에 더 관심이 많다. 이것은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앞뒤로 바뀐 것에 해당한다. 열린예배는 예배의 출발 자체가 사람을 충분히 고려하려는 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 보다 명확히 해결되어야 한다.[178]

넷째, 열린예배의 대상이 주로 젊은 사람들, 현대 음악에 익숙한 사람들이다.

---

[176]Ed Dobson, *열린예배 실습 보고서,* 박혜영, 김호영 역 (서울: 홍성사, 1998), 78.

[176]Ibid., 85.

[177]Graham kendrik, *경배,* 김성웅 역 (서울: 두란노, 1993), 73.

그런데 실제 불신자 가운데는 젊은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젊은 층과 그 나머지 연령층의 불신자들을 비교한다면 후자의 인구가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젊은이들 이외의 사람들에게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예배여야 한다. 한국교회가 추구해야 할 구도자예배 형식은 유교와 불교 등의 종교적 배경과 한국인의 특질 등을 고려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열린예배로 놀랍게 부흥한 윌로우크릭 교회의 '철학'보다는 '성공'을 도입하려는데 있다. 원리를 배우면 적용은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으며, 그러면서도 핵심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다. 한국 교회의 특징 중 하나는 무언가 좋다고 하면 벌떼들처럼 달려들다가 쉽게 사그라져 버린다. 좋다고 하는 그 무엇은 짧은 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 안에 준비 되어진 시간들과 노력들이 있었기에 좋은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열린예배도 많은 시간과 노력과 기도가 없이는 구도자들을 살리는 열린예배로서 설 수 없다는 것이다.[179]

---

[179]Franklin M, Segler, *Christian Worship, 예배학 원론,* 정진황 역 (서울: 요단 출판사, 1979), 152.

Ⅳ. 예배와 회심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

1. 심리학과 믿음의 관계

마음은 말 그대로 심리학에 속하며, 영은 신학에 속한다. 기독교 신앙은 마음이 아니라 영의 영역에 속한다. 많은 이들이 흔한 말로 믿음의 확신을 강조하는데, 그것은 심리학의 영역이다. 이런 확신은 인간학적 훈련으로 얼마든지 도달 가능한 심리적 상태이다. 예컨대 피라미드 판매회사가 조직원들에게 "나는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게 하는 수많은 방법론들이 바로 그런 심리학적 훈련이다.

사이비 이단 교주들의 가르침을 맹신하는 이들의 심리상태도 이와 비슷하다. 그들은 늪에 빠지듯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심리에 의존해서 교주의 가르침을 확신할 뿐이다. 정통교회도 역시 이런 심리학에 의존하는 행태를 보일 때가 적지 않다. 여기서는 그것에 관해서 자세하게 언급할 여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다만 이 목사의 진술에 기대서 한마디만 한다면 마음을 다스리는 방식으로는 아무 것도 얻을 게 없다는 사실을 오늘 교회 지도자들이 기억해야 한다.

일시적으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렇게 해서 얻은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연기처럼 사라진다. 결국 기독교 영성은 자신의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에 철저하게 의존하는데서만 가능한 삶의 태도이다. 그렇다면 예배는 어떠한가? 그렇다 많은 목회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심리를 이용하여 설교를 하고 심리를 이용하여 목회를 하고 있다. 영적인 부분보다 심리학적 부분을 따르는 모습들을 통하여 진정한 회복이 없는 것을 보게 된다.

일반적으로 많은 기독교인들은 회심을 구원과 관련된 중요한 종교적 경험으로 생각해 오고 있으며, 단 일회적인 신비한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다. 개인을 변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이 회심 경험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하나님만이 회심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절대적이며 주도적인 권한을 지닌다는 것을

기독교인들은 또한 의심의 여지없이 받아들이고 있다.[180]

그러나 이와 동시에, 회심의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인간의 내재적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는다. 즉,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이 인간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처럼, 회심도 하나님의 주권적 활동으로서 생겨나는 종교적 경험임은 자명하나, 회심의 과정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상호연계성이라는 내재적 가능성을 성서를 통해 발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181]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회심은 종교 경험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근본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지만, 인간 쪽에서 경험하는 회심은 일종의 행동 현상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관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경우 회심에 대한 세속적 측면에서의 연구는 회심의 경험을 더욱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본 글에서는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의 회심 연구도 가능하지만 무엇보다 심리학적 접근을 통해 회심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회심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의 공헌과 한계를 밝힘으로 오늘날 세속문화(특히 심리학)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현대교회의 목회 상황에서 성도들이 회심에 대해 보다 깊은 이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2. 회심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

회심은 신학의 중요한 주제이지만, 또한 동시에 종교 감정이나 종교 경험을 심리학적으로 관찰하고 연구하는 종교심리학이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오던 주제였다. 그러나 종교심리학과는 달리, 신학은 신앙이 그 대상으로 하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개념을 이해하고 명백히 하고자 하는 것이 본질이다. 따라서 기독교 안에서 회심을 심리학적으로 접근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입장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토마스 오든은 심리학이 종교적인 정서를 관찰할 수 있으며 그

[180]John, Stott,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양혜원 역 (서울: IVP, 2004), 142.

[181]김성민, *융의 심리학과 종교* (서울: 동명사, 1998), 115.

대상으로 종교성을 다룰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시는 취급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한다.[182] 따라서 오든 같은 경우 회심 같은 주요한 신학적 주제를 심리학적으로 접근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고 볼 수 있다. 제이 아담스의 경우는 더욱 극단적인 것으로서, 그는 성경만이 유일한 신적 권위를 가진 것으로 믿고,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규범은 성경이라고 강조하면서, 비기독교적 전제를 바탕으로 하는 심리학의 이론은 철저히 배격한다.[183] 따라서 아담스 경우에 있어서도 회심을 심리학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종교심리학을 긍정적으로 보고자하는 얼 루미스는 이렇게 표현한다. 나무를 대표하는 것은 열매이지만 그 열매에 양분을 공급하여 영글게 하는 것은 뿌리이다. 사람들은 장미꽃의 아름다움은 격찬하면서, 거름과 같은 보잘 것 없는 요소가 없으면 아름다운 꽃이 필 수 없다는 사실을 간과한다. 신자들은 종교적 회심, 즉 교회의 업적이라는 꽃과 열매를 찬양한다. 그러나 종교 심리학자들은 꽃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열매를 맛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좀 더 뿌리에 접근하여 식물의 영양상태를 살핀다. 그들은 더 세밀하고 진지한 관찰을 통해서 건전한 신앙을 재생시키고, 종교적 성장을 저해하는 질병과 해충을 제거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얻는다.

이런 점에서, 종교심리학과 목회적 관심이 합해지면 영혼을 적절하게 보살피고 치유하는 일에 개념상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184] 사실 회심을 심리학적으로 파악하려는 시도에 대하여, 종교경험을 단순한 심리현상에 불과한 것으로 격하시키지 않을까 하는 기우가 있을 수 있다.[185] 또한 초월적이며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활동에 의해 경험되는 회심을 단순히 심리학적 이론에만 근거하여 분석하려는 시도는 그 접근방법이 적절치 않을 수 있고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렇듯 심리학적으로 회심을 다루기에는 그것이 매우 민감한 사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 루미스의 표현처럼 그 과정을 심리학의 도움을 받아 살펴본다는 것은 회심을 보

---

[182]Ralph Martin, *초대교회예배*, 오창윤 역 (서울: 은성출판사, 1998), 125.

[183]박노권, *목회상담학 (*대전: 세종문화사, 1999), 152.

[184]웨인 오츠, *현대종교심리학,* 정태기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69.

[185]Johns, M. Roide, *회심: 심리적인 것인가 영적인 것인가?,* 이정선역 (서울: 생명의 샘, 1994), 111.

다 깊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본다.

돈 브라우닝 역시 이 점에서 적절한 근거를 제시한다. 그는 심리학이 신학을 더욱 풍요롭게 해 줄 수 있다고 보는데, 심리학 특히 인본주의 심리학의 자아실현, 자기 존중에 대한 주장의 경우 더욱 효과적으로 전통적인 이웃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했다고 본다. 예를 들어, 로저스는 개인들을 "피상적이고 외적인 근거에서 바라볼 때 그들은 우선적으로 자아사랑의 희생자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면서, 자기가 치료했던 많은 사람들을 근거로 해서 "문제의 핵심적 원인은 그들이 그들 자신을 경멸하고, 자신들을 무가치하고 사랑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186]

다른 인본주의 심리학자들의 입장도 이와 비슷한데, 인간 실존에서 심각한 문제는 '자기사랑'이 아니라 '자기혐오'이며, 사람이 자기사랑을 느끼면(자아가 사랑받고 또 사랑받을만하다고 느끼면) 그 후 타인 사랑이 뒤따를 것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근본적인 자기 존중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신학은 말을 하지만, 인간 조건의 분석에 있어서 자기혐오나 자기존중의 상실의 문제에 대해서는 현대 심리학이 신학자들보다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 본다. 즉 하나님이 인간을 치유하는 신학과 유한한 인간이 또 다른 인간을 치유하는 심리학은 서로 관계가 있으며, 심리학은 신학이라는 더 큰 존재의 구조 안에서 타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187] 이와 같이 회심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이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며, 동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방법론적 근거 위에서 회심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3. 회심에 대한 심리적 분석: 윌리암 제임스를 중심으로

회심을 "분열된 자아의 통합"(unification of a divided self)이라고 말했던 윌리암 제임스의 관점은 오늘날도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여기서 분열된 자아란 자아의 심한 갈등상태를 말하는데, 제임스는 이것을 '분열된 자아'라고 불렀

[186]제임스 윌리암, *종교체험의 여러 모습들,* 김성민, 정지련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7), 97.

[187]박노권, *종교심리학* (대전: 세종문화사, 1999), 78.

고, 이러한 분열을 일으키는 성향의 사람들을 일컬어 '병든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였다.[188] 이와 같은 내면적인 분열을 갖는 사람은 여러 가지 종류의 정신, 신체적인 질병을 갖게 되며, 그의 생애에서 일생일대의 위기를 맞게 된다. 이때 그 사람은 그러한 위기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게 되나, 많은 경우 성공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그가 의도적인 모든 노력을 포기했을 때, 어떤 이상한 힘이 그의 영혼을 치유하려고 작동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때 그는 이 힘을 어떤 신적인 힘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지금까지 한 것이라고는 아무 것도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힘은 그를 어떤 정동적인 체험상태-소위, 신의 현존을 체험하게 하는 황홀경의 상태-로 이끌어가며,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종교체험자의 분열된 자아는 통합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반드시 심한 갈등상태에 있을 때에만이 회심을 경험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던져질 수 있다. 갈등을 크게 수반하지 않는 무의식적 회심, 또는 점진적 회심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제임스는 회심을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 비록 제임스는 급격한 회심에 관심을 갖고 있으나, 그는 회심은 점진적일 수도 급진적일 수도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회심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보증하는 가장 중요한 징표"로 보고 격렬한 감정이 따르는 급격한 회심만을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으로 돌리고 점진적인 회심을 소홀히 하는 것은 그의 관점에서 볼 때 잘못된 것이다.

중요한 것은 회심을 통하여 나의 욕망이나 나의 좁은 의식에만 사로잡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존재'와 하나 되어 그에게 이끌려 사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인생의 진정한 목적은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의 성공이나 어떤 성취가 아니라 그들의 존재보다 더 높은 차원에 있는 우주와의 연합이나 조화에 있으며, 이 연합으로부터 그들은 어떤 종류의 영적인 에너지를 부여받아서 새로운 열정을 가지고 살 수 있으며, 내면적으로는 안정과 평안을 느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바로 회심은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또 한편 제임스의 연구방법은 철저하게 실용주의적인 것이었다. 즉 그는 어떤 종교체험이 참다운 종교체험인가를 판단하려면 "열매를 보고 나무를

[188]제임스 윌리암, *종교체험의 여러 모습들*, 김성민, 정지련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7), 209.

안다"는 말이 있듯이 그 체험의 결과를 보고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참다운 종교체험은 궁극적으로 체험자들을 성자성(saintliness)으로 이끌고 간다고 주장하였다.[189]

제임스에게 있어서 올바른 회심의 척도는 점진적이 되었든, 급진적이 되었든 간에 무엇보다도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도덕적 변화였기 때문이었다. '돌아서다', '중생하다', '은혜를 받다','신앙을 체험하다', '확신을 얻다' 등 회심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은 분열과 잘못과 열등감으로 시달려 오던 자아가 종교적 실재를 확실하게 파악함으로써 의롭고 자신 있고 행복한 자아로 변화하는 점진적인 또는 갑작스러운 과정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믿든 믿지 않든 간에 회심은 반드시 이와 같은 도덕적 변화를 수반한다.[190]

이러한 그의 주장은 시간이 많이 지난 오늘날도 회심에 대해 간증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여전히 타당성 있는 이론이라고 생각되어 진다. 한국에서 잘 알려진 TV 탤런트와 영화배우였던 문오장 목사의 전형적인 간증에서도 이런 점이 잘 나타난다. 영화, 쇼, 드라마, 밤무대 등 돈을 벌기 위해 몸을 돌보지 않고 또 끊임없이 마셔대는 술과 담배로 위장병을 갖게 되고 건강히 악화되었다. 병으로 인한 괴로움으로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워 죽을 생각도 여러 번 했었다. 그러다가 이웃집의 한 교인을 통해 도움을 받고 간접적으로 여러 교회에 대한 얘기를 듣다가, 어느 날 억지로 끌려가다시피 해서 교회를 그저 구경 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순복음교회에 참석했다가 목사님의 설교에 마음이 흔들렸다. "돈만 많으면 행복한 줄 알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돈벌이에 눈이 벌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명예로 천국갑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마치 그것이 자기에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가슴이 동요하고 있었다. "나는 그때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그때까지 한 번도 체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감정이었다. 양심의 동요 내지 새로운 인식, 막연하나마 내가 지금까지 소유하고 있던 사상이나 철학이나 인생관이 결코 옳지만은 않다는 그런 깨달음이었다. 내가 초라하게 느껴

[189]Ibid., 238.

[190]Ibid., 239.

졌다.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 살아가고 있다는, 아니 나야말로 욕심쟁이 죄인이라는 자각이 일고 있었다. 그러자 내 눈에서 의미를 알 수 없는 눈물이 쭈르륵 흘러나오는 것이었다. 뜨거운 눈물이었다. 슬픔의 눈물이거나 회개의 눈물은 아니었다. 그날 나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내 가슴 속 깊은 데서부터 서서히 변화시키고 있었다. 그 후로 나는 기도로 위장병도 낫고 신학을 하여 목사가 되었다. 그리고 그 많던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버리고 예수 한 분으로 참 만족과 기쁨을 얻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191] 윌리암 제임스는 회심에 관한 많은 연구를 했고 그의 영향력은 지금도 크게 작용하고 있음에도, 회심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자아분열의 갈등과 통합-급진적인 그리고 점진적인 방법을 통해-이라는 구조 이상으로 더욱 자세하게 진전시키지 않고 있다.

4. 회심 과정에 대한 분석

회심은 19세기 후반부터 심리학에서 중요한 주제였다. 당시 회심의 명백한 형태는 부흥회에서 일어났던 급격한 회심이었기 때문에, 스타벅이나 스탠리 홀 등에 의한 초기 연구들은 주로 청소년기의 극적이고 급진적인 변화로서의 회심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비록 종교심리학이 갑작스런 회심에 관심을 갖고 있음에도, 그 후 많은 회심연구에서는 대부분의 회심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92]

따라서 최근에는 전생애를 통해 전인격이 점진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으로서 회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심오한 지적변화, 정서적 성숙, 증가하는 윤리적 민감성과 행동,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강렬한 사랑 등의 종합적인 면에서 계속적으로 변화해 가는 것을 중요시하는 것이다. 즉, 한편에서는 극적인 "다시 태어남"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서서히 미묘한 그러나 심오한 과정으로서 회심을 서술한다.[193]

---

[191]황수관외 16인, *우리는 행복한 예수쟁이들* (서울: 오늘, 1999), 80.

[192]콜린스, 게리, *폴 투르니에의 기독교 심리학,* 정동섭역 (서울: IVP, 1998), 47.

[193]콜린스, 게리, *폴 투르니에의 기독교 심리학,* 정동섭역 (서울: IVP, 1998), 78.

윌리암 제임스가 극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회심과정을 위기를 통한 자아분열과 통합으로 압축해서 설명했다면, 계속적으로 변화해가는 회심에서는 여러 과정의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오늘날 눈에 띄는 급격한 회심보다 점진적인 회심을 경험하는 많은 기독교인들을 염두에 두고, 회심과정에 대한 좀 더 다양한 이해를 위해, 회심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람보(L. Rambo)가 제시한 이론[194]을 중심으로 일곱 단계의 과정으로 나누어서 접근해 보고자 한다.

1) 상황(Context)

회심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회심이 일어나는 상황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화적, 사회적, 종교적, 개인적 환경은 회심과정을 촉진하거나 방해할 수 있다. 비록 회심이 개인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환경은 개인의 정체성과 소속감, 의식에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시골서 자란 사람과 도시에서 자란 사람의 세계는 다르고, 불교신자는 기독교인들과 비교해서 다른 상징, 의식, 신화의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회심은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정신의학자 리프톤(Robert J. Lifton)은 현대세계에서, 문화적 전통의 침식, 높은 유동성, 빠른 의사소통망, 세속화들로 인해 자아는 약해지기 쉬운데, 이런 자아의 약한 상태는 보수적인 종교로의 회심을 위한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195] 즉 분명한 대답과 신념체계를 제공하는 종교는 오늘날 약한 자아를 갖고 수많은 선택의 갈등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안정을 주고, 중심을 상실한 세계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일관성 있는 중심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것이다.

세일즈(S. M. Sales)도 1920년부터 1939년 사이에 미국의 8개 종파를 대상으로 행해졌던 회심 연구에서, ‘권위주의적’ 종파의 신도의 증가는 경제적 불황과 연관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비권위주의적’ 교회로 개종하는 것은 경제적인 성장기에 절정을 이루었다고 보고한다. 예를 들면, 미국의 장로교회는 이른바 ‘좋은’ 7년

---

[194]Eugene H, Peterson, *묵상하는 목회자*, 차성구 역 (서울: 좋은 씨앗, 2008), 120.

[195]Johns, M. Roide, *회심: 심리적인 것인가 영적인 것인가?*, 이정선역 (서울: 생명의 샘, 1994), 58.

동안보다는 ‘안 좋았던’ 6년 동안 개종자의 30%가 줄어들었고, 반대로 제칠안식일 교회는 좋은 해보다 나쁜 해에 68%나 더 많은 개종자를 끌어들였다. 세일즈는 마찬가지로 워싱톤 주의 시애틀 지역에서 1961년과 1970년 사이에 경제적으로 좋은 4년과 경제적으로 나쁜 4년을 구별해 냈는데 이때 연합장로교회(비권위주의적)는 좋은 해에 더 많은 개종자를 끌어들였고, 로마가톨릭 교회(권위주의)는 나쁜 해에 더 많은 개종자를 끌어들였다는 것을 발견했다.[196] 이러한 사실들은 회심에 있어서 주위 상황이 영향을 주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상황을 올바로 파악해야 구도자들로 예배를 통하여 회심하며 하나님께로 돌아 올 수 있게 한다.

2) 위기(Crisis)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관습적이고 일상적인 경계선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데, 이럴 때에는 스트레스가 적절히 취급되고 정서적인 안정이 유지되어진다. 그러나, 개인적인 삶에서 자신의 실존이 흔들릴만한 갈등을 일으키는 위기를 만나게 될 때, 이러한 위기 속에서 이제까지 그의 삶을 지탱해주던 신화, 상징, 의식, 목표, 삶의 표준들이 더 이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들의 삶을 파괴적이고, 의미 없고 소외된 것으로 바라보게 된다.

그리하여 습관적인 삶의 방식들이 소용없고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경험되고 어떠한 변화가 실존적으로 절박한 것이 되게 된다. 위기의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설명이 있을 수 있다. 정신분석학자들은 초자아와 이드 사이의 갈등에서 위기가 온다고 본다. 특히 아버지와의 문제있는 관계, 불행한 어린 시절, 분열되고 왜곡된 개인적 관계 등의 정서적 문제가 후에 그의 삶에서 위기를 불러오는 동기가 된다고 본다.[197] 프로이드의 갈등이론에 영향을 받은 타울레스는 청소년의 성적 갈등이 의식화 될 때 커다란 불안을 경험한다고 하며, 이것이 회심을 갖게 되는 주요 동기라고 한다. 그에 따르면, 회심은 이런 갈등을 해결하도록 돕는데, 이 갈등 속에서 성적 에너지는 에로틱한 감정에 대한 적절한 출구 대신에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는 것이다.[198] 이런 부정적 관점에서 보는 회심의 동기와는 달리, 칼 로

---

[196]Johns, M. Roide, *회심: 심리적인 것인가 영적인 것인가?,* 이정선역 (서울: 생명의 샘, 1994), 73.

[197]오츠 웨인, *현대종교심리학,* 정태기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158.

[198]Richard, J. Foster, *영적 훈련과 성장,* 권달천, 황을호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9), 36.

저스 같은 인본주의 심리학자들은 사람은 자아실현을 이루고자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때 이상적인 자아와 현실적인 자아 사이의 틈을 스스로 인정하고 자신 안에 조화를 시키지 못할 때 위기가 온다고 본다.

또한 생의 각 단계마다 찾아오는 위기가 있을 수 있는데, 칼 융은 35세 이후에 정신질환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극심한 삶의 의미의 상실의 위기(신앙적 위기)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하고[199], 에릭슨은 여러 위기들, 예를 들면, 청소년기에는 스트레스와 정체성 혼란을 겪는 정서적 위기가 있고, 중년기에는 남을 위한 생산성과 자기도취의 침체 사이에서 갈등의 위기가 있고, 그리고 노년기에는 인격적 통합과 절망 사이에서 오는 갈등의 위기 등 생의 단계마다 다양한 위기가 있음을 말한다. 특히 회심심리학을 연구하던 초기 학자들은 회심이란 사춘기 때의 현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청소년의 심리적 스트레스 및 격정이 깊게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스타벅은 격정과 스트레스, 의심, 사회의식의 확대, 지적 통합, 자아정체감의 탐색, 극도의 혼란-불안감과 불안정, 불확실성의 위기는 높은 수준의 자아를 이루게 되는 계기가 된다고 주장한다.[200] 이와 같이 위기의 요인은 삶의 의미 추구에서부터 인생의 공허, 두려움, 비인간화된 자기 모습에 대한 절망, 일상적인 삶에서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갈등에서 오는 위기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심한 갈등을 일으키는 위기들이 반드시 회심을 야기한 것은 아니나, 제임스를 비롯한 모든 회심연구 결과에서 보듯 회심을 가져오게 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

3) 질문(quest)

질문은 위기에 처한 사람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최대화하려고 추구하는 과정이다. 이 단계에서 사람들은 새로운 사고, 느낌, 행동의 방식을 추구한다. 옛 생활방식의 불만을 벗겨줄 수 있는 새로운 사고나 행동방식을 조심스럽게 살피고자

---

[199]Wallace, B. Clift, *융의 심리학과 기독교*, 이기춘 역 (서울: 대한기독사), 147.

[200]김영한, *21세기 포스터 모더니즘과 기독교* (서울: 숭실대 한국 기독교 문화 연구소, 1995), 57.

다양한 경험신비적인 종교집단, 집단감수성 훈련그룹, 정치적 활동, 종교, 또는 심리요법 등과의 만남을 할 수 있다. 질문에서는 회심자가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보통 회심은 하나님이 직접 간섭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묘사되며 따라서 회심자는 그 자신도 통제할 수 없는 강력한 무의식적 욕구에 반응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이런 소극적인 이미지뿐 아니라 질문은 회심자의 적극적인 면이 같이 존재함을 말해준다. 월터 콘(Walter Conn)은 콜벅, 에릭슨, 피아제, 케건, 그리고 파울러 같은 발달심리학자들의 이론을 연구한 후, 이들의 작업이 자기초월과 회심에 대한 개인의 내재적 동기에 대한 열쇠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에 따르면, 발달단계를 통해서 사람은 인지적으로 감정적으로 더 성숙해지게 되는데, 바로 이 발달단계는 초월에 대한 원초적인 인간의 갈망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회심이 과거 어린 시절의 부정적 감정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라 보는 정신분석학과는 달리, 이와 같이 콘은 보다 성숙해지고자 하는 건전한 질문이 회심을 이루는 보다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있다.[201]

4) 만남(Encounter)

이 단계에서는 질문에 답을 제공해 주는 개인이나 그룹을 만나게 된다. 예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지냄, 부활과 같은 성서이야기들을 가지고 목사가 설교할 때, 이 설교를 잠재적 회심자가 최근의 이혼이나 새로운 삶을 다시 살아야할 필요를 절실히 느끼는 자신의 삶과 연결시키는 경우, 종교의 상징적 체계는 그럴듯하고, 의미 있고, 매력적이 되며, 잠재적 회심자는 (새로운 삶의 이야기로 들어가기 위해) 이 체계와 동일시하고 이 체계를 자신의 것으로 적용할 수 있다.[202] 이렇게 만남을 맺은 사람은 이제 삶의 의미에 있어서 새로운 가능성을 인식하기 시작한다.

이 만남의 단계에서는 잠재적 회심자의 애정적, 지적, 인지적 욕구뿐만 아니라 또한 회심을 주고자하는 자의 욕구도 포함된다. 과거의 회심연구는 주로 회심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잠재적 회심자와 회심을 주고자 하는 자 사이에는

201Richard, J. Foster, *영적 훈련과 성장,* 권달천, 황을호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9), 39.

202Johns, M. Roide, *회심: 심리적인 것인가 영적인 것인가?,* 이정선역 (서울: 생명의 샘, 1994), 74.

역동적인 상호작용이 존재한다.(예를 들어, 새로운 회심자를 찾기 위한 선교사의 열성적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만남의 단계에서 종교지도자의 카리스마 또는 개인적 매력은 잠재적 회심자에게 역할모델, 삶의 지침, 추종자의 가치에 대한 확증 같은 것을 주면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듯 카리스마적 지도자가 회심에 많은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또한 친구나 친척들과의 만남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실, 어떤 잠재적 회심자에게 있어서 그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자와의 만남은 갈등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해주고 더욱 건설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에너지를 사용하게 해준다. 그러므로 많은 사회학자들은 이러한 만남은 일반적으로 나이나 성별, 교육수준이 비슷한 사람, 친척이나 친구들을 통해 일어난다는 것에 주목한다.[203]

5) 상호작용(Interaction)

사람들은 개인이나 그룹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구체적인 욕구를 발견하기 시작한다. 람보는 전통적으로 욕구의 네 가지 범주는 의미의 지적체계에 대한 촉구, 정서적인 소속감에 대한 욕구, 새로운 행동양태에 대한 욕구-즉, 새로운 방향의 가치와 일치하는 삶의 구체적인 지침이나 방법-그리고 이상을 구체화하는 지도자에 대한 욕구라고 말한다.[204] 만난 후 그룹과의 관계를 계속하면, 상호작용은 더욱 강해지는데, 이 단계에서 잠재적 회심자는 그룹의 기대, 삶의 양식, 가르침에 대해 더욱 배우게 된다.

사빈과 아들러(T. Sarbin and N. Adler)는 커다란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 가운데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요소들을 다음과 같이 열거했다. 1) 새로운 삶의 방식의 모델을 제공하는 교사(혹은 멘토)와 회심자 사이의 관계의 중요성. 2) 회심자가 새로운 종교적 체계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서 의식(ritual)의 중요성. 이 의식을 통해 인지적인 이해를 넘어서서 새로운 신념과 실천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얻게 된다. 3) 신체적 경험의 중요성. 회심자가 금식을 하던 명상을 하던 의미 있

[203]Richard, J. Foster, *영적 훈련과 성장*, 권달천, 황을호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9), 36.

[204]Johns, M. Roide, *회심: 심리적인 것인가 영적인 것인가?*, 이정선역 (서울: 생명의 샘, 1994), 77.

는 변화의 체계에서 육체의 참여는 필수적인 요인이다. 4) 죽음과 거듭남의 은유의 중요성.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기독교적 이미지는 회심자가 과거를 단절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한다. 5) 외적인 종교적 이야기가 자신에게 관계를 갖고 압도적인 것이 되면서 내면화되기 시작하는 것..[205]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종교적 회심에서 사람들이 갖는 강력하고도 예외적인 경험을 다 설명하지 못하지만, 회심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상호작용의 중요성에 대해 많은 통찰력을 주고 있다.

6) 위탁(Commitment)

이 단계에서 회심자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옛것보다 우월하다고 결정하고 의식적이던 무의식적이던 철저한 자기포기를 통해서 극적으로 과거와 단절한다. 위탁을 통해 이제 전적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다. 이제까지의 일상적인 삶은 새로운 은유와 이미지, 새로운 이야기로 해석하도록 요구되어진다. 때때로 과거와의 단절과 새로운 위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의식(ritual)이다.

예를 들면, 세례나 그들의 삶을 새로운 관점에서 보는 "간증"이 필수적이다. 간증은 회심으로 이끌었던 경험이나 삶의 이야기를 단순히 말하는 것 이상이다. 그것은 회심자의 개인의 이야기를 그룹의 이야기와 명백하게 연결시키는 창조적인 과정으로, 회심자가 이 그룹에 맞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방식으로 증언을 하게 된다. 또한 세례는 옛 삶이 죽고 새로운 삶이 태어나는 것을 선포하는 명백하고도 경험적인 과정이다.

이 위탁의 과정에 대한 흥미 있는 통찰을 모리니스(Alan Morinis)의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입회식 때 어떤 그룹들은 고의적으로 고통을 끌어내기 위해 신체의 절단(할례, 매질, 손가락 자르기, 이빨 뽑기 등)을 요구한다. 그는 고통을 끌어내는 것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자의식을 고양하는 것과 그룹의 일부분이 되기 위해 개인이 자신의 무언가를 희생해야 한다는 것을 시위하는 것이다. 비록 기독교에서는 회심 과정의 일부분으로서 신체의 물리적 절단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회심에서 이와 같은 고통은 강렬하게 존재한다. 이것은 죄와의 투쟁, 하나님으로부터 소외에 대한 묘사에서 잘 드러나

[205]Wayne Orts, *현대종교심리학,* 정태기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85.

는데, 하나님에게 돌아서기 전에 죄와 부패에 대한 강조는 바로 절단의식과 같은 효과를 만들어내는 방법이라는 것이다.[206] 많은 회심자들은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에의 전적인 굴복은 그들의 회심과정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이라고 보고한다. 예를 들면, AA에서도 사람들은 그들이 알코올 중독자이고 그러한 현실을 바꾸기에는 절대적으로 무력하다는 사실을 먼저 직면하게 되는데, 역설적으로 그런 무력감에 대한 철저한 인식 위에서 사람들은 알콜 문제를 다루는 과정을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207]

이 과정은 기독교 회심에서도 비슷하다. 사람들이 죄인으로서 그들의 곤경에 직면할 때, 그런 인식에 대한 굴복 그리고 구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굴복하는 때가 바로 새로운 삶을 위한 힘을 얻게 되는 때이다. 잠재적 회심자가 옛 생활방식에서 벗어나 전적으로 위탁을 하는 결단을 내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며, 두 세계 사이에서의 동요는 매우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삶의 경계를 넘는 결정은 엄청난 안정감과 삶의 기쁨을 가져온다.

7) 결과(Consequences)

회심자마다 결과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한 경험은 새로운 신념과 행동을 굳건하게 한다. 기독교인의 회심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되는 성장과 갱신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 대한 메타포(은유)는 순례이다. 만일 회심자가 위탁 사건에 뒤따르는 이 순례를 시작하는 것을 실패하면, 회심자는 새로운 신앙을 떠날 수도 있다. 그리고 처음의 열정이 최고조에 이른 후에, 새 회심자는 때때로 회심 후 우울증을 경험할 수도 있다.

이때 고조된 희망은 희미해지고 새로운 신앙을 찾은 강렬한 기쁨은 사라진다. 이러한 경우에 적절한 목회적 돌봄이 없으면 회심자는 새로운 삶과 신앙에 대한 타당성에 의구심을 갖기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 성숙해질 때, 모든 삶은 하나님과의 더욱 깊은 관계를 갖는 삶을 향한 순례라는 인식을 얻게 된다.[208] 회심을 가져오는 데에는 다양한 동기-다른 사람의 바람에 대한 단순

---

[206]Richard, J. Foster, *영적 훈련과 성장*, 권달천, 황을호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9), 149.

[207]Wallace, B. Clift, *융의 심리학과 기독교*, 이기춘, 김성민 역 (서울: 대한기독교 출판사, 1994), 124.

한 순응으로부터 심오한 하나님 경험, 삶의 의미의 발견, 그리고 정서적 갈등의 해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동기-가 있고,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위에서 제시한 7단계 모델은 회심의 과정에 대한 여러 다양한 심리학적 설명들을 종합해서 나름대로 일관성 있게 정리한 것이다. 이제는 이러한 과정으로서의 회심이해가 우리의 전통적인 회심이해에 어떠한 도전을 주고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5. 심리학적 접근의 한계와 공헌

제임스에 따르면, 종교체험이란 인간의 심층 의식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프로이드와는 달리 기독교에 호의적인 것처럼 보이는 융도 모든 신적인 것은 무의식의 영역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종교체험을 통하여 그 체험자가 어떤 신적인 것을 느끼고 체험했다면, 그것은 그가 자신의 무의식 영역에 있는 것을 체험하고 자신의 의식 영역에 동화시켰다는 말이 된다. 이렇게 무의식의 영역에 있는 것을 의식화하고 동화시키는 순간, 우리의 의식은 그만큼 확장된다. 이렇게 확장된 의식에서 나오는 행동은 그 이전의 의식 상태에서 나오는 행동과 다를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서 그의 인격은 변화된다는 것이다.[209] 중요한 것은 어떤 교리적인 차이가 아니라, 무의식과의 만남에서 나타나는 결과들 즉 마음의 평화나 윤리적 변화 등이라고 말하는 심리학적 접근에서는 하나님의 개입의 자리가 없다는 결정적인 약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회심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의 조사에서, 그들은 심리학적인 어떤 구조에서가 아니라, 분명하게 기독교 신앙 안에서 회심을 경험했음을 본다. 제임스도「종교체험의 여러 모습들」에 모아 놓은 많은 종교체험담들을 통하여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인 존재로 체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들이 고백했던 예수는 비인격적인 하나의 힘이 아니라, 종교체험 후에 체험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모든 삶을 바쳐서 헌신의 삶을 살기에

[208]양낙홍, *한국 기독교 사회의 역사적 책임* (서울: IVP, 1998), 131.

[209]김성민, *융의 심리학과 종교* (서울: 동명사, 1998), 315.

충분한 인격적인 존재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인격적인 하나님을 배제하고 시작하는 심리학적 설명은 그 한계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심이 초자연적 관점뿐 아니라 인간적인 시각에서도 관찰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행동과학으로서의 심리학과 신학적 추구로서의 종교 사이의 창조적인 긴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어떤 심리학 이론이나 신학교리가 아무리 소중하다 할지라도 그 중 하나만을 고집하면서 이 창조적인 긴장을 포기한다면 두 분야가 서로 관련되는 영역은 탐구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회심을 단 일회의 하나님의 역사라는 일반적 해석을 넘어서 제임스의 분열과 통합을 통한 급격한 회심, 그리고 조금 더 긴 과정으로서의 회심 분석 등으로 폭넓게 이해를 시도하는 심리학적 통찰력은 전통적인 회심이해를 좀 더 폭넓게 생각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이 점에 대해 몇 가지 제안해 보고자 한다.

첫째, 격렬한 감정이 따르는 순간적인 회심만을 인정하고자 하는 경향에 대해서, 심리학적 접근의 회심은 이것이 문화나 사회적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과정 점증하는 의식, 고려, 그리고 통합을 포함하는 등 여러 과정으로 서서히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삶이 변화하는 깊이 있는 회심은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으로 이해의 폭을 넓혀준다. 통속적으로 “결정적인 회심의 경험이 없이는 구원에 이르기 힘들다”는 해석에 대해서는 그것이 너무 좁은 해석임을 보여준다. 회심경험은 각 회심자의 성격이나 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특정의 형태의 회심만을 강조하는 것을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인생주기에서 갈등의 구조가 성숙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됨을 인식시킴으로, 갈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 성장하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청소년기의 스트레스와 혼란의 정서적 위기에 직면하게 될 때, 성숙한 자기성찰을 하게 함으로 정상적인 발달과정을 과속화 시킴으로 단축시킬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고, 칼 융이 말하는 중년기의 위기도 개성화 과정을 통해 회심을 경험할 수 있는 시기로 만들 수 있다.

여기에서 심리학적 이해로서의 회심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자발적으로 맹세함으로써 전과 완전히 다른 새사람으로 태어나는 최초의 경험 후에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지속적인 과정으로 이해되어진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절실한 실존적인 문제들로 갈등하다가 해결되는 것이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가오는 각 시기의 절실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회심이라 할 수 있다.[210] 신뢰할만한 회심은 변형의 계속되는 과정이다. 처음의 변화는 중요하지만 이것은 장기간의 과정, 즉 순례의 과정에 있는 첫 발걸음이라 할 수 있다. 즉 회심을 단지 일회적인 사건으로 보기보다는 일생을 통해 지속되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을 심리학적 접근은 제시해 준다.

셋째, 인생 주기에 따른 자연적인 고민과 갈등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회심이 있을 수 있으나, 또한 자신의 삶에 안주하고 있는 자들(새로 등록한 교인이나 오래된 교인 역시)에게는 신앙적인 도전(상호작용)을 줌으로서 회심을 경험하고 더욱 성장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음을 심리학적 접근은 제시해 준다. 오늘날 개인주의화되고 상대주의가 만연해 있는 사회 속에서,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나 성경적인 삶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세속화된 교인이 많은데, 이들은 기독교의 핵심메시지에 대하여 소홀해져 가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회심을 경험할 수 있는 상황과 도전을 주기 위하여 기본적이고 정확한 성경의 가르침과 신앙적인 보다 높은 삶의 차원을 설교나 개인적인 대화(예수와 니고데모와의 대화처럼),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느끼게 하는 예배나 집회를 통해 전달함으로 [211], 현실에 안주하지 않도록 도전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이때 일방적인 주장이나 권위주의가 아니라 함께 생각하는 차원에서 도전을 주도록 해야 한다.

이런 바른 신앙적 도전이 필요한 것은 바른 만나지 못하면 오히려 퇴행으로 이끄는 회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살츠만(Leon Salzman)은 종교적 회심을 두 유형, 즉 발전적인 성숙형과 퇴행적인 정신질환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첫 번째 유형의 회심은 자기 자신과 주위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더욱 깊게

---

[210]John, MacArthur, *진리 전쟁,* 신성욱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7), 69.

[211]박노권, *목회상담학* (대전: 세종문화사, 1999), 96.

하고 우주와 하나 됨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긍정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 한다. 이 성숙형 회심은 분열된 자아를 하나로 통합하고 불안을 해소하고 발달의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성장하도록 도와준다. 그런데 두 번째 유형의 회심은 주로 정신질환 진행 과정의 일부분인 경우로, 그 뚜렷한 특징은 퇴행적인 개종자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지나치게 광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회심은 대부분 교만, 증오, 편협, 강박적인 개종 그리고 신앙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거나 순교하고 싶은 자학적 욕구를 일으키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다.[212] 이런 부정적인 회심의 모습은, 프로이드에 따르면, 종종 권위적 종교의 구조 안에서 발생한다고 한다. 회심이란 오랫동안 존재해온 무의식적 갈등을 풀기 위한 시도로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하는 프로이드는, 특히 청소년 시절 독립하기 위해 권위에 대해 투쟁하는 동안 적대감과 분개하는 태도를 종종 갖게 되는데, 회심은 이런 적대감을 흘러가게 하는 수단으로서 종종 이 기간 동안에 나타난다고 한다. 이때 권위적인 아버지를 향하듯 하나님을 향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이런 경험은 방어적인 해결책으로서 권위적 종교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프로이드는 신경증에 너무 생각이 사로잡혀서 종교적 위탁과 건강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많은 증거들을 고려할 여유가 없이 종교를 억압된 감정이나 두려움, 죄책감에서 나오는 반응 등으로만 추정했다고 비판받을 수 있다.[213]

폴 투르니에도 종교적인 체험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은 인격에 영속적이고 유익한 변화가 일어났으며 더불어 굉장한 행복감을 느꼈다고 말한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원초적인 흥분을 느끼지 못했고 생활가운데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다. 그런데 또 어떤 이들은 더 나쁜 방향으로 변화되었다고 말한다. 스스로의 회심에 너무 감격한 나머지 폭군처럼 되어 다른 사람들도 자신과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체험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한다는 것이다.[214]

이러한 잘못된 회심의 방향은 회심의 과정에서 바른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

212Wayne, Orts, *현대종교심리학,* 정태기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75.

213Raymond, Abba, *기독교 예배의 원리와 실제,* 허경삼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2), 125.

214게리 콜린스, *폴 투르니에의 기독교 심리학,* 정동섭역 (서울: IVP, 1998), 200.

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바람직한 회심을 위해서는 올바른 교육적 가르침(언어적, 비언어적 교육)이 필요함을 회심의 여러 종류를 연구한 심리적 접근에서는 말해준다. 회심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을 제임스와 람보의 이론을 중심으로 정리했는데, 이것은 현대 교인들이 회심을 편협하지 않고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해 본 것이다. 또한 이것은 유아세례를 받고 독실한 기독교 신앙의 집안에서 자라오던 한 사람이 나름대로 가졌던 회심경험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를 정리해 보기 위해서도 시도해 본 것이다.

그는 고3 때에 신앙에 대한 심한 회의에 빠져 있다가 무언가 답을 찾기 위해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고, 그 결과 이제까지의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내적 안정을 찾았던 흔히 청소년 시절에 가질 수 있는 회심경험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 경험은 그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었음에도, 그것이 그의 생애에 있어서 유일한 회심이라고 그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유아세례 이후 비록 의식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신앙을 지켜왔다고 보고, 그리고 그 종교적 경험 이후에도 살아가면서 여러 종교와 사상과 철학들을 배우면서 기독교 전통적 신앙에 대한 혼란이 있었으나 다시 신앙을 정립하면서 그 이전보다 더욱 성숙해지는 경험을 했다.

그렇다면 회심을 단 일회로 규정하거나 급격한 회심만이 참된 것이라면, 그는 언제 회심했는가? 세례 받았을 때?(구원은 인간의 의지에 앞서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기 때문에) 학생 시절 회심 경험 때? 세속철학과 전통신앙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더욱 성숙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단 한 번의 정확한 순간을 얘기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발달 단계마다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자아 갈등과 통합을 통해 계속적으로 더 성장해 왔다는 것이다.[215] 그리고 그는 아직도 순례의 길을 계속 가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다면 파울러의 신앙발달단계가 암시하는 것처럼, 회심의 과정이 정체되지 않게 계속해서 깊은 신앙의 단계로 나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오늘날 목회에서 중요한 사명이 될 것이다. 회심은 본래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또한 회심자의 심리적 상태나 환경이 중요함을 인식하면서, 단계별로 본 회심과정이 회심을 좀 더 넓게 이해하고 이를 통

[215]김성민, *융의 심리학과 종교* (서울: 동명사, 1998), 320.

해 교인들이 더욱 성숙해 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V.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와 예배

1. 포스트모더니즘의 정의

본 논문에서 포스트모더니즘과 열린예배를 다룬 것은 지금 시 대의 현상을 알지 못하면 이 시대를 변화시켜 갈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 시대의 주역인 세대들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오염에 살아가고 있다. 그 오염은 문화의 전쟁으로 보이나 그것은 영적 전쟁으로 예배를 무너뜨렸다. 교회를 무너뜨렸다.

포스트모더니즘이란 1960년대 미국에서 일어난 비단 문학, 예술, 건축이나 철학에서 뿐만 아니라 대중적인 모드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일종의 지성적 문화운동이다.[216] "포스트모던"이란 말은 오늘날 방의 장식에 있어서 부조화, 빌딩의 디자인에 있어서 불균형미, 텔레비전의 광고에 있어서 파편적인 영상의 무의적인 결합과, 관능과 본능에 호소하는 원초적인 장면, 문화적 단편화 과정, 전위적인 옷 스타일, 광란적인 록음악, 소설에 있어서 자아 소멸과 無 주제, 철학의 주제 분산화, 핵의 파멸에 의한 인류의 공포, 대학의 쇠퇴, 정치 이념의 다원화, 정보화 내지 후기 산업사회 시대에서의 지식 등 우리 문화의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사용되고 있다. 포스트모던 사회란 과학, 문학, 예술 등 사회문화의 각 분야에서 변형된 형식과 의식이 지배하는 사회이다.

이질성과 다양성이 강조되고 미래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한 사회, 영웅이 사라지고 구체적인 나의 너가 모두 존중 받는 사회, 하나의 거대한 담론(절대정신, 생산력 등)이 통일성과 전체성에 있어서 사회를 지배하거나 통제하지 않고 상이한 담론의 주체가 수행하는 다양한 언어게임이 허용되는 사회요, 국가 기관의 통제력이 감소되고 개별적인 시민단체들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회이다.[217] 포스트모더니

[216] 서범석, *포스터모더니즘 연구* (서울: 홍익대학교, 1997), 78.

[217] Hans Kung, 교회, 정지련 역 (서울: 한들 출판사, 2007), 212.

즘(postmodernism)이란 불연속성과 연속성이 교차하는 개념이다. 불연속성이란 모더니즘의 한계를 극복하고 뛰어넘는다는 의미이다. 좁은 의미로는 전통을 붕괴하고 허물어버린다는 해체주의(deconstructionism)의 뜻을 가지게 된다.

포스트모더니즘은 계몽시대 이래로 현대주의가 찬양하고 표방한 인간이성의 합리성, 과학의 신뢰성, 진리의 객관성과 보편성에 대하여 비판한다.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 운동은 이러한 계몽주의가 이룩한 성과와 업적을 붕괴하고 해체시키는 지적 내지 문화적 운동이다. 급진적인 포스트모더니즘 운동은 현대주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업적을 극단적으로 허물어뜨리는 운동이다. 예컨대 신, 진리, 주체성, 초월적 이성, 엘리트주의, 남성 중심, 서양 중심적 사고방식에 반항한다. 연속성이란 긍정적인 의미로서 모더니즘과의 연속선상에 있다. 모더니즘의 정신인 전통에 대한 비판과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과 진리관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현대주의에 대한 비판과 단절이란, 역설적으로 현대주의가 표방하고 있는 인간 중심주의의 복권 시도라고 할 수 있다.[218]

모더니즘은 이성과 과학기술의 성과를 수단으로 하여 인간을 무지와 권위의 종속과 가난으로부터 해방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과학기술의 메커니즘은 인간을 과학기술적 제도에 종속시키고 노예화함으로서 인간을 비인간화 하였다. 이러한 현대주의적 인간 속박과 인간 노예화에 대한 문화적 비판이란 현대정신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그 정신적 기초 위에서 현대주의의 역기능을 비판, 단절하려는 시도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이런 의미에서 현대주의와 연속선상에 있다.

2.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

1) 비합리주의

현대 해체주의의선구자는 독일 철학자 니체(Nietzsche)이다. 그는 신의 죽음과 더불어 인간이 스스로 운명의 주인이 되는 초인(超人)의 도래를 외쳤다. 그가 죽었다고 선언한 신은 기독교적 신이기도 하지만 근대적 합리주의의 종말을 선언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니체의 외침은 헤겔(Hegel)이 근대정신의 지고의 원리로

[218]John Mackay, *에큐메닉스-세계교회운동원론*, 민경배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122.

설정한 절대정신의 종언과 이성 자체의 죽음을 선언한 것이다.[219] 니체의 선언은 현대사상의 기초가 되는 인간 이성의 해체를 말한다. 그는 생의 의지가 인간 삶의 근원이요 기초가 되는 것으로 보았다. 근대의 계몽주의는 이성이 지니고 있는 합리성, 그 원리에 따르는 과학적 지식의 객관성과 보편성과 실증성을 진리 인식의 지고의 권위로 설정했다. 계몽주의는 인간을 넘어 초월적·절대적인 진리를 추구했다. 계몽주의는 객관적 진리의 설정과 더불어 인간 도덕성에 기초한 통일되고 단일적인 가치를 추구했다.

또한 사회정신의 통합과 균형, 그리고 유일한 입장과 접근과 동질성을 추구했다. 이에 대하여 포스트모더니즘은 이러한 이성의 권위와 도덕성과 객관적인 가치관을 무너뜨린다. 료따르(Lyotard)는 계몽주의 구성을 인간 해방 사상으로 유보없이 받아들이는 하버마스(Habermas)의 모더니즘 옹호 입장을 비판하면서 "아우슈비츠라는 단어 하나로 근대적인 이성의 이상(理想)에 종말이 알려졌다"고 선언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인간의 감정과 의지에 기초한 상대적인 진리관과 도덕관과 가치관을 내세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성의 해방과 더불어 전통적인 가족제도 및 결혼에 대한 거부, 이혼의 급증, 독신자의 급증, 호모 섹스의 사회적 허용, 정치적으로는 독재 권력의 거부, 지배 이데올로기의 거부 등이다.

근대과학이 주창했던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진리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과학적 진리도 관찰자의 가치와 주관적 기호가 깃든 상대적 진리이다. 개인의 경험과 민족과 문화 집단의 특수한 진리만이 있다. 다양한 가치와 태도, 분산화 불균형, 다양한 시각과 접근, 이질성을 강조한다. 철학의 영역에 있어서 포스트모더니즘을 부르짖고 있는 자들은 프랑스의 후기 구조주의자들, 푸꼬(Michel Foucoult), 데리다(Jacques Derrida), 라깡(Jacques Lacan), 료따르(Jean Francois Lyotard) 등이다. 이들은 니체, 마르크스, 프로이드 등 회의주의 사상가의 정신을 이어받으면서 과학가설을 포함해서 현대문화 체계의 경험주의적·합리주의적 휴머니즘 가설에 도전하고 있다.

이들은 모던적인 것에 대한 총체적인 부정을 시도하고 있다. 이들은 근대사상이 당연시해 온 일체의 보고(寶庫)를 문제시한다. 이들은 마르크스와 프로이드로

---

219 Raymond Abba, *기독교 예배의 원리와 실제,* 허경삼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2), 114.

부터 "회의의 해석학"(hermeneutic of suspicion)을 수용한다. 그러나 이들은 이를 극단화시켜 마르크스주의와 프로이드주의에 대하여도 긍정적 입장을 거부한다. 이들은 근대적 데카르트적 사고가 기초하고 있는 자아의 확실성을 파괴한다.[220]

2) 다원주의

모더니즘은 인간 이성의 합리성에 입각한 총체적 진리와 가치와 사회문화의 일원성에 입각한 획일화 내지 통합화를 주장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이러한 총체성, 전체와의 조화를 거부한다. 프랑스의 후기 구조주의자 료따르는 "총체성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자. 제시할 수 없는 것의 증인이 되자. 차이를 활성화하고 차이의 명예를 구해내자"고 선언했다.

그는 헤겔과 마르크스의 큰 이야기(the metanarrative)를 거부한다. 사회와 역사 과정에 대한 일목요연한 서술이란 없다고 선언한다. 메타 이야기의 불신은 이성의 몰락을 의미한다. 큰 이야기의 대안으로서 모든 이야기들의 동등한 권리와 민주화가 요구된다. 료따르는 포스트모던의 조건을 다음과 같이 피력한다. 포스트모던 지식은 결코 권력의 도구가 아니다.

그것은 차이들에 대한 우리의 감수성을 섬세하게 다듬고 표준에서 벗어난 것을 참아내는 우리의 능력을 강화시킨다. 그것은 자신의 이성을 전문가들의 일차원성에서가 아니라 발명가들의 多차원성에서 취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전체화와 총체화에 반항하면서 언어게임, 시간, 인간 주관, 사회와 역사 과정에 대한 파편적인 서술을 강조한다. 이러한 파편화와 편린화란 인간 정신과 문화 운동의 다양성을 시사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다양한 언어와 사상과 문화를 주장하고 있다. 더 이상 획일적인 언어나 사상과 문화가 가치와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군림하지 못한다.

논리 실증주의는 경험적 실증될 수 있는 사실의 언어만이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실증될 수 없거나 검증될 수 없는 말은 무의미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사실의 언어란 "1+1=2", "개나리 꽃이 핀다", "화창한 봄이 왔다" 등 논리적인 언어, 사실을 서술하는 언어, 증거를 댈 수 있는 언어이다. 이러한 검증될 수 있는 언어만이 의미 있다. 그 외 미학적 발언이나 윤리적 발언이나 형이상학적 발언은 무의미

[220]양낙흥, *한국 기독교 사회의 역사적 책임* (서울: IVP, 1998), 141.

하다. 미학적 발언인 "저 장미꽃은 아름답다"는 사실이 아닌 말하는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그것은 무의미하다. 윤리적 발언인 "선을 행하라"라는 말은 사실이 아니라 윤리적 명령을 말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의미가 없다. 형이상학적 발언인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라는 말은 사실로서 검증될 수 없다. 때문에 그것은 무의미하다. 모더니즘은 진리를 초기 비트겐슈타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언어 실증주의에 입각한 의미의 획일성에 기초했다.[221] 후기 비트겐슈타인은 자신이 초기에 주장했던 의미의 획일성을 깨고 나왔다. 그는 언어게임(language game)을 주장한다. 모든 발언은 그 기능에 따라서 진행되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다양한 의미를 가진다. 하나의 사항이나 이데올로기의 지배는 붕괴되었다. 1950년 다니엘 벨(Daniel Bell)은 이미 「이데올로기의 종언」을 예고했다. 그의 예언은 80년대 말 동구권의 공산주의가 무너지면서 가시화되었다. 그렇다고 반드시 자유주의가 승리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도 없다. 자유주의의 한계는 지나친 자유의 강조에 따른 방종과 무질서와 공동체의 유익을 떠난 개인 중심주의이다.

윤리와 도덕의 적대적인 규범이 무너졌다. 이혼, 혼전 관계, 혼외 관계, 동성연애가 허용된다. 남녀 관계에 있어서 전통적인 절대규범이 통하지 않는다. 전통적인 규범 윤리가 아니라 상황 속에서 가장 인간적인 판단에 기초한 행동인 상황윤리가 포스트모더니즘의 윤리로 등장한다. 윤리와 도덕에 있어서 단 한가지의 기준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기준과 윤리적 지침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된다. 세계가 전자로 축소화되면서 하나의 지구촌이 형성되면서 동서양의 문물이 지구촌 구석구석에까지 유입되면서 문화의 획일성이 사라지고 문화의 다양성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 사회에서도 지금까지는 미국에 이민 간 사람들이 백인 사회에 동화되어 백인화 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유색인종들의 이민이 점차 늘면서 이들이 가지고 온 전통문화와 언어를 인정하고자 하는 문화의 다양성 허용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그것은 역으로 한국이나 일본 등 전통적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서

---

[221]이상훈, *문화로 엿보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문화* (서울: 대한기독서회, 2003), 143.

구 유럽과 미국의 문화가 유입되면서 전통 문화와 서구 미국 문화가 공존하거나 상호 결합하는 문화의 다양성이 야기되고 있다.[222] 지금 우리는 주후 2천년대를 마감하고 제3천 년대(Third Millenium)로 진입하는 시점에서 종교적으로 모종의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세기말적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종말론적 혼란을 야기하기도 하였지만, 문제는 보다 심층적인 인류문화의 양태가 근본적인 전환기를 맞고 있다는데 있다.[223] 지난 2천년동안 기독교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해왔던 서구가 종교 중심적 문화를 뒤로하고 과학적인 기술문화(technological culture)로 탈바꿈하면서 기독교의 위기의식이 점증하였으며, 기독교의 존속을 위하여 과학적 세계관에의 적응과 변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세속화 신학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서구교회는 이제 소수집단으로 전락하였으며, 그 영적 지도력과 호소력을 상실해가고 있는 처참한 상황이 발생하였다. 종교 없는 시대의 도래라는 과학주의적 예언은 일시적으로 정당한 것처럼 보였으나, 종교적 공백으로 인한 비인간화와 가치관의 몰락은 다시 새로운 종교추구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회복이 기독교의 부흥이 아니라 동양신비종교나 원시종교에의 관심으로 나타남에 따라 기독교는 위기감에 직면하고 있다.[224]

이러한 종교현상은 단순히 서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사회에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다 세계적인 관점에서 우리시대의 종교적 변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의 전통종교에 대한 관심과 부흥은 실로 괄목할 만하다. 조선말 제국주의세력의 위협 앞에서 한국의 전통종교들은 너무나 무력하며 그 종교적 생명을 다했다는 의식이 팽배하였으며, 그 대신 기독교가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종교로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

그야말로 20세기는 전반적으로 전통종교의 몰락과 기독교의 신흥이 분명히 나타났으나, 20세기말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추세가 반전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급성장을 구가하던 기독교는 정체상태를 보이고, 그 대신 불교를 비롯한 전통

222김세광, *예배의 역사와 그 발전* (서울: 장신논단 제6집, 1998), 127.

223김욱동, *포스트모더니즘과 예술* (서울 : 청하, 1991), 102.

224박은규, *예배의 재발견* (서울: 대한 기독교 서회, 1988), 147.

종교가 부흥하는 당혹스러운 현실을 보고 있다. 더욱이 그동안 미신으로 억압되어 왔던 무속신앙과 기철학등이 사회적인 인정을 받으면서 정착되어 가는가 하면, 서구의 신흥종교인 뉴에이지종교가 여러 형태로 수입되어 우리 사회에 침투하고 있다. 그러면, 기독교신학은 이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본인은 우리 시대에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신관(神觀)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서 문제의 본질을 규명하고, 그에 대한 기독교적 대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이러한 작업을 위하여, (1) 지금 일어나고 있는 종교현상의 발생 원인을 포스트모던이즘과 연관하여 규명하고, (2) 최근에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무속신앙, 환생신드롬, 그리고 뉴에이지와 같은 신흥종교들의 신관을 분석한 다음, (3) 신학적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3. 포스트모던이즘과 종교현상

포스트모던이즘(post-modernism)이란 근대의 이성주의신앙을 해체하자는 사상운동으로서, 사고방식의 근본적인 대전환을 요구한다. 이러한 풍조는 철학뿐 아니라 제반 문화활동과 종교생활을 포함한 생활의 전영역에서의 변화를 요구한다. 물론 이러한 사상운동이 전 인류나 학계의 전폭적인 수용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면에서 그것은 이제 일으키고자 하는 노력이라기보다는 이미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변화를 서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이라고 명명한 오늘날의 변화는 여러 가지 원인들을 가지고 있다.[225]

첫째로, 서구사상사에서 근대에 일어난 인간중심의 이성주의는 기독교신앙을 대체 혹은 수정하고 최고의 권위로 등장하여 과학시대를 열었는데, 종교와의 분리를 진행하면서 점차 종교적 기반을 상실한 절대진리의 주장은 그 근거와 설득력이 약해지기 시작했으며, 급기야는 20세기에 이르러 절대적인 합리성과 윤리에 대한 신앙이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종교의 약화와 세속화라는 문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는데, 절대진리의 몰락은 자연히 상대주의적 사고 혹은 다원주의적 경향을 불러 일으켰다.[226]

225김태곤, *한국무속연구* (서울: 집문당, 1981), 279.

226송두율, *現代와 恩想* (서울 :한길사, 1990), 67.

둘째로, 근대에 발생한 이성주의적 낙관론은 역사적 유토피아를 추구하였으나, 2차의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중동전쟁, 보스니아전쟁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크게 위축되었으며, 전쟁에 대한 전인류적 회의는 평화주의(pacifism)를 불러 일으켰다. 평화주의는 일부집단이 그들의 진리성과 정당성에 근거하여 타집단을 억압 혹은 제거하려는 일체의 이데올로기적, 혹은 사상적 및 종교적 절대진리주의를 정죄하게 만들었다. 즉, 절대주의가 전쟁과 분쟁의 원인이 된다고 보고, 절대진리를 부르짖는 종교에 대한 강한 회의가 제기되었다. 그러므로 종교간의 대화나 연합, 혹은 종교 간의 평화가 강력히 요청된다.

셋째로, 20세기에 식민주의통치가 종언을 고함으로서, 그동안 서구백인의 우월성이라는 신화가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고, 독립하여 주권을 회복한 국가와 민족들에서는 강력한 민족주의와 전통문화 및 종교에 대한 부흥운동이 일어났다. 비록 대부분의 비서구세계가 근대화와 연관하여 서구화를 추구하는 상황에서 서구문화의 영향과 우월성이 완전히 무시될 수 없는 현실이지만, 반식민주의적인 민족주의 입장에서 어느 특정 민족문화나 민족종교의 우월성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따라서 다원주의적인 사고가 국제사회에서 수용되며, 특히 문화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227]

넷째로, 20세기에 인류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는 경제주의적 사고에 익숙해지면서 경제논리가 중심적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경제논리는 과거의 모든 권위로부터 탈피하여 경제적인 것이 가치 있는 것이 되었다. 본질적인 가치와 권위가 부정되는 추세에서 문화 활동도 경제논리에 지배를 받게 되었으며, 따라서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문화상품이 권위에 우선한다. 이와 같은 현대의 문화이론은 획일적인 사고나 문화를 지양하고 다양한 문화 창조를 고무하기 때문에, 자연히 문화생활에 있어서 다양성이 강조되는 경향이 일어났다. 그러한 원인들은 종합적으로 포스트모던이즘이라는 경향을 발생시켰고, 이 사상은 획일적인 절대주의를 부정하고 다원주의(pluralism) 사고를 권장한다.[228] 이러한 사상적 변화는 종

[227]김태곤, *한국무속연구* (서울: 집문당, 1981), 285.

[228]송두율, *現代와 思想* (서울 :한길사, 1990), 77.

교적인 면에도 중요한 변화를 요청하고 유발시켰는데, 이는 크게 원시신앙의 부흥과 소위 고등종교들의 자기적응으로 나타나고 있다. 근대의 과학적 세계관의 등장과 함께 미신으로 비판되고 억압되어 왔던 원시신앙들이 민족주의의 부상에 힘입어 과거의 자리를 회복하고 있으며, 이는 문화와 종교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물질문명과 기술문화가 야기한 문제들이 인간의 종교성을 부정하고 억압한데 기인하였다는 반성과 함께, 보다 더 원시적이고 본능적인 신앙의 가치를 인정하려는 대중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한편, 소위 고등종교들이 근대적인 합리성의 척도에 적응한 결과 그 가치가 인정되어 왔으나, 합리화된 종교가 종교의 세속화를 결과하였다는 반성과 함께 종교의 신비성을 회복하여 새로운 인류의 필요에 부응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기독교에서도 20세기에 오순절운동이라는 신비주의의 부상이 모든 교파에 나타나고 있다. 또한 현대의 다원주의적인 분위기에 적응하여 대중의 호응을 얻고 존속하기 위하여 종교간의 대화와 평화를 도모하는 관용과 타협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종교다원주의(religious pluralism)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며, 신학적 독선주의나 교파주의의 극복과 정치적 연합운동의 추구 등으로도 표출된다. 우리는 오늘날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종교적 변화가 바로 이러한 포스트모던이즘의 추세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포스트모던시대의 종교현상이라고 규정하는 것이다.

4. 무속, 환생신드롬, 그리고 뉴에이지 종교

오늘날 포스트모던시대를 맞으면서 최근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종교현상 가운데, 전통적인 무속신앙의 대중적 수용과 생활화, 그리고 뉴에이지종교로 대표되는 포스트모던종교의 수입과 그로 인한 환생신드롬 등의 새로운 종교문화현상의 발생을 들 수 있다.[229] 무속(巫俗)신앙이란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함께 하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종교로 공인된 불교나 유교와 같은 고등종교와 달리 민간신앙으로서 공적으로는 억압의 대상이 되어왔으나 대중의 신앙습속으로서 존속

[229]John MacArthur, *진리 전쟁,* 신성욱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7), 120.

해 온 문화화된 종교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무교(巫敎, Shamanism)신앙이 대표적으로서 무당의 굿을 통한 살풀이가 중심이지만, 그 외에도 점술, 역학, 풍수지리설, 칠성신앙, 고사, 부적, 선약, 자연숭배 등 여러 형태로 유포되어 왔으며,[230] 도교(道敎)를 비롯한 타 종교들의 미신적 관행이 혼합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무속신앙은 여성을 중심으로 대중에게 널리 생활화되었기 때문에 고등종교의 신앙과 함께 신봉되어 종교혼합현상을 야기하였다.[231] 이러한 민속신앙이 합리성의 규범에 위배되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억압되거나 금지되었다는 사실은 모던이즘(modernism)과 배치됨을 의미하며, 따라서 포스트모던시대의 도래는 이러한 신앙의 해방과 자유를 구가하는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의미한다.

주화운동의 일환으로서 주체적인 반외세운동과 연관하여 전통문화를 회복하고 존중하자는 각성으로 무속신앙의 재평가와 대중적 수용이 일어났는데, 신학적으로는 같은 맥락에서 발생한 민중신학의 문화신학이 이를 고무시켰다. 그 결과 민족철학으로서 보다 서민적인 기(氣)철학이 부각되었으며, 이어서 모든 무속신앙이 유행하게 되었다. 그리고 공적인 기관도 기우제나 고사 등을 자연스럽게 실행하는가 하면, 지성을 추구하는 대학가에서도 살풀이나 노제, 그리고 점술이나 무속이 존중되는 풍토로 변하였다.[232]

그런가하면, 환경운동이나 자연보호운동을 도교적 자연관과 연결시키는 경향도 일어나고 있다. 무속신앙은 매우 다양하지만, 무교의 신관은 일반적으로 다신론(polytheism) 내지 범신론(pantheism)으로 알려져 있다. 본래는 오히려 다신론적이었으나 범신론에 기초한 도교적 요소와의 혼합과정에서 범신론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포스트모던시대가 추구하는 다원주의적 사고에 가장 상응하는 신관은 물론 다신론이라고 할 수 있으며, 범신론도 그러하다. 절대진리를 추구하던 과거에는 오히려 유일신론(monotheism)이 보다 합리적인 신앙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다신론 혹은 범신론 종교가 모던시대에 억압되었음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233]

[230]송두율, *現代와 思想* (서울 :한길사, 1990), 83.

[231]김태곤, *한국무속연구* (서울: 집문당, 1981), 288.

[232]송두율, *現代와 思想* (서울 :한길사, 1990), 99.

그러나 이제는 포스트모던시대의 도래와 함께 종교적 상황은 근본적으로 전도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가치관은 신관과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절대진리의 부정은 그것 자체가 모순이며 인간성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상황이 반동적일뿐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을 것이지만, 포스트모던시대가 지속되는 한 유일신관을 가진 기독교는 다소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뉴에이지(New Age)종교는 합리성에 대한 회의와 함께 도래한 포스트모던시대에 신비종교의 본산인 인도종교가 서구에 정착하면서 형성된 대표적인 포스트모던종교이다. 이 종교는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미신적 신비신앙을 종합하고 혼합하여 포스트모던시대의 유일한 종교로 군림하기 위하여, 모든 고등종교 특히 기독교의 몰락을 열망하고 있다. 뉴에이지종교는 또한 음악, 영화, 문학 등 모든 문화영역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어서 포교의 방법을 다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뉴에이지종교와 접촉하게 된다. 한국에 조직적인 뉴에이지종교는 아직 규모가 작지만, 문화운동으로서는 적지 않은 세력으로 성장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정신세계사의 출판활동은 대중의 크나큰 호응을 받았으며, 그를 통한 대중적 지지기반을 확보하였다. 소위 환생신드롬이라고 불리는 현상도 정신세계사의 출판물들에 의해 일어났다. 본래 환생교리는 우리나라에서 불교신앙과 연관되어 있지만, 최근의 현상은 오히려 뉴에이지와 관련이 있다. 인도종교가 뉴에이지종교의 중심이기 때문에 불교의 원형인 힌두교의 환생신앙을 가르치고 있다. 정신과의사 전영우의 전생여행이나 환생영화도 한결같이 뉴에이지종교의 소산이며 불교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뉴에이지종교의 신관은 전반적으로 범신론 내지 다신론이라고 할 수 있다.[234]

만물은 모두 신성을 가지고 있으며, 만인은 그러한 신성을 회복하여 신이 될 수 있다는 교리가 그 기본사상이다. 그러므로 뉴에이지종교는 포스트모던시대의 가치관과 조화되는 범신론에 기초할 뿐 아니라 합리성보다는 신비성을 추구하며,

---

[233]김태곤, *한국무속연구* (서울: 집문당, 1981), 292.

[234]김성기, *포스트모더니즘과 비판사회과학*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1), 121.

모든 세계의 원시신비종교들을 통합하여 세계종교를 이룩하겠다는 혼합주의적 경향에서도 가히 포스트모던시대의 대표적 종교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과학적 세계관을 수용하며 또한 그것이 결여하고 있는 신비성과 종교적 차원을 보완하면서 UFO나 신과학 등에 적극적인 후원과 지지를 표명하는 점도 시대적 호응을 얻기에 충분하며, 과학공상소설이나 심령과학의 종교적 기반을 제공하기도 한다.[235] 실로 과학과 종교의 조화는 근대에 하나의 난제로 제기되었으나, 뉴에이지종교는 정신세계의 신비성이라는 방식으로 포스트모던시대에 종교의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고 과학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왜냐하면 창조신앙이나 종말신앙과 같은 교리를 가르치는 역사적 종교는 과학적 사고와 영역분쟁을 일으키지만, 현상세계에 대한 과학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초월적인 신비성만을 추구하는 종교는 과학과 충돌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무속신앙과 뉴에이지종교를 그 신관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는데, 공통적으로 다신론 내지 범신론적 신관을 가지고 있다. 신관의 중요성은 그것이 가치관과 윤리, 그리고 세계관과 인생관을 결정하는 기초가 되기 때문이며, 상호 불가분의 상관성을 가지고 있다는데 있다. 절대주의에 대한 염증에서 유발한 다원주의와 근대의 지나친 자연의 비신성화로 인한 폐해에서 반동적으로 일어난 동양철학, 특히 도교와 인도종교에 대한 관심은 자연히 모던시대에 합리성의 기준으로 정죄하였던 다신론과 범신론을 재고하는 시대적 풍조를 불러일으키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236]

5. 포스트모더니즘의 신학

오늘날 포스트모더니즘이 각 분야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에 대항하여 일어난 새로운 정신적 사조로서, 다가오는 21세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조이다. 보수주의적 시각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을 후기 현대의 자

---

[235]정정호, 강내희 편, *포스트모더니즘* (서울: 도서출판 터, 1989), 77.

[236]김욱동, *포스트모더니즘과 예술* (서울: 청하, 1991), 33.

유주의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이란 반드시 자유주의자들의 전유물은 아니다. 막스 테일러 같은 해체주의자도 있으나 현대 가톨릭 신학자 한스 퀑(K?ng)같이 온건한 입장을 취하는 자도 있고, 미국의 과정신학자 그리핀(Griffin) 같이 현대주의의 메커니즘에 반대하면서 유기체적 사상을 강조하는 자도 있고, 린드벡(Lindbeck) 같이 후기 현대사회에서 기독교의 정체성을 다시 발견하고자 시도하는 신루터교 신학자도 있다.[237] 개혁신학으로 다가오는 포스트모던 시대를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신학이어야 한다. 특히 포스트모더니즘의 종교신학이 전세계의 신학계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였다. 종교다원주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종교 사상이기도 하다. 종교다원주의 신학은 이미 수많은 신학교와 교단들에 크나큰 물의를 빚어내었다.

6. 기독교의 신학적 대안

이러한 포스트모던 종교현상의 발생으로 기독교는 역사상 최대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데, 과연 기독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러한 위협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하여 신학계는 분주히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1994년 미국 휘튼대학에서 열린 전략적인 신학회의에서 발표된 논문들이 “포스트모던 세계에서의 기독교 변증학”이라는 논문집으로 출판되었는데, 거기에서 세 가지 의견이 대립되었다. 비록 반이성적인 시대에도 기독교의 진리성을 위해서는 이성에 호소해야 된다는 "모더니티의 변증론"과 시대적 접촉점을 위해서는 포스트모던적인 화두를 수용하고 합리성에 호소해야 된다는 "모더니티와 포스트모더니티 사이의 변증론", 그리고 기독교의 존속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포스트모더니티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포스트모더니티의 변증론"이었다. 지금까지 발표된 신학적 대안들은 크게 다음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238]

첫째로, 다원주의시대에 기독교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그에 적응해야 한다는 현실론이다. 이러한 방안은 기독교가 전통적인 독선주의를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237] 김영한, *21세기 포스터 모더니즘과 기독교* (서울: 숭실대 한국 기독교 문화 연구소, 1995), 57.

[238] 김형효, *데리다의 해체철학* (서울: 민음사, 1993), 54.

유일성을 주장하는 대신 타종교를 인정하고 대화하며 수용하는 종교다원주의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에서의 종교다원주의는 특히 과정신학(process theology)에 영향을 받은 신학자들에 의하여 주장되었는데, 과정신학은 신관의 변화를 요청하여 초자연적인 신관을 버리고 이 세계와 함께 변화되어 가는 범재신관(panentheism)을 수용함으로서 포스트모던시대에 적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특히 기독교신학이 불교를 수용함으로서 변모되어야 한다는 대승기독교(Mahayana Christianity)를 주창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시대상황에 적응하기 위하여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올바른 대응방안이라기 보다는 타협과 세속화라고 생각된다.[239]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기독교 복음의 절대성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고 스스로 정통성을 부정하여 기독교의 본질적 변질을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이단적 분파로 전락하였기 때문이다. 오히려, 기독교는 이 시대에 유행하는 대중적 사고방식의 차이로부터 오는 불이익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불확실성의 시대에 인류가 반동적으로 절대가치와 유일신관을 상실하고 혼동할 때, 사상적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발휘하여 유일신관에 기초한 절대진리에 대한 확신과 올바른 가치관을 회복하도록 인류를 돕는 노력에 힘써야 할 것이다. 실로 다신론이나 범신론은 기독교적 입장에서 분명히 그릇된 신관이 아닐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이교적 신관과 타협하는 것은 기독교의 본질을 변질시키는 자기파괴 행위가 아닐 수 없다.[240]

둘째로, 포스트모던이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모던시대에 약화되었던 기독교의 초자연적 종교성을 강조하여야 한다는 반성론이다. 기독교는 초자연적인 세계와 인격적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서 출발하였으나, 서구 기독교는 이성주의적 합리성에 복속하여 점차 종교적 신비성과 초월성에 회의를 표명하고 스스로 신학적 세속화의 길을 걸음으로서 신비성을 상실하고 이성주의적인 종교로 전락하였으며, 이는 서구교회의 감소와 몰락을 초래하였고 포스트모던시대의 도래를 유발시켰다. 따라서 기독교는 다시 이적이나 초월적인 세계에 대한 신앙을 회복함으로서 기술

---

[239]양낙흥, *한국 기독교 사회의 역사적 책임* (서울: IVP, 1998), 121.

[240]정정호, 강내희 편, *포스트모더니즘론* (서울: 도서출판 터, 1989), 114.

문화에 지쳐 다시 종교를 추구하는 현대인에게 진정한 종교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다. 소위 신화나 비합리적 신앙으로 제거했던 요소들을 회복하고, 문자성 대신 상징성을 부활시켜 현대인의 종교적 필요를 충족시켜야 하며, 이는 성경적인 기독교의 회복을 의미한다는 생각이다. 기독교가 이 작업을 실패하면, 현대인은 결국 뉴에이지와 같이 신비성과 종교성을 강조하는 포스트모던종교로 몰릴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이러한 대안은 신비주의의 부흥을 가져오기도 한다. 20세기에 들어서 전반적으로 성령에 대한 강조와 성령운동을 적절히 수용하는 교회가 성장한다는 사실은 이러한 대안이 가능할 뿐 아니라 필요하다는 반증이 되기도 한다.[241]

셋째로, 포스트모던이즘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탈이성적인 풍조를 치유하기 위하여 기독교의 합리성을 보다 더 강조하여야 한다는 강경론이다. 진리는 절대적이며 인간은 본질상 이성적 존재로서, 비록 현대인들이 근대성의 기술문화에 지친 나머지 일시적으로 탈이성적인 반동성을 보이지만, 이러한 풍조는 결코 오래 지속될 수 없으며 인류에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근거하여, 기독교가 유일신관에 근거한 절대진리와 절대윤리를 회복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러한 대안이 이성주의적 자유주의로의 복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과 기독교신앙의 조화가운데 성경적인 기독교를 합리적으로 제시하자는 것이다. 기독교윤리운동이나 문화운동, 사회운동, 또는 기독교학문운동 등은 성경적이며 합리적인 절대이론을 추구하고 수호한다는 점에 있어서 이러한 대안과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종교 및 문화현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 한국교회는 시대의 변화와 영적 분위기를 파악하는데 둔감하여 안일한 자세로 구태의연한 관행만을 계속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지금 하나의 새로운 시대에 진입하고 있으며, 새로운 사상적, 문화적, 종교적 변화와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포스트모던시대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의문이지만, 단기간에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며, 그동안 유일신관과 절대진리를 신봉하는 기독교는 시대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위에 제시된 세 가지 대처방안 중에서 종교다원주의의 현실론은 정통적인 기독교에서 수용할 수 없으나, 그 외의

[241] 정일웅, *21세기를 향한 한국 교회와 실천신학* (서울: 여수룬, 1999), 106.

두 가지 방안, 즉 기독교의 종교성과 합리성의 회복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둘 다 보완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242] 기독교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으며 인간성과 신성의 양면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면만 강조되거나 어느 한 면의 결여는 불완전한 복음으로 호소력의 약화를 결과한다. 한편, 포스트모던시대라 할지라도 종교다원주의는 배격되어야 하지만, 한국과 같은 다종교사회에서 타종교와의 적대적 관계를 지양하고 선교적인 차원에서뿐 아니라 신학적인 차원에서도 완전한 무시와 무지보다는 충분한 연구와 적절한 관계가 필요하고 생각된다.[243]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다양한 시대정신과 직면하였으며, 그럴 때마다 성령의 인도아래 적절한 대처방안을 확보하고 존속 발전하여 왔다.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포스트모던시대에도 교회의 순종가운데 성공적인 대응과 발전이 이룩되리라 전망한다.

7. 포스터 모더니즘 시대에서 열린예배가 필요한 이유

이 시대의 예배가 변해야 하는 당위성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날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예배의 본질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면 예배는 갱신되어져야만 한다. 그것이 예배 갱신의 필요성이다.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져야 한다.” 예배 갱신의 필요성은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로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려는 예배의 개혁 정신에 기초한다. 예배의 내용은 각각의 문화나 교회들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담아질 수 있다.

예배 형식은 각각의 문화나 전통들 속에서 변형되기도 하고 나름대로의 틀로 형성되어 간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어떤 예배 형식이 가장 성경의 가르침에 타당한지 물어야만 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은 바로 이것이다.”라고 쉽게 말할 수 있을까? 성경 자체도 여러 가지 예배 양식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교회도 그것들을 종합하거나 시대에 따라 어떤 면을 특별히 강조해 왔다. 그런 의미에서 고정된 그리고 더 이상 변화되지 않는 절대적 예배 형식이란 없다. 우리의 예배 형

[242]김욱동, *포스트모더니즘과 예술* (서울: 청하, 1991), 39.

[243]김성기, *포스트모더니즘과 비판사회과학*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1), 134.

식은 어떤 신학적인 이유보다는 우리의 문화적 배경에 의하여 더 좌우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모든 교파와 교회들에게 자신들이 드리는 예배 형식이 가장 성경적이라고 믿고 싶어 하는 데 있다. 그러나 가장 보편타당한 절대적인 한 형식만의 예배 형식은 없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타당할 수 있는 예배를 성경과 초대교회와 교회의 전통을 통해 찾아 나가야 한다.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는 초신자도 있을 것이고 신앙고백이 아직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도 예배가 의미 있어야 한다면, 그런 예배 형식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내용은 예배 시간과 장소 문제와 연결되어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질서를 온전히 따라 살지 못하는 세상의 삶이 반영되는 예배, 그리하여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창조하는 예배, 그리고 예배를 통해 경험된 하나님의 질서를 세상에 확장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가치구조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살 수밖에 없는 삶을 회개하고 다시 한 번 예배 공동체로 모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해석학적 순환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삶을 예배와 분리시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삶이 곧 예배라는 그리고 삶 자체를 예배의 연장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흐름이 가능한 예배를 위해 등장한 것이 '예배 후 예배'라는 개념이다.[244] '예배 후 예배'(the liturgy after the liturgy)는 1970년대 에큐메니칼 진영에서 교회와 선교의 관계에 대해 토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개념이다. 세계교회협의회 제5차 총회(나이로비, 1975)를 위해 준비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할 것인가?"(Confessing Christ Today) 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약 그리스도의 선교가 본질적으로 세상에 자신을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라면 참된 선교는 궁극적으로 역사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의 실존 질서를 반영하는 교제의 사건 안에서 그 교제의 사건을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교회의 의미는 이를 분명히 증거 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의 실존을 반영하지 못하는 선교는 심각하게 왜곡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신학적 입장은 이후 예배와 삶과의 관계를 더

[244]Ibid., 196.

욱 발전시켰다. 같은 해 발표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교회의 예배를 통해 어떻게 고백할 것인가?”(Confessing Christ through the Liturgical Life of the Church Today)는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인해 줄 뿐 아니라 선교의 방법을 제시하는 장이 된다고 진술했다. 부활하신 예수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예배에서 임재 하신다. 공중예배를 위해 모인 공동체는 예배를 통해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발견한다. 그리스도와의 만남 안에서 경험된 신비가 교회 공동체의 일상의 삶으로 이어질 때 공동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를 선언하면서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다.

예배와 삶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신학은 계속 발전되었으며, 세계 교회협의회 제6차 총회(뱅쿠버, 1983)에서는 “교회는 예배를 위해 모이고, 세상의 삶을 위해 흩어진다. 이 같은 교회를 이루기 위해 ‘예배 후 예배’의 차원이 회복되어야 한다. 세상을 위한 교회의 봉사[선교]는 예배에 그 뿌리를 두어야 한다.”며 예배와 선교의 관계를 강조하였다. 또 제 7차 총회(캔버라, 1991)에 와서는 “예배 공동체는 교회 바깥의 보다 큰 공동제의 모형이 되어야 한다.”고 예배 안에서 공동체가 변화하는 과정과 세상의 변화와의 관계를 강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예배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새롭게 할 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근거를 제공한다는 말로 요약된다.

참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응답’보다 ‘정성을 드림’ 을 지나치게 강조한 예배를 지양해야 한다. ‘드림’ 중심의 여배는 세상을 한한 선교보다는 교회 자체를 위한 전도를 더욱 강조하게 되고 결국은 예배가 선교로 ‘응답’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예배와 삶의 균형을 위해서는 세상의 질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질서 앞에 자신을 드려야 할 뿐 아니라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를 하나님의 질서로 가득한 세상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종교개혁자들이 개혁하려고 한 것은 한마디로 “예배갱신”이라고 할 수 있다. 복음에 합당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예배는 예배와 일상생활에서의 일치를 추구한다. 그 때에 비로소 예배는 공적 진리로서의 가치를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예배의 갱신을 소망하는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개념을 전환하는 일이다. 우리는 예배가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사람이 행위와 희생제

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례전을 통하여 인간에게 다가오시는 것"이라고 하였다.

예배는 하나님의 일(Opus Dei)이다. 그래서 예배 때에 인간은 죄를 고백하고 도움을 청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다. 그 진행 순서와 방향을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 후에 하나님이 구원을 주고 축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불러서 말씀과 성례전으로 깨우치시고 먹이시는 것이다. 그 다음에야 우리의 감사와 찬양이 뒤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는 공로가 아니라 감사이며 섬김이 된다. 이 시대의 교회로서 이 시대를 이끌어 가고 변화시켜 가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뒤쳐져서는 안 된다. 그것은 단순히 기술적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 위에 영적인 힘, 즉 성령이 임재하는 예배가 이 시대의 문화적 도구를 사용할 때 예배를 통하여 이 시대가 변화되어 갈 것이다. 그러기에 젊은이들이 떠나고 없는 현대의 수많은 교회들은 그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것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8.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서 열린예배의 가능성

최근 수 년 동안 교회는 물론 미국과 세계의 여러 교회의 예배에 일어났던 가장 큰 변화는 이른바 '열린예배'의 도입이라 할 수 있다. 몇 몇 교회를 주축으로 도입된 이 예배는 마치 열풍처럼 교회의 전국으로 번져 많은 한국 교회의 예배형식과 예배당의 구조까지 바꾸어버렸다. 열린예배의 근본 취지는 아직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고 친구의 권유 등에 의해 한 번 교회에 나와 본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해 거리감이나 거부감을 느끼지 않게 하고, 예배와 교회에 호감을 가지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열린예배가 전적으로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엄밀하게 따져서 예배라기보다는 전도 집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배를 '하나님의 구속사건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

랑과 은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한 예배학자는 "성경이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은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에 대한 예배,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는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들만이 제대로 드릴 수 있다."고까지 말한다.[245]

그러므로 불신자들이 예배드리기 전에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예배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꼭 예배 참여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들만이 참여한 예배가 참 예배라고 주장해야만 하는가라고 의문을 품는다. 그러면 누가 옳은가? 이 문제를 올바로 풀기 위해서 우리는 열린 예배의 문제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쨌든 최근 한국 교회의 가장 두드러진 예배 갱신의 모습이 열린예배 도입으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교회에서 열린예배를 수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 핵심은 열린예배의 근본동기를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한 수단과 전략으로만 볼 것인가? 아니면 전통적인 예배 양식을 갱신하는 차원에서 보아야 하는 가라는 대립이다. 한 때 한국에서 열린예배가 논의되게 된 배경은 분명 교회성장의 지연과 정체로 인한 교회들의 대안 찾기에 있다. 북미의 성장하는 교회 예배모델을 수용함으로써 교회성장의 정체에 따른 위기 극복의 일환이었던 것이다.[246]

열린예배는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던 교회 예배에 정면으로 도전했고 지금도 논쟁은 끝나지 않았다. 현대문화를 사용하여 복음의 대중화를 이루려는 노력으로 보는 사람들은 열린예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한 반면, 교회와 복음의 세속화로 여겨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다. 열린예배에 대한 정당한 평가 없이 교회성장의 지연과 둔화에 대한 대안으로서만 열린예배를 시도하는 것은 잘못된 이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물론 교회성장이 둔화되고 교인들이 떠나가는 상황에서 교회가 그 대안을 찾아보려는 노력을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만은 없다. 동시에 교회성장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수용되어야 한다는 것도 위험

---

[245]Ed, Dobson. *Seeker Senstive Service, 열린예배 실습 보고서* 박혜영, 김호영 역 (서울: 홍성사, 1998), 121.

[246]정기철, *종말론적 예배, 호남신학대학교 편, 예배란 무엇인가* (서울: 한국 장로교출판사, 2003), 295.

한 생각이다. 열린예배가 예배갱신의 한 방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가? 열린예배가 하나님의 창조사역과 구속 사역을 축하하며 예배의 대상을 올바르게 인식하게 한다면 지금까지의 전통적이라 여겼던 예배 방식과 다르더라도 그 예배를 수용해야 할 것인가? 이 질문의 답은 전통적인 예배 방식이든 새로운 예배 방식이든 그 예배가 과연 성경이 가르친 대로, 그리고 예배의 역사가 발전해온 과정대로 예배의 주체와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배에 참여하는 이들의 응답이 있는지 없는지가 관건일 것이다.[247]

[247]Ibid.,295.

Ⅵ. 연구과제 시행

1. 연구를 위한 동역자 SITE TEAM 구성

찬양팀원은 논문만을 위한 싸이트팀이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 소중한 사람들이었다. 본 논문을 위한 싸이트팀은 다음과 같다. 이소영은 악기팀의 팀장이다. 그녀는 모든 악기 팀원들의 영적인 부분과 삶의 부분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이끌어 가는 앞으로도 만나 보기 힘든 최고의 동역자였다. 나승욱은 찬양팀의 전적인 후원자이며 모든 악기의 수리 및 보관 관리를 담당하였으며 찬양팀 전체의 화합과 사역을 위한 기도의 중보자로 모든 부분을 협조하고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김지회는 싱어팀의 팀장으로 성악을 전공한 그녀는 전문적인 찬양사역자로 싱어팀원의 기초적 발성과 찬양을 위한 여러 실질적 방법들을 교육하며 신앙의 본이 되어 준 훌륭한 리더이다. 마지막으로 홍현진 찬양팀장으로 그는 본인의 찬양 사역에 있어서 가장 큰 도움이 되어주었으며 찬양팀의 여러 부분들을 정착시키며 본 논문을 위해 조언자요 협력자로서의 최고의 힘을 실어 주었다. 위의 4명의 싸이트 팀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이들 싸이트팀은 논문을 위해서 뿐 아니라 교회의 찬양팀 사역과 신앙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과 힘이 되어 주었다.

싸이트팀은 이번 논문을 위하여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찬양팀원들의 팀 구성원으로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을 아끼지 않았다. 싸이트팀은 각기 주어진 자신의 파트장의 위치에서 파트원들의 구체적인 훈련과 신앙적인 훈련을 함께 동반하여 이끌어 주었다. 그들은 논문을 쓰는 3년여 동안의 시간 동안 모든 찬양팀의 훈련에 참여 하였고 교회의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였다. 싸이트팀원의 훈련을 통하여 파트팀의 전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우선은 파트장인 싸이트팀원들이 연습 이전에 많은 시간의 헌신과 서로의 정보의 교환 및 각 파트팀원에 대한 세밀한 상황을 함께 나누어 중보기도하며 부족한 것이 무엇인

지 함께 공조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나누고 실천에 옮기므로 찬양팀 전체의 변화를 그리고 예배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초석을 다지게 되었다.

2. 실질적 파트별 훈련

1) 싱어팀의 실제적 훈련

(1) 표정 관리

사람들은 가장 첫 번째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평가한다. 이것은 사람의 표정이 그 사람의 내면을 알게 해 주는 가장 처음 단계라 말할 수 있다. 그러기에 싱어들은 앞에서 찬양을 하면서 웃는 것 아니면 우는 것 이 두 가지 표정 외에는 없다는 생각으로 임해야 한다. 밥 소르기 목사는 그의 저서에서 “난 노래에 신경쓰느라고 얼굴이 어둡고 무거운 성악 전공자 10명보다. 표정이 밝고 울 줄 아는 한 명의 싱어를 택하겠다.” 라고 말했다. 그것은 그렇다 찬양팀의 싱어는 소리만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표정과 모든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얼굴 표정 하나하나가 예배의 도구가 되는 것이다.

(2) 손들기

예배를 드릴 때 찬양 인도자로 세움을 받은 것은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로 서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므로 창피하거나 쑥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있는 모습으로 손을 드는 것은 어설픈 티가 난다. 보는 사람이 오히려 어색하고 불편해 진다. 그러므로 어정쩡한 손들기는 절대 금물이다. 특히나 여름철에 손을 들 때는 윗옷의 팔소매가 너무 짧아 민감한 곳이 드러나지 않도록 옷을 잘 선정해서 입어야 한다.

(3) 박수치기

박수를 치는 찬양을 할 때 손으로 허벅지나 옆구리를 치는 것은 좋은 습관이 아니다. 박수는 가능하면 크고 시원시원하게 치되, 마이크를 건드려서 북소리를 내지는 말아야 한다. 보통 마이크 잡은 손목을 가격하곤 한다. 단, 어차피 싱어들의 박수는 Audio가 아니라 Video용이므로 너무 세게 쳐서 손목이 시뻘겋게 부어오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4) 노래를 틀렸을 때는 뻔뻔함으로 승부하라

회중들은 싱어들이 가사나 음정을 틀리는 것에 대해 본인만큼 민감하지 않

다. 그런데 싱어들은 자신이 틀린 것에 대해 너무 부끄러워하거나 찬양 도중에 웃는 경우도 보게 된다. 그러므로 스스로 긁어 부스럼 만드는 일이 있다. 싱어들은 조금은 뻔뻔하게 안 틀린 척 하고, 자꾸 틀리면 무릎 꿇고 기도 한다. 때로 모니터 화면이 보이지 않거나, 인도자가 완전히 헤매고, 연주팀이 악기 연주를 틀리게 하고 있을지라도 웃거나 티를 내지 않고, 아주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예배자의 모습으로 밀고 나가야 한다. 또한 자신이 연습을 게을리 하거나 잘되지 않아서 가사나 곡을 모를 때는 스스로 자중하는 것이 필요하나.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상황이나 인도자의 요청이 있을 시엔 성숙하고 연습된 뻔뻔함이 필요하다.

(5) 마이크 거리

싱어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마이크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마이크를 사용할 때는 마이크와 입 사이에 주먹하나 이내로 하되 입 안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보통 싱어들이 사용하는 마이크는 주먹 하나이상 떨어지면 아무소리도 들어가지 않는다. 무조건 그 안에서 불러야 한다. 목소리가 영 자신이 없어도 일단 그 거리 안에다 마이크를 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마이크 잡은 의미가 전혀 없다. 마이크를 주먹하나 이상 떼고 부르면 자신이 싱어로 사역하는 것에 대하여 스스로 자기 소외감을 만들 수도 있다. 마이크를 쥘 때 너무 위로 쥐어서 머리 부분을 감싸버리면 하울링이 생기고, 또 너무 아래를 잡으면 보는 사람이 불안하다. 또 교수처럼 마이크를 가슴에 평행하게 세워서 대거나, 가수처럼 마이크의 꼬리를 머리보다 더 높이 드는 것은 회중들에게 쓸데없는 관심을 유발하는 계기를 제공하기도 한다. 굳이 이런 것 까지 Guide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가도, 이런 작은 부분 하나가 생각보다 크게 작용하는 것이 사역 현장이기 때문에 작은 부분까지도 영적으로 민감해야 한다.

(6) 합심기도 또는 통성기도를 할 때

주먹하나의 거리로 힘을 다해서 함께 기도를 드린다. 보통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다보면 합심기도 할 기회가 2-3번은 있다. 이 때 싱어들은 자신이 들고 있는 마이크를 내려놓지 말고, 또 너무 가깝게 대지도 말고, 주먹 하나 정도의 거리에 놓고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합심기도에 가장 효과적인 모습이 된다. 회중들 가운데는 자신의 기도 소리가 들리는 것을 주저하는 이들이

있다. 그들은 조용할 때 오히려 입을 열어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찬양을 인도하는 이들은 이러한 세밀한 관심을 모든 회중에게 두어야 한다.

(7) 화음

약속한 화음 이외는 인도자의 공간으로 간주한다. 가끔씩은 전통적으로 화음이 강한 몇몇 사역단체들을 보면 그들의 사역처럼 되고 싶어 하는 모습들이 있지만, 연습되지 않고 약속되지 않은 화음보다는 한음의 멜로디가 집회 찬양에서는 훨씬 효과적임을 본다. 그래서 약속한 화음 이외에는 인도자에게 공간을 편하게 내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이 원칙은 반드시 모든 싱어들이 반드시 지켜야 한다.[248] 이것을 지키는 것은 찬양을 드리는 시간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작은 부분까지도 절제케 하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다.

(8) 노래하지 않고 있을 때

싱어들은 노래하지 않고 있을 때 더 눈에 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책도 있듯이, 싱어들은 노래하지 않고 있을 때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전주, 간주, 곡 중 악기 솔로, 인도자의 멘트나 기도제목 선포할 때 싱어들은 멍하니 하늘을 보거나, 시계를 들여다보고, 손수건을 꺼내서 땀을 닦고, 옷매무새를 만지지 말고 오히려 더 예배에 집중해야 한다. 노래하는 시간을 위한 자들이 아니라 예배를 위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배자란 인식이 싱어들에게 있어야 한다.

(9) 모니터의 볼륨

내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고 불평불만 하는 싱어들이 있다. 많은 싱어들이 아닌 척 하면서 가장 많이 상처받고 시험 드는 영역이 바로 모니터 스피커를 통한 내 마이크 볼륨의 크기이다. 분명히 테스트 할 때는 마이크가 나왔는데, 실제 예배가 시작되고 모니터 스피커에서 내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면 아주 정상적인 상태이다. 모니터 스피커에서 내 목소리가 시원시원하게 들린다면, 이미 예배인도자가 바뀐 상태일 것이다. 의도된 솔로파트가 아닌 이상. 또 인도자가 지정한 전체 싱어 보이스를 끌고 갈 메인 보컬이 아닌 이상 모니터 스피커에서 내 소리가 시원

[248]Robert, G. Rayburn, *예배학,* 김달생 & 강귀봉 공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2), 142.

하게 뽑아지지 않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는 상황이 아니다. 그냥 나올 줄 믿고 연습한 대로 최선을 다해 부르는 것이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된다.[249]

2) 악기팀의 실제적 훈련

찬양팀인 만큼 음악적인 훈련을 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영적인 것에 더 막중한 무게를 두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교회 찬양팀들이 음악적인 훈련을 한다고 하면 성스럽지 못한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다, 절대 그렇지 않다. 음악이라는 것은 아주 좋은 도구다.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음악은 예배를 드리는데 중요하고도 필요한 도구다. 음악적인 훈련을 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은 참 잘하신 것이라 생각이 든다. 매주 준비도 없이 즉석에서 은혜로 때우는 반주는 이제 그만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 생각한다.[250] 우선 연습을 시작하시기 전 서로 잘 섬기기로 다짐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면 하나의 팀이기 때문이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서로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기로 약속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드릴 것을 함께 모여 준비하는 시간인 만큼, 시간이 정해지면 그 시간에는 다른 약속이 생기더라도 훈련모임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시간엄수는 팀워크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251] 누군 일찍 나오고 누군 늦게 나오면 열정을 가진 사람들까지도 힘이 빠지고 지치게 마련이다. 시간엄수가 섬김의 기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항상 모임 시간에 대해 소중히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은 음악적인 훈련이다. 팀원들이 평소에 연습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그렇지 않다면 기초부터 하나씩 세심하게 점검해 가야 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평소에 기능연습을 하도록 과제를 주시는 것도 좋은 훈련방법 중에 하나다. 그냥 과제를 주시는 것으로만 끝내지 말고, 간단하게 라도 모임 가운데 서로 꼭 점검하고 나누어야 한다. 그 다음 기초화성학을 같이 공부할 것을 권하고 싶

249조태현, *열린예배 기획. 웍샵* (서울: 도서출판 예루살렘, 1998), 121.

250문희곤, *예배는 콘서트가 아닙니다* (서울: 도서출판 예수전도단, 2009), 198.

251조계광, *참된 예배를 회복하라*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2), 175.

다. 건반 뿐 아니라 드럼 베이스도 마찬가지이다. 연주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에 다른 악기들과 좋은 어울림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 다음은 음악을 듣고 모방해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마커스 1집에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연습한다면, 개인별로 그 곡을 계속 반복해서 들으며 전체적인 곡의 분위기나 스타일을 익힌 후 각자의 파트를 구분해서(피아노는 피아노를, 드럼은 드럼을 듣는다) 집중적으로 듣는다. 가능하다면 음을 가능한 만큼 숙지해서 오는 것이 좋다.

그래서 연습 때 모여서 연주해 보는 것이다. 분명히 틀어지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러한 경우 다시 곡을 들어보고 자신이 잘못한 곳을 스스로 체크해 보도록 한다. 그리고 다시 합주를 해 본다.[252] 처음부터 완벽하게 되기는 힘들 것이다. 아무리 같은 음을 딴다 해도 치는 사람의 스타일까지 똑같이 하기란 보통 힘든 게 아니다. 같은 곡을 같은 악보를 보고 연주해도 다 다른 이유가 그것이다. 앨범을 낼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실력을 가지고 있는 팀이라 보여 진다. 그래서 악기의 기교까지도 세심하게 모방해보는 것도 좋은 훈련방법 중에 하나다.

드럼은 리듬의 강, 약박 표현과 정확한 템포 연주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된다. 화려한 인트로에 중점을 두기보다 기본에 충실하셔야 발전할 수 있다. 드럼은 스틱연습 꾸준히 해야 한다. 흔히 스냅이라고 한다. 스틱이 드럼에 어떻게 닿아서 소리를 내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왼손 오른손 균등한 힘을 분배하셔서 하는 것이 좋다. 대부분 오른손잡이인 경우가 많아서 왼손이 둔한 것이 보통인데, 그런 경우 오른손보다 왼손에 더 신경을 써서 연습을 해야 한다. 어떤 이들은 그것 때문에 오른손으로 하던 모든 것들을 왼손으로 바꿔서 하는 사람도 있다. 실제로 큰 효과가 있다. 그리고 메트로놈을 구입하여 아주 느린 템포부터 시작하여 빠른 템포로 정확하게 맞춰 치는 것을 연습해야 한다. 이런 연습을 한 후에 리듬연습을 해야 발전이 있다. 가장 단순한 리듬부터 템포에 맞춰(느린-빠른) 연습 후에 점차 복잡하고 까다로운 리듬을 익혀야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발전가능이 있다.[253] 물론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끝까지 하겠다는 각오와 꾸

---

[252]Sally Morgenthaler, *이것이 예배다,* 임하나 역 (서울: 하늘 사다리, 1998), 142.

[253]Jamews F. White, *예배의 역사,* 정장복 역 (서울: 쿰란 출판사, 1997), 136.

준히 끈기를 가져야 할 수 있다. 드럼 조율하는 법도 공부하면 더욱 좋다. 두드러지게 드러나진 않지만, 탐탐마다 음의 차이가 있다. 정확한 음이 있다. 일반적으로 드럼은 조율이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아주 정확한 조율을 위해서 메인악기에 맞춰 조율하기도 한다. 정확한 조율이 밑바탕이 되면 음악이 더 조화롭게 된다.

베이스는 드럼과 비슷한 역할이 많지만, 드럼과 달리 정확한 음이 들리기 때문에 다른 화성 악기와 리듬악기를 연결시켜주고, 음악에 활기를 넣어주는 그야말로 밑바탕이 되는 중요한 악기다.[254] 중점을 두어야 하는 부분은 드럼과 같다, 베이스는 정확한 음을 내는 운지법을 시작으로 리듬을 익혀야 하는 것이 조금 다르다. 그리고 현을 다양하게 사용하는 방법도 공부하면 더 많은 도움이 된다. 다양한 방법들을 익히고 개발하면 더 창조적인 연주가 가능해 진다.

건반은 파트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인 것은 바로 터치연습이다. 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소리가 아주 많이 달라진다. 다양한 터치를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곡의 느낌을 살리는 데는 기교보다 오히려 터치가 훨씬 많은 영향이 있다. 같은 악보를 연주해도 누가 어떻게 치느냐에 따라서 너무도 확연한 차이가 난다는 것은 연주자들이 더 잘 알 것이다. 신디로 피아노 소리를 내긴 그나마 쉽지만, 신디로 금관악기나 목관소리를 제대로 내는 것은 힘들다. 기본은 최대한 그 악기에 가까운 소리를 내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트럼펫 같은 금관악기라고 한다면 부는 길이와 세기에 따라 소리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건반에서 최대한 유사하게 재현하는 것을 공부해야 한다는 것이다.[255] 그와 동시에 사용할 각 악기별로 사용하는 연주 방법들을 익혀야 한다. 예를 들어 현악합주(스트링계열)이라면 현을 튕기는 주법(피치카토)이라던가, 한 현을 반복적으로 빠르게 소리 내준다든가(트레몰로)하는 것들과, 단음연주 패턴 화음연주패턴들 같은 것을 말한다. 그런 효과를 내는 것들이 볼륨과 피치밴드휠(막대모양도 있음)을 어떻게 움직여 주는가 하는 것과 터치에 따라 다양한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리고

[254]조계광, *참된 예배를 회복하라*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2), 124.

[255]김병삼, *열린예배? 현대예배!* (서울: 도서출판 프리셉트, 2000), 155.

건반팀은 특히 청음 훈련을 열심히 해야 한다. 악보 없이도 언제든지 바로 연주할 수 있도록, 또한 변조해도 끄떡없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특히 메인반주자는 더욱 그렇다. 메인 반주자는 음악의 기술적인 부분 외에도 예배리더의 사인을 잘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한다. 노래하지 않아도 계속 반주가 필요한 상황인데, 끊겨버린다면 어떨지는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즉 그 무엇보다 영적인 흐름을 잘 읽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전체적인 공통점은 전주나 중주 후주 등 악기만 연주하는 부분은 볼륨이 커도 되지만 너무 크면 문제가 된다. 노래와 같이 하는 부분들은 볼륨이 줄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곡 진행 중 튀어야 하는 세션은 그 부분이 분명히 소리가 나도록 민첩하게 음량을 조절하는 센스도 필요하다. 그리고 곡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점점 소리가 크게 나와야 하는 부분인데, 점점 줄어든다면 이상할 것이다. 같은 곡을 연주해도 느낌 있게 연주하는 것과 그냥 막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와 예배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리더의 요구에 따라 민첩하게 순종함으로 반응해야 한다. 찬양팀들은 서로가 동역자로 인정해야 한다. 찬양팀은 서로가 인정하지 않으면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256] 찬양 중에 리더가 느리게 하자는 사인을 사전 예고 없이 하더라도 순종하는 것이 좋다. 물론 조금 당황은 되겠지만, 예배의 흐름을 깨지 않는 것이 좋다. 인도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예배가운데 임하시는 것임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철저한 순종함으로 하면 된다. 그것에 불만이 있다면 예배가 끝나고 피드백하면서 나눠도 될 것이다. 피드백 얘기가 나와서 말이지만, 예배를 마친 뒤 꼭 서로 그 날 예배에 대서 좋았던 점과 개선해야 될 점과 건의할 것들을 나누기를 권하고 싶다. 누가 잘했네, 잘못했네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예배환경과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예배의 더 좋은 도구로 만들어가기 위해 나누는 것이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날 했던 찬양들의 녹음을 해서 들어보는 것도 영적흐름이나 음악적인 흐름과 개선점들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교재가 될 것이다.[257] 음악적으로 준비되면 준비될수록 예배에 힘을 더해 줄 수 있는 동시에, 악기

[256]문희곤, *예배는 콘서트가 아닙니다* (서울: 도서출판 예수전도단, 2009), 156.

팀도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다. 그리고 준비하지 않는 것은 회중들을 무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찬양팀은 예배자인 동시에 예배 가운데 섬기는 자인데, 영적으로 음악적으로 준비 안하는 예배팀이 지체들을 공동체를 제대로 섬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제 연습안하는 걸 은혜로 간주해 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자신이 즐겁기 위해 음악을 하는 사람들 연습하는 거 보았는가? 음악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니어도 마찬가지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른다. 매일 귀에 이어폰 꽂고 다니면서 한곡을 수십 수백 번 듣기도 하고, 한곡을 완벽하게 연습하기 위해 한 주에 몇 번씩이고 모여서 몇 달을 투자하기도 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위해 선 사람들이다.[258] 그들처럼 많은 시간을 투자하진 못할지라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더 좋은 것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259] 그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더 좋은 것으로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을 것이다. 직접 만나서 연습할 시간이 좀 부족하더라도, 다른 방볍들을 생각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하고자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열정이다. 그것만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다.

3. 찬양팀 수련회

찬양팀의 수련회는 년 2회를 하도록 한다. 수련회 필요성은 절대적이라 말할 수 있다. 수련회의 기간 동안 팀워크를 이루어 가는 것에 많은 중점을 둔다. 교회에서의 사역만으로는 팀사역의 좋은 효과를 거두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과감한 결단과 교회 재정의 보조가 필요하다. 한무리교회에서는 재정의 보조와 각 회원들의 회비를 거두어 수련회를 다녀왔다. 이번 수련회를 다녀 온 것은 지금까지의 한무리 찬양팀의 사역 가운데 가장 많은 결과를 보여 주었다. 수련회에 관한 내용은 부록에 첨부하였다. [260] 부록1을 참조한다.

[257]이연길, *말씀목회 패러다임* (서울: 쿰란출판사, 2002), 117.

[258]정장복, *예배학 개론* (서울: 종로서적, 1997), 210.

[259]박기순, *인간, 매체, 커뮤니케이션*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0), 165.

4. 열린예배 기획 및 Que - Sheet 만들기

열린예배를 위해서는 모든 파트들과 준비팀들이 정확한 기획과 스케줄에 맞추어 진행 되어야 한다. 수련회 기간 동안 각팀장들이 모여 함께 Que - Sheet을 만들었다.[261] 부록2를 참조한다.

5. 연구반원 세미나

본 논문을 위한 연구반원은 전원이 찬양팀원이다. 그러므로 연구반원을 위한 세미나의 주제들은 실질적 사역을 위한 것을 다루었다. 그것은 본 논문의 앞부분에서 다룬 내용을 통하여 예배의 역사적 변천과 예배의 의미와 목적 열린예배와 포스트모더니즘과의 관계 그리고 열린예배를 드릴 때 주의해야 할 점과 개선해야 할 부분들을 함께 나누었다. 그 주제들로 1, 2, 3차에 나누어 세미나를 진행했다.

표 - 2

기 간	연 구 활 동	강 의 내 용	비 고
9월 24일 토요일	1차 세미나	1.예배의 의미? 2.예배의 목적? 3.예배의 대상? 4.열린예배는 무엇인가? 5.열린예배의 특징?	
10월 22일 토요일	2차 세미나	6.구약시대의 예배 7.신약시대의 예배 8.현대의 예배 9.심리학과 회심 10.회심의 과정	
11월 26일 토요일	3차 세미나	11.포스트모더니즘이란? 12.포스트모더니즘과 열린예배 13.열린예배의 주의할 점. 문제점 14.각팀별 훈련 15.열린예배 기획안 작성	

260부록1 참조

261부록2 참조

6. 열린예배를 위한 회의

1) 기획 회의

기획 회의에 참석하는 인원은 교회의 상황에 따라 변경 조절 될 수 있다. 보통 이 회의에는 열린예배 때 설교 할 목회자와 예배 기획자가 회의에 참석한다. 또한 기술팀장이 참석 한다.[262] 기획 회의 때에는 주로 ‘ 목표와 콘셉트(Concept)’에 대해서 다루어진다. 이 회의에서는 목회자가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또한 그 상황에 따른 모든 구성원과 프로그램의 주제가 될 컨셉을 세운다. 여기서 목회자는 목표를 세울 때 그 목표의 주제가 될 성구를 준비한다. 먼저 말씀을 통하여 목표가 세워져야 한다. 이러한 것은 출애굽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연상하면 될 것이다. 간단한 목표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이번 열린예배의 참석자 중 50%가 주일 예배의 참석을 한다.

2) 이번 열린예배에 대한 설문 조사 시 예배자의 교회에 대한 호감도가 80% 이상 되어진다.

3) 이번 열린예배에서 선포되는 메시지의 이해도가 80%가 된다.

4) 이번 열린예배의 참석 가운데 새로운 인원은 100명이 될 것이다.

5) 이번 열린예배의 참석자들 가운데 70%가 주님을 영접할 것이다.

이러한 정량적 목표와 전략적 목표들을 세워 프로그램을 세워 나간다.

기획서의 구조를 살펴본다.

표 - 3

기 획 서 구 조	
1. 표지 2. 목차 3. 기획 개요 4. 상황 분석 ① 환경 분석 ② 문제 분석 5. 예배 계획 ① 정성적 목표 수립 ② 정량적 목표 수립	③ 예배 콘셉트 설정 ④ 예배 대상자 선정 및 분석 6. 프로그램 계획 7. 행사 기획 스케줄 8. 예배 기획 스케줄 9. Cue - Sheet 10. 예산 계획

262조태현, *열린예배 기획. 웍샵* (서울: 도서출판 예루살렘, 1998), 183.

2) 프로그램 회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프로그램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다룬다. 인원의 파악, 예산 설정, 프로그램 설정 및 구성을 다룬다. 또한 여기서는 각 파트의 담당자들을 세운다.[263]

음악 담당/ 무대 담당/ Set 담당/ 안무 담당/ 조명 담당/ 의상 담당/분장 담당/ 음향 담당/ 효과 담당/ 소품 담당/ 새신자 담당/ 등 교회에서 상황에 따라 필요한 각 파트를 더 만들 수 있다. 그 후에 프로듀서는 각 파트장 회의에서 예배의 콘셉트와 목표를 설명해 준다. 또한 담임목회자와 담당 목회자의 점검을 받은 프로그램에 해당 되는 자료들을 함께 숙지한다.

3) 최종회의

최종회의에서는 각 리허설을 보면서 그 순간마다 고쳐 나가는 수정과 보완을 함께 하는 회의라고 할 수 있다. 이때는 목회자의 참석을 필히 요구 한다. 전체 프로그램과 각 프로그램의 시간을 측정하고 시간 배분이 전체 예배 시간에 적합한지를 체크한다. 프로그램의 종류가 너무 많은지 예배의 전체 목표와 하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프로그램들 사이의 연계성은 적절한지 확인 한다. 프로그램의 숫자가 4개 이상이 되어 지면 예배 참석자들의 집중도가 저하된다. 그렇게 되면 설교에 있어서 좋은 기대를 하기 어렵다. 열린예배에서는 3차 리허설을 통해 철저한 점검을 해야 한다.

1차 리허설 - 프로그램의 연계성 확인
각 프로그램의 시간 배분 확인

2차 리허설 - 메시지 전달성
프로그램의 세부 완성도

3차 리허설 - 객관적 평가 및 최종 보완을 통해 실수가 없도록 한다.

263하정완. *열린예배 매뉴얼* (서울: 나눔사, 2006), 155.

각 리허설에서는 각 파트별 점검도 함께 해야만 한다.

4) 평가회의

열린예배가 끝나고 나면 다음과 같은 평가들이 있어야 한다.

정량적인 목표 및 평가

정성적인 목표 및 평가

행사 콘셉트에 대한 평가

이번 예배에서 부족했던 것

이번 예배에서 좋았던 것

이러한 간단한 질문들을 통해 예배 후 점검을 한다면 더 좋은 예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264]

열린예배 참석자들을 위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부록3 참조)

위의 7가지 설문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수집하였다.

표 - 4

	25이하	25세	26세	27세	28세	29세	30세	30이상
전체 분포	20	60	40	30	50	60	20	20
남 자	10	26	14	6	10	16	8	10
여 자	10	34	26	24	40	44	12	10

최초로 교회에 나가 것은?

대학(50) 중학교(40) 직장(40) 초등학교(20) 고등학교(150)

어떻게 교회에 나갔는가?

스스로(40) 전도지(10) 기타(30) 친구를 통해서(200)

264조영엽, *왜 열린예배는 잘못 되었는가?* (서울: 미스바, 2001), 133.

처음 교회에 나간 동기?

궁금해서(45) 마음의 외로워서(30) 죄책감 때문(25) 좋은 만남(20)

심심함(18) 새로운 삶(17) 무서워서(5) 강한 권유(60) 종교의 필요성(60)

지금 왜 교회에 나가지 않는가?

나와 맞지 않는다(50) 마음을 더 무겁게 한다(40) 도움이 안 된다(30)

주변의 반대(30) 교회가 말하는 죄를 계속 짓기 때문(30)

너무 이기적인 것이 싫어서(10) 시간이 없어서(100)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궁금한 것은?

구원과 심판(90) 기독교의 당위성(40) 예수님(50) 교회의 재정(20)

성경의 진실성(100)

위의 설문지에 대한 자료들을 통하여 프로그램과 콘셉트 및 기획을 세워 나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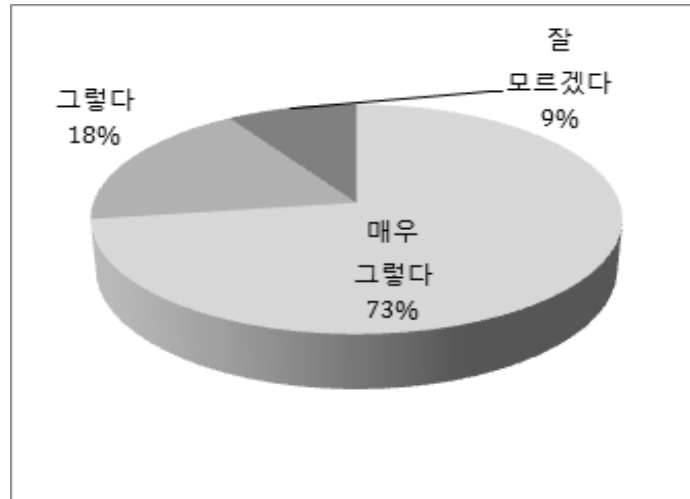
Ⅶ. 연구과제 평가

1. 연구반원 개인의 변화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반원은 평균 나이가 32세 정도의 젊은 층이었으며 그들은 10년 이상의 찬양 사역을 했던 경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들은 기존의 이민교회의 한국적 형식의 예배에 익숙하면서도, 변화에 민감한 세대라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내의 각 분야에서 봉사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한 목회의 중심에 위치해 있는 이들이다. 이들은 모두 이번 연구과제 수행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하여 함께 함으로 교회의 변화 뿐 아니라 개인신앙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이들은 다음에 언급한 설문조사에도 참여했다. 설문조사의 내용을 토대로 결과를 도출해 보면, 설문조사를 통해 드러난 변화의 평균치를 웃돌고 있다. 특히 그들은 예배자로서의 개인의 신앙발전이 두드러졌음을 알 수 있다. 교회의 공적인 예배 뿐 아니라 개인의 삶이 이전에 비해 하나님과 밀접해 졌음을 알 수 있다.

1) 설문조사 분석 내용

본 연구가 진행되었던 교회는 전체 교인에 대한 20-40의 연령층을 비율이 80% 정도였다. 그러기에 본 연구반원의 연령대는 20대에서 40대가 100%를 차지한다. 교회는 항상 현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교회의 구성원들 중 20대에서 40대를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들에 대한 효과적인 열린예배의 적용이 곧 교회가 지향해야할 방향이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들은 차기 한무리 교회의 영적지도자 될 대상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예배의식 변화와 재정립은 교회가 효과적인 열린예배를 이루기 위한 대상이 되는 것이다. 본 연구 과제수행에서는 3번의 세미나를 개최했음을 밝혔다. 세미나는 전문적 사역을 요구하는 연구반이 대상이었으며, 1, 2, 3차에 이들은 모두 참석을 했다.

표 - 5

논문자는 설문조사를 통해 찬양팀의 필요성에 관하여 질문을 했다. 신자들은 잘 훈련된 찬양팀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었다. 찬양팀의 필요성에 대해 ‘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이 73%, ‘필요하다’는 응답이 무려 전체의 91%에 해당한다. 찬양팀에 속해 사역을 하는 이들 뿐 아니라 찬양팀에 속해 있지 않은 이들도 찬양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공감을 하고 있었다. 예배 속에서 훈련된 찬양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현대예배에는 다양한 준비가 요구되고 있다.

음향, 방송, 영상 등 이전에 없던 새로운 기기들의 운용이 예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기기들이 예배 속에서 적절히 운용이 될 때 비로소 예배에 참여한 이들의 만족감이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찬양팀의 필요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자들 중에는 예배팀의 매끄럽지 못한 진행으로 인해 예배를 방해 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들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들은 찬양팀이 아니더라도 찬양팀의 중요성을 경험을 통해 실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찬양팀의 교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찬양팀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에 대한 물음에 73%가 필요함을 느끼고 있었다.

찬양팀은 문화적인 변화의 요소에 민감하다. 이는 찬양, 방송, 영상 등 당시대의 문화에 민감한 요소들이 예배의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회적인 교육으로 찬양팀의 교육이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찬양팀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계속해서 발전 변화하는 문화적 요소가 예배 속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끊임없이 훈련을 하고, 교육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찬양팀 교육과 훈련은 실재 찬양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들이 더욱 훈련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다.

이유는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들에게 대해 보다 효과적인 대처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며, 보다 효과적인 사역의 준비를 원하기 때문이다. 한인이민교회의 특성상 예배형태와 내용에 변화는 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많은 한인이민교회들이 한국교회의 7, 80년대 예배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교회의 결정으로 변화된 예배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변화된 예배에 적응하는 정도에 대해 질문을 했다. 예상과는 달리 상당히 변화에 상당히 긍정적이었다. 전체의 73%가 적응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적응이 쉬웠다는 응답이 전체 91%에 이르렀다. 물론 주일예배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수요예배와 토요 새벽예배 등 많은 예배에서 열린예배의 적응력을 키운 결과이다.

본 연구가 목적으로 하는 열린예배의 시대적인 역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배자로 하여금 교회 안에서 만의 예배의 참여가 예배의 전부가 아닌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게 하였다. 또한 구도자인 그들로 하여금 기존의 예배의 형태에서 찬양이나 문화적 요소들이 첨가되어 변화된 예배가 구도자들인 그들에게 심적인 부분에 영향을 주었음을 보았다.

구도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게 하는 특징 중 하나는 찬양이다. 90년대 이후 교계를 강타한 경배와 찬양과 같은 집회 스타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찬양의 내용이다. 앞서 언급을 한 것처럼 찬양에서의 변화는 곡의 선정의 변화다. 찬송가인가, 아닌가에 기준을 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사랑을 예배자로 하여금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는 것인가가 바로 기준이다. 대표기도에 앞서 약25분간 함께 부르는 찬양은 예배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위대하심을 경배하며, 한없는 사랑에 감격하게 만든다. 예배형태의 변화에 상관없이 찬양의 변화는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로 하여금 예배 속에서 이전 보다 더 하나님을 경험 할 수 있는 바탕을 제공해 준다고 말하고 있다. 주후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교회성장은 정체기에 들어섰

다. 교회들마다 성장의 돌파구를 찾기에 여념이 없다. 한국교회의 모습을 닮아가는 이민교회는 그보다 더욱 심각한 모습을 보게 된다. 그로 인해 성도들의 수평이동도 증가하고 있다. 수평이동의 성도들은 대부분 교회를 겉도는 이들이 많다. 그들은 교회의 예배의 형태와 교회의 싸이즈 및 일차원적인 모습으로 인한 결과 때문에 영적인 부분은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교회를 떠나 버리고 만다. 그들은 자신들이 구도자인줄 모른다.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도 모른다. 열린예배는 그러한 이들에게 무엇인가를 던져 주어야 하는 목적을 이루었다.

구도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는 예배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고, 구도자들로 변화되어 또 다른 구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구령의 열정을 갖게 한다.

2) 연구과제 수행의 한계

이제까지 설문조사에 대해 분석한 내용을 요약하면 '시대적 역할을 감당하는 열린예배'는 구도자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을 경험케 하며, 그들로 교회 안에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가도록 해야 하는 목적이 있다. 그러나 그에 따르는 수많은 사역자들이 필요하다. 그러기에 이 논문은 구도자들을 위한 논문이 아니라 구도자들을 위한 사역자들을 세우는 데 목적이 있다. 열린예배를 위해 사역자들로 예배의 삶으로의 연장과 훈련과 세미나를 통한 사역자들의 신앙의 성장, 그리고 개인의 사역자로서의 자질 향상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것만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이와 함께 전문적인 교육이 병행되어야 하고, 각기 열린예배에 필요한 전문팀이 구성되어야 한다. 사역자들을 세우는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로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게 돕는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몇 가지 한계가 있었다. 먼저는 연구자의 위치다. 본 연구자는 연구가 진행된 교회의 부목회자로서 예배와 찬양팀을 담당하고 있다. 교회 예배의 형태 변화의 결정에 한계가 있어 보다 다양한 적용을 하지 못했다. 두 번째는 문제의 발견과 새로운 도전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지만 그에 대한 결정의 과정이 복잡하고 쉽지가 않다. 또한 예배자의 사역으로 찬양팀을 훈련하고 준비했지만 교회의 여러 사역을 중복으로 인해 예배자의 사역이 차선으로 밀려나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본 논자가 교회 내에서 결정하고 진행 할 수 있는 분야

가 아니기에 전체적인 적용점을 찾지 못한 것이 본 연구의 한계이다.

3) 연구과제 수행 이후의 변화

(1) 개인 신앙의 변화

사역자들은 예배와 생활의 밀접함이 회복되면서, 곧 예배는 예배이고 삶은 삶이었던 그들의 삶이 바뀌어졌다. 예배와 삶이 유기적인 관계를 갖게 된다. 일상이 거룩한 예배로 바뀌게 된다. 본 연구에 참여한 이들의 개인적인 신앙의 변화에 가장 두드러진 것은 예배에 대한 의식변화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제 그들은 예배에 단순히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참석하던 것이 사모함과 갈급함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로 인해 예배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과의 교제 즉 예배 커뮤니케이션이 그들의 사역인 열린예배에서 나타나며 삶에서 열매를 맺으므로 삶의 현장으로까지 확대되어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인 신앙의 변화를 통해 본 연구가 추구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사라지는 이 시대에 예배자로서 구도자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를 이루는 사역자들로 세워졌다.

(2) 교회 성장에 미친 영향

본 연구를 통해 한무리교회의 성장에 미친 영향을 자료를 통해 증명하기에는 표현할 방법이 제한되어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럼에도 몇 가지 결과를 연구의 내용을 바탕으로 예측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예배 사역자들의 개인적인 변화이다. 물론 이에 대해 구체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훈련과 교육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대다수의 예배자들의 마음에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전 보다 더해 졌다는 것은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예배의 변화이다. 수평이동이 많은 이민교회의 특성상 많은 이들이 진부하지 않은 무엇인가를 요구한다. 이에 새로운 형태의 예배와 그 예배 속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감흥은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새로운 신자들인 구도자들이 예배에 참여 하였을 때 그들에게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좀 더 쉽게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도움으로 새신자들의 교회 정착률이 90%의 변화를 갖게 되었다. 이것은 의식의 단순화로 처음 교회를 찾은 이들에게도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교회의 양적성장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논문을 통하여 열린예배의 구체적 장점을 언급한다면 다음과 같다. 한무리교회에서 열린예배를 시행 했을 때 교회 전반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먼저 예배의 모든 준비와 순서들이 일반 성도들보다 먼저 구도자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일체의 기독교적 상징이나 용어의 사용을 자제함으로 구도자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느낄 수 있는 낯선 감정과 불편함을 최대한 제거하려고 노력함으로 안정감을 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기존의 많은 교회들은 예배의 전부가 기존 성도들을 위한 예배이다. 그러나 열린예배는 교회를 찾는 구도자들을 위한 예배이다. 한무리 교회에서 열린예배의 시행은 교회의 전도의 측면에 효과가 있으며 시대에 적합한 복음 전도의 방식으로 고안된 예배라는 것이다. 비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인상을 불식시킴으로써 교회에 자유롭게 드나드는 분위기를 연출해 낼 수 있음과 동시에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열린예배는 예배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양육과 제자화라는 그리스도인을 위한 노정의 한 단계라는 전략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예배를 구도자들의 문화에 맞추어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되도록 하는 노력이다. 구도자들의 음악과 문화에 맞추어 세심하게 배려함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설교 메시지의 내용과 주제도 역시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다는 것으로 한다는 것이다. 즉 교회가 터부시하던 세상의 문화를 도구로 사용하여 예배에 접목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예배당 건물의 외관이나 또는 내부를 구도자들의 취향에 맞게 설정하고 매번 예배에서 드라마를 보여준다든지 또는 멀티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은 모두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열린예배는 한무리교회 성장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배의 중심성과 중요성의 강조이다. 전통의 예배에서도 예배는 최우선의 자리에 있으나 구도자 예배는 예배 인도자와 순서를 맡은 이는 물론이고 예배의 참여자까지 따로 예배를 위한 준비 기도회를 가지면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 간절히 간구하는 모습은 기존 예배에서 회복되어야 할 모습이다.

4) 한국교회와 미이민교회 내에서의 열린예배의 긍정적 평가

위의 열린예배의 장점에 덧붙여 한국교회와 미이민교회 내에서의 열린예배의 성과는 그 지역적 특성과 연관시켜 볼 수 있으나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

을 말할 수 있다.

첫째, 한국교회와 미이민교회는 1980년 후반부터 시작한 교회 성장의 정체현상의 주원인인 청장년층을 만나려는 시도로 결국 교회들의 변화에 대한 필요성에 동기를 제공했다는 점이다. 미국에 이민 온 그 년도의 신앙과 기독교 문화에 고정되어 있는 듯한 이민교회의 모습들을 보게 된다. 새로운 것에 대한 부정적 관점과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 올 수 없는 지난날들의 올무가 새로운 것을 향한 것을 막고 있었다. 그러나 열린예배는 그러한 이들의 문제점을 인정해 주면서 동시대적인 기독교문화를 접목하여 그들로 기독교의 신앙을 예배를 통하여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데 성과를 얻어 내었다.

둘째, 한무리 교회에서의 열린예배는 말 그대로 한국교회와 미이민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열린 생각과 열린 목회의 가능성을 갖도록 지평을 열었다는 것이다.

폐쇄되어진 기독교문화, 구분이 아닌 구별을 지켰어야 하는 기독교 문화는 하위문화로 전락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구분을 고수했던 기독교 역사를 둘 수 있다. 결국 중세시대에는 암흑기라 할 정도로 신앙의 쇠퇴기를 지나왔다. 그러나 지금의 기독교의 모습은 제 2의 암흑기를 향하여 가고 있다. 한무리의 열린예배는 기독교 문화와 일반적 문화를 접목하여 방법론적인 변화를 만들어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기독교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었다.

셋째, 사역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열린예배는 많은 준비된 사람들이 필요한데 특히 음악이 많이 사용되므로 찬양을 할 수 있는 성악 담당자, 악기 연주자, 최대의 조화를 맞추어 가는 기획자, 음향기기와 조명 담당자가 필요하다. 열린예배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사역자들이 필요하다. 전문적인 사역자가 없다면 전문적인 사역자들을 양성하는 것이 좋다. 전문적인 사역자를 초청하여 수개월의 교육을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넷째, 효과적인 전도의 접촉점이 된다는 것이다. 열린예배는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다는 점에서 전도의 접촉점을 얻을 수 있다. 특히 잘 준비된 사람들이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였기 때문에 더 은혜스럽고 또한 그들이 같은 또래를 위하여 준비한 예배이기에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있다는 것이다.

5) 본교회 성도들의 열린예배의 부정적 평가

열린예배가 교회에 끼친 복음 전도와 불신자들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고 또한 교회의 성장에 공헌한 긍정적인 영향은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또한 부정적인 영향과 문제점들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열린예배의 신학적 문제점들을 살펴본 후 한국 교회 내에서의 열린예배의 부정적인 영향들을 거론하려 한다.

첫째 예배는 선교가 아니라는 것이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예배이다. 복음전도는 가르침, 교제, 섬김, 선교, 상한 심령의 치료와 마찬가지로 교회 사역을 뒤에서 지탱해 주고 있다. 그리고 예전과 선교의 관련은 교회의 삶에 더욱 깊이 있다는 것이다. 복음 전도와 교회 사역의 다른 기능들은 교회의 예배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즉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감으로 일어나는 사역들이라는 것이다. 물론 예배와 선교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지만 열린예배에서 주장하는 선교는 예배라는 개념은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과연 불신자가 참다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예배 신학적 입장에서 부정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Worship이라는 단어의 뜻이 의미하는 데로 곧 예배란 하나님께 최고의 존경과 최상의 가치를 돌리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섬기는 것이며 또한 헉스터블은 기독교 예배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간의 대화라고 하였고 맥클래오드는 예배한 우리 인간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현상이다. 위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먼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참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는 더 이상 질문이 필요없을 것이라고 본다. 물론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며 이를 이해 교회가 성도가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야 함은 재론의 필요가 없다.

셋째, 또한 예배 신학적인 입장에서 볼 때 열린예배는 예배라고 할 수 없다. 예배란 그 대상과 목적이 하나님 한 분 뿐인데 반해 열린예배는 그 초점이 구도자들에게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예배를 통해서 구도자들에게 성공적으로 다가갔

는지 메시지는 전달되었는지 하는 것이 구도자들이 예배의 기준과가치가 되기에 예배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다. 예배란 순수하게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것이며 그 자체 안에 목적이 있고 다른 무엇을 위한 방편이 아니다. 만일 우리가 다른 효과를 위해서 예배를 시도한다면 그 행동은 이미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265]

넷째, 수단으로 전락하는 경향의 열린예배는 또한 인간의 욕구 충족에 적응하려는 시도가 앞서기에 비판 받을 수 있다. 즉 예배에서 재미를 우선적으로 추구하게 되면 결국 예배가 흥미와 감각적인 면으로 치우치기 때문이다.

다섯째, 열린예배가 기업적 교회를 일구는 주요 수단으로 애용되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상업주의적 발상과 소비자 우선주의의 자본주의적 논리로 신앙의 영역마저 동일한 논리에서 접근하는 것이나 교회마저 동일한 마케팅 기법에 의존하는 것이 열린예배 바탕에 깔려 있다고 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여섯째, 기존 신자들을 예배 요원으로 활용하면서도 구도자들을 철저히 수동적인 입장에서 예배에 참여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도자들을 귀찮게 하거나 힘들지 않게 하려는 의도에서 그 결과 회중은 의자에 깊숙이 앉아 들려주는 음악을 듣고 보여주는 드라마를 보며 예배를 즐기게 된다. 한마디로 예배가 회중을 위해 베풀어진다.

일곱째, 구도자들의 시대에 맞도록 음악을 선곡하다보면 베이비 부머들이 좋아하는 음악인 락큰롤이 열린예배에서 찬송가 대신 사용되어지기도 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과도한 시도이다. 본인도 한국에서 사역하던 동부광성교회의 열린예배에서 본인이 비틀즈의 yesterday를 부른 적이 있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도자들의 요구와 그들의 필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면 예배가 예배가 되지 못하고 하나의 음악회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 여덟째, 예배가 사람을 모으는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은 전통적 예배의 가치라는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열린예배의 주된 대상을 20-45세의 특정 연령층에 집중시킴으로 만인을

위한 복음이라는 복음의 보편성을 교회 스스로가 제한한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한무리교회에서의 열린예배는 성공적인 결과를 연구반원들과 교인들로부터 얻었다.

6) 미이민교회 내의 열린예배의 부정적 평가

열린예배는 지금의 미이민교회에도 역시 성장둔화에 대한 또 하나의 대안으로 간주되어 현재 대형 교회들을 중심으로 그 진정성과 의미를 깊이 있게 고려하지 않은 채 앞 다투어 도입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실정이다. 즉 열린예배에 대한 대상의 구분을 구체화하지 않고 또 전문적인 준비 없이 무분별한 도입만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열린예배의 초점이 불신자이고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 준비된 예배라고 하지만 현재 한국 교회에서 시행되는 열린예배의 부정적 영향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이러한 것은 전 세계에 퍼져있는 이민교회들에게도 적용되어질 것이라고 생각된다. 첫째, 예배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예배의 성격과 내용이 달라지는 것인데 미이민교회의 열린예배는 대상을 불신자에게 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신자들에게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정해지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예배 참여자를 대상별로 구분한 예배는 네 가지가 있는데 구도자 중심예배(Seeker Targeted Service), 구도자 민감예배(Seeker Sensitive Service), 방문자 친절예배(Visitor Friendly Service), 신자중심예배(Believer Targeted Service)이다. 이러한 분류에 따라 열린예배는 가각 나뉘어 논의 되어야 한다. 열린예배에 대한 논쟁 중에 이러한 부분들이 불명확한데서 오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266] 둘째, 미이민교회의 열린예배는 불신자들을 위한 복음전도를 위한 취지보다 단지 신자들을 위한 변형된 한 행사정도로 시행하려는 흐름이 있다. 참여 대상자들의 90%이상이 교회에 다니는 크리스천이라는 데 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 중심으로 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즐거움을 위한 인간 중심의 예배라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

---

[266]조계광, *참된 예배를 회복하라*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2), 88.

Ⅷ. 목회자 유능성 계발

1. 효과적인 열린예배를 위한 성경연구 및 자료 계발

열린예배를 기획하고 열린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본 논문에서 다루었듯이 종합예술과 영성이 겸비한 예배의 모습을 기대하며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나가야 할 거이다. 그렇지만 모든 종합예술이 완전한 모습으로 준비 되었다고 할지라도 영성의 말씀과 선포가 없다면 그것은 결단코 예배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열린예배를 위한 신학적 바탕을 든든히 해야 한다. 신구약에서 다루어진 예배의 모습에 대하여 지금의 열린예배의 모습을 재해석 할 수 있어야 한다. 매월 3권의 예배학과 신학서적을 읽고 예배에 적용 비교한다. 이외에도 예배와 문화 영성 등에 관한 수많은 도서들이 있다. 이러한 자료들을 통하여 지역에 함께 이것을 나누길 원하는 목회자들의 모임을 만들어 함께 목회의 방법론을 나누고 동역자로 세워질 것을 기대한다. 성경연구의 깊이를 위해서는 구약은 구약을 전공한 이로 또는 신약은 신약 전공한 전문 사역자들의 도움을 구하여 강의를 하고 전문적 자료를 통하여 훈련되어 진다. 연구하고 읽은 도서들을 통하여 세밀하고 정확한 열린예배에 대한 자료를 만든다. 또한 열린예배 뿐 아니라 기존의 예배와 기획예배 멀티미디어예배 등에 대한 자료를 계발하여 각 교회들에게 맞는 또는 각 연령층에 맞는 예배를 기획할 수 있도록 한다.

표 - 6

월	도 서 명
1월	김세광. 예배의 역사와 그 발전. 서울: 장신논단 제6집, 1998. 김욱동. 포스트모더니즘과 예술. (서울 : 청하, 1991), 102. 김연택. 건강한 교회와 예배. 서울: 프리셉트, 2000.
2월	Shepherd Jr., Massey H. TheWorshipoftheChurch.예전학.정철범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1. Thiessen, Henry C. LecturesinSystematicTheology. 조직신학강론.권혁봉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75. Tozer, Wilson A. SpeakstoStudents: 세상과 충돌하라.이용복 역. 서울: 규장, 2005. Webber, Robert E. GodstillSpeaks:aBiblicalViewofChristian Communication. 그리스도교 커뮤니케이션.정장복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5.
3월	Richard, J. Foster, 영적 훈련과 성장, 권달천 . 황을호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9. Robert, E. Webber. Worship - Old and New. 예배학. 김지찬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8. Robert, G. Rayburn. 예배학. 김달생 & 강귀봉 공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2
4월	조태현. 열린예배 기획. 웍샵. 서울: 도서출판 예루살렘, 1998. 주숙일. 찬송의 향기를 온누리에. 서울: 코이노니아, 1993, 최대복. 예배에 목숨을 걸라. 서울: 규장, 2007.
5월	장성배. 글로벌 시대의 교회, 문화 그리고 사이버 스페이스. 서울: 성서연구사, 2001. 정삼지. 성장하는 제자. 서울: 도서출판제자, 2007. 정성욱. 스피드 조직신학. 서울: 홍성사, 2007.
6월	박기순. 인간, 매체, 커뮤니케이션.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0. 박노권. 목회상담학. 대전: 세종문화사, 1999. 박근원. 오늘의 예배론. 서울: 대한기독서회, 1992.

2. 효과적인 목회자의 예배운영 계발

예배의 순서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이것만 가지고 예배가 조화 있고, 질서 있게 드려지는 것은 아니다.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는 예배 집례자와 예배드리는 회중이 예배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바르게 예배드릴 때 제안된 예배순서는 그 가치를 발하게 될 것이다. 예배 집례자는 정확한 발음을 위해 발음 연습을 꾸준히 하도록 한다. 또한 예배 하루 전 예배의 순서에 따른 모든 순서를 읽고 완전습득하여 발음이 꼬이지 않도록 한다. 예배집례자는 다른 사람들을 대신하여 공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제단에서 제사장적 의식이나 희생의식을 맡은 사람이다. 예배인도자는 예배를 인도할 때, 그 자신만을 위하여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267] 회중을 위하여 그리고 회중과 더불어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268] 예배 집례자는 기도하고 증거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가운데 회중을 한 목소리로 통일시키는 사람이다. 회중은 경외와 찬양과 고백에 있어서 참석한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대표적인 하나의 목소리를 필요로 하고 있다. 예배 집례자는 예배를 전적으로 준비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예배의 공동체가 다함께 기도하고 신앙을 고백하며 확신을 얻고 헌신하는 일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269]

---

[267]Franklin M. Segler, *목회학개론,* 이정희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77), 166.

[268]Ibid., 170.

[269]이형기 외, *기독교 사상사1*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55.

Ⅸ. 결 론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이다. 기독교에서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오늘날 기존의 전통적인 예배에 대해 많은 젊은이들이 적응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불상사를 낳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 새로운 예배 프로그램 및 형식이 요구되었고, 열린예배라는 이름으로 불신자나 초신자나 입교자 또는 구도자들이 거부감을 갖지 않는 여건에서 그들이 좀 더 쉽게 예배의 자리에 나아올 수 있도록 배려하는 형식과 접근 방법을 택한 예배 스타일을 시도하게 되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자를 찾으시고 주어진 상황 가운데 가장 적절한 예배를 허락하셨다. 오늘날에 있어서 교회의 성장은 둔화되고 기존의 전통적인 예배에 대한 거부감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 이런 상황가운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형식으로 시도된 열린예배는 오늘날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적절한 예배 형식이라고 말하고 싶다.

하지만 아직까지 시도 단계에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보이고 있다. 그런데 예배 형식의 역사적 변천에서도 보아 알겠지만 처음에는 좋은 의도에서 그리고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시도되었던 예배가 유한한 인간들의 악함으로 인해 시대가 지남에 따라 변질되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예배에 가운데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그 시대마다 허락되었던 예배가 불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예배에 참여하는 인간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변질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한 것이다. 열린예배도 마찬가지라고 말하고 싶다.

열린예배에 있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열린예배를 이 시대 가운데 적용함에 있어서 바람직한 것들을 장려하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유의하며 나아가야 한다. 또한 변하지 않

는 절대적인 계시를 토대로 밟고 서서 이 시대 가운데 다양한 상황들과 환경들과 문화를 적절하게 활용해야 한다. 그런 가운데 진정한 예배의 회복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즉, 오늘날의 독특한 상황 가운데 객관적 계시인 진리를 토대로 하여 각 상황에 맞는 적용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믿는 대로 예배한다. 예배자가 지닌 하나님에 대한 신념과 인식은 그 사람이 표현하는 예배의 내용을 결정한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을 명백히 알고 믿는 것이 예배의 바람직한 길이다.[270] 따라서 예배는 반드시 신학의 판단 아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신학이 없는 예배는 감상적이고 유약하여 맹목에 빠지기 쉽고 예배 없는 신학은 냉냉 하고 그 자체에 생명력이 없으므로 예배와 신학은 함께 결합하여 강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유도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힘 있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예배에 대한 신학적 의미를 살펴본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이제 예배에 대한 신학적 의미를 5가지로 살펴보면

첫째, 예배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 자신의 인격적인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인격적인 믿음 안에서의 응답이다. 그러므로 예배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에게 제공되고 믿음을 통해서 인간의 사랑이 하나님께 응답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요 참다운 만남이다.[271]

둘째, 예배는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예배의 대상은 인간이나 사물이 아니라 참 하나님 한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와 더불어 교제할 사람을 창조함으로써 예배에 솔선하셨으며 존재의 근거로서 생명의 원천이며 보존자가 되신다. 그는 최고의 통치자로서 사람과 만나고 또한 사람을 심판하시고 요구하신다.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사람이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하심과 사랑을 새롭게 들어내셔서 사람으로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다.

셋째, 예배는 무엇보다도 기독론에 근거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장 분명하게 계시해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말씀이 육신

---

[270] 박은규, *예배신학 제 9회 연신원 목회자 신학세미나 강의집, 현대교회의 예배와 설교* (서울: 연세대학교 유니온 학술 자료원, 1989), 133.

[271] Franklin M. Segler. *목회학 개론,* 이정희 역 (서울: 요단 출판사, 1977), 157.

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단번에 희생적으로 바침으로써 예배의 완전한 행위를 이룩하셨다. 기독교 예배의 근거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위에 오시어 만민을 위해 제사장적 희생을 단번에 행하심으로써 속죄의 대 사업과 화해 및 구원의 대 사업을 성취하셨을 뿐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주님은 영광중에 오시어 하늘의 예배를 이루시리라는 데 있다.[272]

넷째, 예배는 성령론에 근거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현시키셨고 오순절 이후부터 재림까지는 성령을 통하여 완성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서 성령의 내적 증거를 통하여 예배자의 마음에 파고든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얻는 감동과 변화는 모두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273]

다섯째, 기독교 예배는 교회론과 깊이 연결되어 표현된다.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백성"으로서 언약 공동체요, 그리스도의 몸이며 예배하는 공동체이다. 예배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설교)주께서 명령하신 성례전(침례와 성만찬)을 바르게 시행해야 한다. 열린예배를 해야 하는가, 하지 말아야 하는가, 열린예배가 옳은가, 그른가에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되며, "우리 문화에서 가장 적합한 열린예배는 어떠한 것인가"에 맞추어야 한다.

열린예배는 구도자를 위한 예배임과 동시에 기존 신자들을 위한 예배이기도 하다. 열린예배는 각 신자들의 삶의 전도가 우선되어져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삶으로써 세상에서 복음을 호의적으로 되게 하는 사명이 있다. 이웃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에 호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배에 참석하고 그 예배 중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강하신 권함을 받음으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것이다. 열린예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 있음을 인정하고 그들을 중심을 메시지가 선포되는 예배이다. 그들이 신자가 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데 시간이 걸림을 인정하고 그렇게 되기까지 기다려주고 필요한 양육과 도움을 주는 곳이 열린예배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관객으로 참석하였다가 나중에는 진정한 예

---

[272]최대복, *예배에 목숨을 걸라* (서울: 규장, 2007), 155.

[273]조영엽. *왜 열린예배는 잘못 되었는가?* (서울: 미스바, 2001), 122.

배자로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열린예배는 처음도 전도이고 마지막도 전도가 있는 예배이어야 한다. 특별히 성도들의 삶이 있는 전도이어야 한다. 말뿐인 전도는 아무에게도 감동을 줄 수 없는 법이다. 예배에 참여한 관중이 성도들의 변화되는 삶을 볼 때 감동을 받게 되며, 그들의 모습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며, 주를 영접하게 되는 것이다.

성도들은 구도자에 대한 주님이 주신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한다. 구도자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섬김의 모습이 열린예배이다. 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복음이 선포되어야 한다. 복음에 낯선 사람, 복음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확실하고 강한, 변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 선포가 예배의 절정이다. 그러기에 보이기 위한 식의 프로그램을 도입해서도 안 되고 다른 교회의 내용을 흉내 낼 필요도 없다. 그 교회에 적합한 특성에 맞는 독특한 형식의 찬양과 드라마가 또한 그 무엇도 예배의 중심이 되서도 안 된다.

오직 예배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 예배의 회복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은 없다. 이번 논문 연구를 통하여 한무리교회의 찬양팀과 함께 훈련하고 그들과 함께 해 온 2년여 간의 시간 동안 신앙의 성장과 한무리교회의 예배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시간이었다. 이번 논문은 논문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논문에 함께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큰 도전을 주었으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신앙의 참된 성장과 고백이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 이민교회는 물론 전세계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의 예배가 예배가 되고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본 논문을 마지막 점을 찍는다.

Appendices

부록-1

2011년 한무리교회 찬양팀 수련회(부록)

ONLY GOD

파 트:

이 름:

한무리교회 찬양단 수련회

한무리교회 찬양팀 수련회 일정

♠ 주 제 :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벧후1:10)

♠ 일 시 : 2011년 10월28일(pm 8:00) - 10월29일(pm 4:00)

♠ 장 소 : Comfort Inn & Suites(PA310)
800 Route 940I-611 & I-380, Mount Pocono, PA, US, 18344

♠ 회 비 :어른($50), 아이들($25), 교회보조($500)

♠ 준비물 : 성경, 필기도구, 세면도구, 운동화, 간편한 옷,

♠ 목 적

한무리교회 예배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찬양팀으로서 수련회를 통해 찬양의 실제적인 훈련과 기도와 말씀을 통한 영적인 훈련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소명에 대한 확신을 갖고 부족하고 약한 모습들을 치유 받으며, 한무리 찬양팀 자체의 영적 부흥과 한무리교회의 예배 회복을 위해 새로운 헌신을 다짐하는 계기를 삼고자 한다.

♠ 수련회를 들어가며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을 모아 놓고 마지막 고별사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살아 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루어 주셨던 구원과 은혜를 기억하고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는 당부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수24:14)고 말씀합니다.
사역자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는 절대로 안일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사역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한무리 성도들의 심령을 깨워야 할 예배 인도자로서의 우리는 우리의 본분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 마음속에 섬길 자를 택하였다면 그분을 경외(두려워하는 마음)하는 마음으로 성실과 진정으로 항상 그분 앞에 서도록 우리 자신을 추슬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제 더 이상 다른 것들 때문에 분주해지지 맙시다. 오직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음을 고백합시다.

처음으로 갖는 이번 찬양팀 수련회의 주제는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벧후1:10)입니다. 적당히 끌려 다니는 신앙과 헌신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의탁한 전적 헌신과 이미 부르시고 택하셔서 쓰임 받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굳게 서기를 다짐합시다. 우리의 심령과 모든 것을 새롭게 해주실 성령님을 기대하며 그분께 의탁함으로 수련회에 임합시다.

2011.10. 고의용목사

수련회 일정

28일 저녁 **표 - 7**

시 간	프 로 그 램	담 당 자	비 고
pm 8:00-8:30	도착, 짐풀기	나승욱	
pm 8:30-9:00	도착예배	조희창전도사	예배인도 홍현진팀장
pm 9:00-10:00	공동체훈련	홍현진	
pm 10:00-11:00	예배의 목적	고의용목사	
pm 11:00-12:00	기도회	고의용목사	
pm 12:00	자유시간 및, 잠자기 광고 / 나승욱 음영팀장		

29일 **표 - 8**

시 간	프 로 그 램	담 당 자	비 고
am 7:00	아침 QT	이미숙전도사	
am 8:00	아침식사	나승욱	
am 9:00	어떻게 사역할까?	각파트장	
am 11:00	함께 운동	나승욱	
am 12:00	Check Out	홍인표	
am 4:00	점심식사 및 사진촬영	구나연	
am 5:00	예배 후 집으로	고의용목사	폐회예배
차량 및 29일 점심식사			

찬양단 조직

찬 양 단 장 : 박상돈 목사

찬양단 지 도 : 고의용 목사

찬 양 팀 장 : 홍현진

음 영 팀 장 : 나승욱

서 기 회 계 : 구나연

표 - 9

싱어파트	악기파트	몸찬양파트	음악 영상팀
파트장:김지회	파트장:이소영	파트장:채승연	팀장:나승욱
김선옥	드럼1:이창우	김수미	이재영
구나연	드럼2:김민규	유화연	박철영
구정연	건반1:이소영	신명희	이진환
김소현	건반2:박혜연	노홍희	민태환
백승민	일렉기타:나승욱	김하나	구수연
이미숙	어쿠스틱:홍인표		

수련회 진행 : 홍현진팀장

태환조

조장 : 민태환

김소현 이소영 김선옥 이재영 채승연 유화연 박철영 구나연 조희창 차지은 구선희 신명희

승민조

조장 : 백승민

김하나 홍인표 김수미 나승욱 박혜연 김지회 이창우 이미숙 심영은박현주 구수연

수련회 수칙

1. 시간을 잘 지킨다.
2. 진행위원의 말에 절대 순종한다.
3. 내가 아니라 전체를 생각한다.
4. 모든 프로그램에 최선을 다한다.

전체준비물 - 수련회핸드북, 기타, 구급약,

찬양팀 수련회 차량 일정

28일금요일 출발

표 - 10

운전자 / 탑승자	나승욱	이재영	채승연	신영환	박철영
	차지은	심영은	구선희	유화연	박현주
	구수연	이삭	이미숙	신동진	
	나성재		신명희		

운전자 / 탑승자	조희창	민태환	홍인표	박혜연	김수미
	고의용	김하나	이소영	고요한	
	구선희	민필립	백승민	고귀한	
			김소현	아론	
			구나연	에밀리	
			김선옥		

29일 출발

표 - 11

운전자 / 탑승자	조희창	민태환	홍인표	박혜연	김수미
	고의용	김하나	이소영	고요한	
	구선희	민필립	백승민	고귀한	
			김소현	아론	
			구나연	에밀리	
			김선옥		

운전자 / 탑승자	나승욱	이재영	채승연	신영환	박철영
	차지은	심영은	구선희	유화연	박현주
	구수연	이삭	이미숙	신동진	
	나성재		신명희		

✞도착예배✞ 강사: **조희창전도사**

✤주제강의 - 예배와 찬양✤ 강사: **고의용목사**

◆공동체 훈련◆ **홍현진 팀장**

◈기도회◈ 기도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파트별 모임 파트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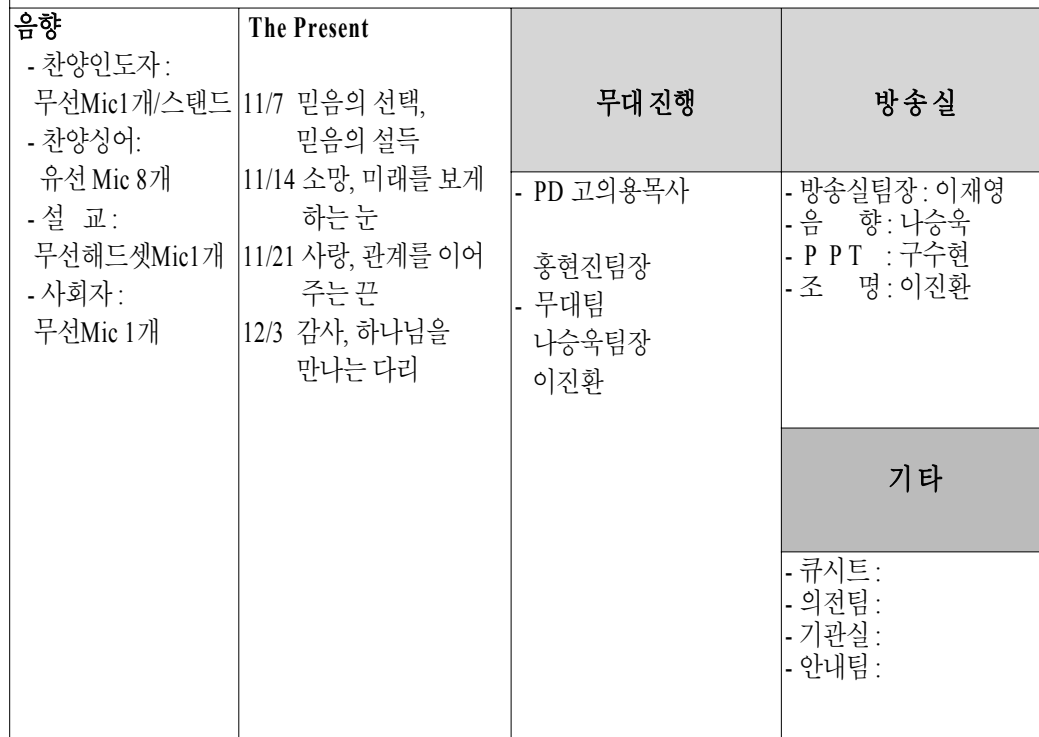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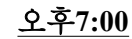
파트별 사역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

_____ 파트

"특별한초대"
새신자를 위한 예배

Cue-Sheet
2011년 12월10일(주일)
오후7:00

중앙스크린
스크린
스크린
드럼
피아노
성가대석
밴드
좌측(하수)
우측(상수)
찬양인도자
설교자
강대상

음향	The Present	무대진행	방송실
- 찬양인도자 : 무선Mic1개/스탠드 - 찬양싱어: 유선 Mic 8개 - 설 교 : 무선해드셋Mic1개 - 사회자 : 무선Mic 1개	**The Present** 11/7 믿음의 선택, 믿음의 설득 11/14 소망, 미래를 보게 하는 눈 11/21 사랑, 관계를 이어 주는 끈 12/3 감사, 하나님을 만나는 다리	- PD 고의용목사 홍현진팀장 - 무대팀 나승욱팀장 이진환	- 방송실팀장 : 이재영 - 음 향 : 나승욱 - P P T : 구수현 - 조 명 : 이진환 **기타** - 큐시트 : - 의전팀 : - 기관실 : - 안내팀 :

시 간	내용	출 연	음 향	조 명 (객석)	등,퇴장	무대위치	무대팀	방송실
6:00 (40‘)	6:00 ~ 6:05 음향및마이크 세팅 6:05 ~ 6:10 밴드세팅 6:10 ~ 6:20 찬양팀 리허설 6:20 ~ 6:40 특순자 리허설							광고 자막
6:40 (20‘)	자연영상 /영상팀 (광고게재)	영상		무대조명: 5분전 20% 1분전 0%				
7:00 (0‘15“)	시그널 영상	영상	SOV	암전	찬양팀 in			영상
7:01 (15‘)	1. 나를 향한 주의 사랑 2. 내 마음을 가득 채운 3. 주님 곁으로	고의용 목사 찬양팀 밴드	무선Mic ❶ 찬양팀Mic ①-⑧ 성가대(천장) Mic	밝고 화려하게 100% (객석 50%)		무대 중앙		가사 자막
7:16 (5‘)	-환영인사 (축복합니다) -기도	박상돈 목사 찬양팀	무선Mic ❷ Mic ①-⑧	100%	찬양팀 신속한 퇴장	무대 중앙		가사 자막
7:21 (15‘)	프로필 통자막(3개) 1. 값을 수 없는 사랑 2. 내가 매일 기쁘게	주 리	무선Mic ❶ MR	암 전 밝고 화려 하게 객석0%	게스트 in	무대 하수		프로필 가사 자막
7:36 (3)	말씀영상 : 민 10: 29-34	영 상	SOV	암전	게스트 out			영상
7:39 (30‘)	설교제목 : The Present 믿음의 선택, 믿음의 설득	홍현진	무선 헤드셋 Mic	100%		무대 중앙		말씀 자막
8:09 (4‘)	찬양:주님 말씀 하시면	찬양팀 밴드	무선Mic ❶ 찬양팀Mic ①-⑧	100%	찬양팀 신속한 입장			가사 자막
8:13 (2‘)	축 도		무선헤드셋 Mic	100%	찬양팀 축도후 퇴장	무대 중앙		
8:15 (4‘24“)	드림온 뮤직비디오	영상팀	SOV	객석만 100%				영상

부록-3 표 - 15

(설문지의 작성)

1. 당신의 성별은?(남자, 여자)

2. 당신의 나이는?(만 세)

3. 당신이 최초로 교회에 나간 것은 언제입니까?(년)

4. 어떻게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까?

①친구를 통해서 ②교회 전도를 통해서 ③전도지를 통해서

④스스로 ⑤기타(자세히 기록해 주세요)

5. 처음 교회에 나가게 된 동기는?

6. 지금 교회에 나가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7. 기독교에 대해서 가장 궁금한 것은 무엇입니까?

부록-4 효과 있는 예배를 위한 찬양 선곡

열린예배에서 뿐 아니라 예배에서는 찬양이 필수적이다. 찬양은 문으로 들어가는 열쇠이다. 그러므로 찬양의 비중은 예배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기에 찬양에 대한 전문적으로 훈련 된 목회자들이 요구되어진다. 열린예배의 찬양에는 많은 코러스가 필요하다. 음악적으로 주제별로 코드별로 연결 하려면 많은 코러스가 필요하지만 영감 있는 코러스들을 수집하여 준비해야 한다.

열린예배에서는 찬양의 선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예배전체가 한 곡의 찬송 같은 느낌을 주도록 해야만 한다. 따로 떨어진 한곡 한곡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예배로 느껴지도록 곡의 연결과 말씀이 자연스러워야 한다.

1) 선곡

열린예배 전체가 한 곡의 찬송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선곡이 무척 중요하다. 이러한 진행을 위해 선곡 시에 염두에 두어야할 사항들을 살펴보겠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열린예배는 경배로 연결이 되어야 한다. 그렇기에 찬양의 연

결이 메시지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열린예배를 준비하는 이들은 먼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바라시는지 잘 분별해야만 한다. 그렇게 해서 인도자, 또는 구도자들이 원하는 주제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제를 먼저 정해야 한다. 이때 주의할 것은 말씀을 전할 사람과 먼저 한 마음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찬양의 주제는 승리, 기쁨 등인데 말씀이 회개여서는 곤란하다. 서로 기도하며 함께 정해야만 한다. 하지만 찬양은 설교가 아님을 잊어선 안 된다. 찬양은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 그러므로 소극적으로는 말씀의 주제와 충돌을 피할 정도면 족하고 적극적인 경우도 말씀과 잘 어울리는 찬양이면 좋지만 그 메시지가 너무 강하게 나타나서도 곤란하다. 그리고 메시지는 전개 부분에서 넣는 것이 좋다. 절정은 순수한 찬양이 되는 것이 좋다. 본 논문자는 찬양의 선곡을 수백 번 했다. 그러나 그 선곡 한 것을 스스로 습득하지 못한다면 그 선곡은 실패한 것이다. 선곡을 할 때는 주제를 정한 뒤에는 전체의 전개를 구상해 보아야 한다. 이때 잊지 말아야할 것은 예배의 형태이다. 그것은 예배의 형태에 따라서 전개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또한 열린예배에서의 찬양은 구도자들이 듣기에 부담되지 않는 곡을 선곡하는 것이 좋다. 열린예배에서 찬양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렇다면 찬양 부분을 4가지의 단계로 분류 할 수 있을 것이다. 찬양 부분을 도입, 전개, 절정, 결말로 분류한다.

콘티를 짜는 훈련을 통하여 예배마다 가장 적절한 찬양을 선곡하는 능력을 계발한다.

콘 티 1

1.축복의 통로 E

2.내 구주 예수님 Bb - C

3.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C

☞멘트

4.주 예수 기뻐 찬양해 F

5.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G

☞멘트

6.주님과 같이 G - A

☞기도

7.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A

1번곡은 서로 축복하며 부른다.

2번곡은 멘트 없이 바로 들어간다. 두 번째 부를 때 후렴 한번더 부른후 "주 행한일~~"에서 C 키로 전조해서 그 부분만 두 번 더 부른다.

2번곡에서 3번곡 후렴으로 들어간다.(곡분위기는 같다.) 두 번 부른다.

일어서게 한후 4번곡 신나게 3번 부른다.(엔딩 길게. 드럼)

4번곡 끝난후 5번곡. 기타가 먼저 전주 4마디씩 순서대로 베이스,건반,드럼..그리고 "나나나~~" 엔딩은 나나나 4번 정도 무반주(드럼만으로 한번)로 부르고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하고 끝난다(G코드로 마무리한다)

멘트한 후 6번곡 G - A 로 전조하다 부른다.

교회를 위한 기도

7번곡 싱어들 들어가고 두 번 부른다.

콘티 2

1.왕이신 나의 하나님 F-G,s

☞합심기도 - 모임을 위한

2.찬양의 제사 드리며 D-E,s

☞멘트 - 알아서..

3.예수님 목마릅니다(성령의 불로)E,f

4.주 예수 기뻐 찬양해 F,f

5.부흥 있으리라 이땅에 G,f

☞멘트 - 알아서..

6.주님 곁으로 A, s

7.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A,s(후렴만)

총 곡목은 7곡입니다.

이조는 세 번 있다. F-G, D-E, F-G.
1번곡을 이조해서 부르기 때문에 한곡으로도 분위기를 점점 이끌어 올리며 부를 수 있다.
2번곡도 상승이조를 하기 때문에 1번곡에 이어 상승분위기를 계속타고 있다. 마지막을 박수로 영광 돌리면 더 좋다.
시작부터 빠르게 나간다. 전주가 있으면 더 좋다. 인도자는 전주가 나아갈 때 멘트를 한다.
3, 4, 5번 곡 모두 빠른 템포의 곡으로 힘껏 기쁨으로 찬양드릴 수 있다.
5번곡에서 6번곡 사이가 조금 필요하다. 템포와 분위기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인도자는 멘트에, 반주팀은 인도자에 맞추며 6번곡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연주한다. 7번곡은 6번곡과 같은 분위기로 후렴만 반복하며 고조되며 주님을 높입니다.

열린예배에서 찬양은 흐름을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끊이지 않고 찬양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코드 진행과 편곡에 있다. 예를 들어 C코드로 된 노래를 부르다가 노래가 끝나자마자 음악을 끊지 않고 바로 E코드로 된 곡을 불렀다고 하자. 노래가 이어졌다는 느낌을 줄 수 있을까? C코드에서 E코드로 바뀌는 순간 음의 높이 차이 때문에 분위기가 확 바뀌어 버린다. 이것은 아무래도 어색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코드의 진행이 어떻게 될 때 자연스러운가를 염두에 두고 있어야한다. C코드의 기본 진행은 C - F - G7이다. 그러므로 C코드의 곡에서 F코드 곡으로의 연결은 매우 자연스럽고 음을 잡기도 쉽다. 물론 G코드로의 연결도 괜찮지만 F코드로의 연결만큼 자연스럽지는 못하다. 그리고 C코드와 Am코드는 장조와 단조의 차이지 기본적으로 같은 조표를 지니고 있다. 즉 음계의 위치가 같다.(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은 피아노나 기타를 치는 분에게 물어보시길...) 그러므로 C코드에서 Am코드로의 전환도 매우 자연스럽다.[274]

---

[274]조태현, *열린예배 기획, 워샵* (서울: 도서출판 예루살렘, 1998), 98.

표 - 16 [코드 변환표]

코드명	바 꿀 코 드				
	매 우 좋 음		약 간 어 색		
C	F	Am	G	Dm	Cm
D	G	Bm	A	Em	Dm
E	A	C#m	B	F#m	Em
F	Bb	Dm	C	Gm	Fm
G	C	Em	D	Am	Gm
A	D	F#m	E	Bm	Am
B	E	G#m	A	C#m	Bm
Am	Dm	C	Em	F	A
Bm	Em	D	F#m	G	B
Cm	Fm	Eb	Gm	Ab	C
Dm	Gm	F	Am	Bb	D
Em	Am	G	Bm	C	E
Fm	Bbm	Ab	Cm	Db	F
Gm	Cm	Bb	Dm	Eb	G

그리고 Am코드에서는 Dm코드와 Em코드가 자연스럽고(C에서 G로의 변화처럼 Am에서 Em로의 변화도 Dm로의 변화처럼 자연스럽지는 못하다.) 여기서 약간의 응용을 한다면 C코드에서 Dm코드로의 변화도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를 잘 모르는 분을 위해 각 코드에서 변환할 수 있는 코드를 적어보면 위의 [코드 변환표]와 같다. 여기서 C에서 Cm로 변환하는 것은 같은 으뜸음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앞에 곡의 마지막음과 뒤에 곡의 첫 음이 같다면 상당히 자연스러울 수 있다. 특히 기타 반주에선 더욱 그렇다. 하지만 피아노에서는 약간 부자연스럽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으나 너무 복잡하므로 설명을 피한다. 이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쓸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코드진행 외에도 같은 곡을 반음 또는 한음을 올려서 변화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가사와 곡조가 같은 상황에서 반음, 또는 한음을 올리면 그것은 같은 노래라는 느낌은 깨지 않으면서도 색다른 느낌을 준다. 하지만 이 방법은 한번의 찬양인도에서는 2번을 넘지 않는 것이 좋다.

부록-5 성경공부 교재1

예배에 대한 성경 공부 시행 - 성경공부 교제이므로 경어(敬語)를 사용하였다.

예 배 (I)

한무리찬양팀

이 과정을 시작하면서 우선 본 주제와 관련해서 그 동안 자신이 생각해 온 것을 정리하는 것이 앞으로의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래의 질문에 대답해 보십시오. 생각나는 대로 답하십시오. 그러나 꼭 쓰셔야 합니다. 그저 생각만 하는 것과 글로 옮기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함으로써 나중에 읽을 때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달라져 있는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1) 예배가 어떠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2) 당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3) 하나님과 어떻게 만나고 있습니까?

(4)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5) 이 모임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참석하셨습니까? 예배와 찬양에 대해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배운다는 것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1. 예배의 중요성

성경은 예배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점은 예배와 찬양이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성경을 대하면 금방 깨닫게 되는 사실입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이 이 주제와 관련된 단어나 표현이 자주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예배와 찬양은 성경에서 가장 빈번히 언급되는 주제 중의 하나입니다.[275] 특히 성경에서 가장

분량이 큰 시편이야말로 예배를 위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 주제에 관한 어휘가 다양하다는 점도 독특합니다. 성경 원어상 수십 가지가 되는 이 어휘들은 어원뿐만 아니라 쓰이는 상황, 수반되는 현상, 그 결과 등에 있어서도 모두 다릅니다. 성경에 예배에 대한 어휘나 표현이 자주 나오고 그 종류가 다양하다는 것은 그만큼 그것이 신앙생활에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예배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누가복음 10:38-42을 읽어보십시오.

(1)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들르셨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의 반응은 각각 달랐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마르다는 예수님 대접할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였습니다. 마리아가 일을 거들지 않는다고 마르다가 불평하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결국 예수님이 좋게 보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위한 일이 불필요하다는 말이 아닙니다.[276] 문제는 우선권을 어디에 두느냐에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에 우선권을 둔 사람은 정말 좋은 것을 택했으며 그 축복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9:28-40에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큰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19:38)

(2) 바리새인들이 보인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

(3) 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

찬양이 있어야 한다는, 아니 찬양을 꼭 받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분명히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을 통해서라도 찬양을 받으

[275]Clowney, Edmund P, *교회,* 황영철 역 (서울: IVP, 1998), 124.

[276]Howe, Reuel L. *Miracle of Dialogue, 대화의 기적,* 김광선 역 (서울: 대한기독교교육협회, 1989), 124.

시겠다니 말입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레위지파와 제사장이 이 한 가지 일만을 위해 세워졌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나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방을 여행하신 적이 있습니다. 수가라는 마을 근처를 지나시다가 우물가에 앉으셨을 때 거기에 물 길으러 온 한 여인과 대화하시게 되었는데, 이때 주님은 예배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요 4:5-24)

(4)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고 하셨습니까?(23절)

하나님께서 꼭 필요로 하시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할 줄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무엇을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지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또 품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2. 예배의 의미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창조주시요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이자 자녀인 인간 사이의 만남입니다. 사귐입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우리의 인격이 맞닿는 것입니다. 사랑의 나눔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277] 경배를 뜻하는 구약의 히브리어 chawah(하와; 또는 shachah 샤하)와 "예배하다" 또는 "경배하다"로 번역되는 신약의 헬라어 proskuneo(프로스퀴네오)는 원래 "절하다, 몸을 굽히다, 엎드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배 또는 경배란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을(경) 자신을 낮추어 표현하는 것(배)이라 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인격을 섬기는 것입니다. 섬김 또는 봉사를 뜻하는 구약의 abad(아바드)와 sharat(샤라트) 및 신약의 latreuo(랴트류오)와 leotourgeo(레이트류게오)는 예배의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278]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신 것은

[277]정삼지, *성장하는 제자* (서울: 도서출판제자, 2007), 141.

[278]조계광, *참된 예배를 회복하라*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2), 103.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겔 44:15 참조). 오늘날에는 믿는 사람 모두가 이런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벧전 2:9). 우리는 자칫하면 인격보다는 상황에 대한 관심에, 사귐보다는 일에 대한 관심에 지배되기가 쉽습니다. "주님"보다는 "주님의 일"에 시선을 빼앗기기가 쉽습니다. 예배는 바로 주님의 인격에 대한 관심이 우선임을 알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3. 예배의 목적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대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 때입니다. 물론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구해야 하지만, 구하기 위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감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와 삶 전체를 주님께 산 제물로 드려 "영적 예배"를 하라고 합니다(롬 12:1).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여인이 값진 향유가 담긴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면 좋을 것을 그렇게 낭비하고 있다고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그것은 낭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우리의 귀한 것을 희생시키는 거룩한 낭비입니다. 그 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그 위대함에 놀라고, 그 아름다움에 반하고, 그 영화로움에 매료되어 그 분만을 의식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네 눈이 비둘기 같구나"(아 1:15)

4. 하나님의 다스림과 예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시편 외에 예배에 중요한 책을 든다면 구약의 역대기와 신약의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이 두 책은 흥미

로운 대조점과 유사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역사상 지상에 세워진 다윗 왕조에서 출발하여 다가올 메시아 왕국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후자는 천상의 왕국을 보여 주면서 역시 다가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들에 보이는 왕국의 분위기가 예배와 찬양에 휩싸인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곳에 필수적이고도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자들입니다.[279] 노아,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등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혹은 잔을 쌓고, 혹은 성막에서 주님 앞에 나아오기를 기뻐한 이들의 삶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이들에게 주님을 향한 예배가 흘러 넘쳤을 때 이들의 삶 역시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가득 찼습니다. 신약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령의 권능 속에서 성전과 성도의 집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에 대한 피조계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사실 예배와 찬양은 피조계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것입니다. 천지가 창조되던 때에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던 것입니다(욥 38:7). 모든 피조물은 어떤 형태로든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만왕의 왕과 그 백성 사이의 만남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피조물의 관리자인 우리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기다리다가 참지 못해 돌멩이가 꿈틀대며 소리지르기 전에 말입니다!

5. 마치며

(1) 잠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통해, 또 생활을 통해 알아 온 대로 여기에 써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279]주숙일, *찬송의 향기를 온누리에* (서울: 코이노니아, 1993), 86.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우리의 삶 속에 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야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통해 그 하나님을 만나 깊이 사귀십시오.

(2) 현재 당신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에 얼마나 시간을 들이고 있습니까? 그 중 찬양과 경배를 위한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이제 매일 일정량의 시간을 정해 놓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부록-6 성경공부 교재2

예 배 (Ⅱ)

한무리찬양팀

1. 창조와 타락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표현 세 가지가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및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창조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방법으로가 아니라 말씀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절대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280] 그리고 온 세상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존재케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있는 자"(출 3:14)이시며, 만물은 하나님 뜻대로 생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

[280]황성철, *예배학* (서울: 대한예수교 장로회총회, 1998), 85.

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된 그 상태가 바로 선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 자신의 생명과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창조의 과정은 곧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이 온 우주에 나누어지고 퍼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것들은 처음에는 빛으로, 그 다음에는 아름다운 자연계와 생명체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모든 공간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솜씨가 아름답게 드러났고 모든 생물은 "생육하고 번성하여……충만하라"(창1:22)는 하나님의 축복에 의해 그 생명을 누리고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은 인간 창조에서 그 절정에 달했습니다.

창세기 1:16-28과 2:7을 읽으십시오.

(1) 인간 창조의 모델은?

(2) 인간의 구성 요소는?

(3) 인간이 받은 축복과 권세는?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는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기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릴 수 있었으며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고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라만상을 다스릴 권세를 위임받아 모든 피조물에게 주님의 뜻과 계획을 수행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281] 이 모든 축복과 특권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른 사귐, 즉 예배에 그 원천이 있었습니다. 에덴동산은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이 흘러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네 줄기 강이 흐르고 여러 가지 나무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며 각종 보석을 통해 찬란한 빛이 곳곳에 서려있는 그곳은 바로 지상의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거기서 인간은 하나님과 깊은 사람의 사귐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풍요한 삶을 누리게 하셨고,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

[281]최대복, *예배에 목숨을 걸라* (서울: 규장, 2007), 88.

여 신뢰하고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는 인간의 범죄에 의해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사탄의 말을 더 믿었기 때문입니다. 말은 인격의 연장입니다. 누구의 말을 믿거나 안 믿는다는 것은 그의 인격을 신뢰하거나 불신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불신은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괴시켰고, 이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3:7,10을 읽으십시오.

(4) 범죄한 인간이 맨 먼저 느낀 것은?

(5)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들이 숨은 이유는?

그 열매를 먹은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죄의식과 수치심 때문에 무화과나무 잎으로 몸을 가리면서 두려움 속에 하나님을 피해 숨는 존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하나님 말씀대로 죽었습니다. 다만 줄기로부터 떨어져 나간 가지가 서서히 말라가듯, 인간의 삶은 이제 영적 죽음의 상태에서 육신의 죽음을 향해 가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죄와 두려움 속에서 말입니다.

2. 사귐의 회복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사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우선, 하나님은 인간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이것은 짐승을 희생시켜 타락한 인간의 죄와 수치를 가리도록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관계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피 흘림을 동한 속죄"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핵심입니다.[282] 그래서 노아는 대홍수

후에 단을 쌓고 번제(짐승을 잡아 태워 드리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였고, 이삭과 야곱도 단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출애굽 이후 하나님은 성막 예배를 통해 인간과의 만남을 계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억압받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시고는 그 백성과의 만남을 위해 성막의 제도와 제사의 규례를 계시하셨습니다. 성막의 구조는 다음 그림처럼 되어있습니다. 동쪽으로 난 문을 통해 들어가면 먼저 놋으로 된 제단이 보입니다. 이것은 제물을 불에 태우는 제단입니다. 이 단을 지나가면 성소 앞에 있는 큰 놋그릇을 보게 됩니다. 이 "물두멍"에는 물이 담겨져 있고, 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는 반드시 이 물로 손발을 씻어 깨끗케 해야 했습니다. 성소 안에는 불을 밝히는 등대와 12개의 떡을 놓아두는 진설병상 및 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 안쪽으로는(휘장 뒤)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고 그 위에는 그룹이 날개로 덮고 있습니다. 그룹의 날개로 덮인 법궤의 윗면을 속죄소 또는 시은좌(히 4:14의 "은혜의 보좌")라 하는데 한 해 중 하루, 즉 대속죄일에 여기에 희생제물의 피가 뿌려지면 죄가 그 피로 가려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에는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제사에는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것과 죄를 위해 드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전자는 죄와 관계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며,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가 여기에 속합니다. 번제는 피와 가죽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태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레1:9,17)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제물을 드리는 자의 온전한 헌신을 뜻합니다.[283] 소제는 곡물을 드리는 것인데, 제물 중 일부를 "기념으로" 태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삼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돌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감사의 헌신입니다. 화목제는 제물(짐승)의 기름을 태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의 특징은 남은 제물을 일부는 제사장에게, 일부는 제물을 드린 자에게 주어 먹게 하는 것인데, 이것은 제물을 드린 자가 하나님과의 사귐에 참여하는 것을 뜻합니다.

---

[282]이중택, *예배와 교회음악* (서울: 예찬사, 1991), 58.

[283]옥한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7), 107.

죄 때문에 드리는 제사에는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습니다. 속건제는 개별 범죄의 용서를 위해 수양으로 드리는데, 그 피는 단 사면에 뿌리고 기름은 태우며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돌립니다. 속죄제는 죄를 지은 집단이나 개인의 속죄와 성결을 위해 드리는 것인데, 정기적으로 속죄일 등 주요 절기마다 드렸고, 또 죄를 범한 후에도 그때마다 드렸습니다. 이 제사의 일반적 규례는 속건제와 비슷하지만, 대제사장이나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의 경우 그 피는 성소에 가지고 들어가며 기름은 제단에 태우고 나머지는 진 밖의 재 버리는 곳에서 전부 태웁니다. 특히 속죄일에는 그 피를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갑니다.

솔로몬 시대에 와서는 성전 예배를 통해, 바벨론 포로기에는 회당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이 계속되었습니다. 바벨론에서 귀환하고 나서 예수님의 시대까지는 성전 예배와 회당 예배가 병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의 예배는 불완전하고도 불충분한 사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반복되는 제사를 통해 계속 죄 사함을 받아야 했고 그 죄 사함조차 온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284] 그리고 성령께서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지 않으셔서 하나님과의 사귐은 제사장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성막과 제사법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써 속죄의 제사가 단번에 영원히 그리고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 분은 자신의 "전부"를 "기꺼이"드려 하나님의 뜻을 섬겼습니다. 그 분이 속죄와 화목의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고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285]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요 14:6)이시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이십니다. 그 분이 "어린 양"으로서 자신을 그 피와 함께 모두 드리셨습니다. 그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가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사이의 막힌 담이 허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하여,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히4:16)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

[284]양낙홍, *한국 기독교 사회의 역사적 책임* (서울: IVP, 1998), 75.

[285]박기순. *인간, 매체, 커뮤니케이션*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0), 63.

있는 근거가 생긴 것입니다.

3. 예배의 원리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와 도움에 의해 예배해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맺게 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의 고백을 통해 성결에 이르게 하심으로써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성령은 또한 예배자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배자의 마음가짐과 동기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치되게 하십니다.[286] 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십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그 이름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예배의 기초입니다. 예배는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또한 믿음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받으십니다.

히브리서 11:6을 읽으십시오.

(6) 하나님이 열납하시는 예배에 필요한 것은?

(7)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예배자들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고 할 때는 구체적으로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말은 곧 그 사람의 전인격의 표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참

[286]박근원, *오늘의 예배론* (서울: 대한기독서회, 1992), 47.

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며 사실임을 믿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믿고 그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여 그 뜻대로 예배해야 합니다. 다른 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자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이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그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드렸습니다(창 4:3-4).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4절 하반절과 5절 상반절을 계속 읽어보십시오.

(8) 여호와께서 (　　　　)과 (　　　　)은 열납 하셨으나 (　　　　)과 은 열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우선 알 수 있는 것은, 예배가 열납되기 위해서는 예배자가 열납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아벨은 열납되고 가인은 열납되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 11:4를 읽으십시오.

(9) 아벨은 무엇으로 제사를 드렸습니까?

바로 믿음이 그 예배자를 열납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막 제도와 제사의 규례는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여 계시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근거와 원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막의 제도와 제사법을 통해 가르쳐 주신 하나님과의 만남의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287]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와 성령의 인도에 의해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

[287]박은규, *예배의 재발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8), 87.

4. 마치며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집니다. "어린양의 피에 씻어 희게 된 옷"(계7:14)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경배할지어다"라는 시편 29:2의 말씀대로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 당신은 예배의 필요성을 얼마나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까?

(2)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는 것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3) 당신은 오직 예수님만이 당신의 구원이며 그 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 사실이 당신의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되겠습니까?

한 주간 동안 다음 사항을 실천해 보십시오.

(1) 계속해서 생활 속에서 개인 경건 시간을 가져 찬양과 말씀 묵상, 기도 등을 통해 주님과 만나십시오.

(2) 제사장들은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긴 패를 관(冠)에 붙여야 했습니다. 당신의 예배와 삶이 주님께 거룩한 제사가 되도록 죄를 고백하고 멀리하는 생활에 힘쓰십시오. 특히 하나님의 거룩함을 묵상하고 찬양하십시오.

예 배 (Ⅲ)

한무리찬양팀

1. 예배의 과정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때는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있다면 바로 감사와 찬양이 그것입니다.

시편 100편을 읽으십시오.

(1) "여호와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2절)

(2)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무엇으로 묘사되고 있습니까?

(3) 성전 문을 지나 궁정(즉, 성전 뜰)에 들어갈 때는 무엇을 해야합니까?

(4)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현실이 어떤 문제나 환난에 휩싸여 있더라도 주님 앞에 나올 때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288]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왕이시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과 변함없는 사랑과 성실로써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경배해야 합니다. 경배와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피조물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특히 경배는 예배의 핵심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겸손, 굴복, 순종 및 신뢰와 의지의 태도입니다. 예배자는 경배로써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집니다.

[288]박은규, *예배의 재발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8), 122.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뜻대로 변화시키시도록 해야 합니다. 성막 제사 중 그 제물을 제단 위에 "모두" 태워 드리는 번제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였듯이(레 1: 9,17), 예수님이 자기 몸을 다 드리심으로써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듯이(히 10 : 5-10), 이제 우리의 전인격을 하나님께 드려 우리를 통해,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로마서 12 : 1-2을 읽으십시오.

(5) "영적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입니까?

(6) 우리는 ( )를 본받지 말고( )함으로 변화 되어야 합니다.

(7) 변화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허락하시고 우리 안에 치유와 자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기쁨을 누리면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존귀하신 주님, 전능의 왕을 만난 감격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안에 임한 것을 체험할 때 가지는 기쁨이 예배자를 덮습니다. 이때 그것을 충만히 누리도록 전인격을 성령께 맡기고서 하나님 때문에 샘솟는 기쁨과 감격을 표현합니다.[289]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선포하고 전하기 위해 영적 무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 : 10-18을 읽으십시오.

---

[289]김명용, *열린신학 바른 교회론*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97), 99.

(8) 영적 무장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방어용과 공격용으로 나누면?

(9) 이러한 갑주 외에 전쟁에 또 필요한 것은?

시편 149: 5-9을 읽으십시오.

(10) 어떤 무기가 또 있습니까?

우리의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입니다(고후 10:4). 이제 우리의 영적 싸움이 주님께 속한 것임을 알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 주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사탄의 "경고한 진"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는 일만이 남았습니다.

2. 예배의 결과

예배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게 합니다. 첫 사람의 범죄로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죽음에 빠진 인간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명을 회복한 인간이 그 생명을 풍성히 맛보려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계속해야 합니다. 예배가 바로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이기 때문입니다.[290] 예배는 우리 안에 평안과 기쁨을 넘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의와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죄의식과 두려움도 제거됩니다. 의와 생명으로 인해 기쁨과 평안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이것이 우리 안에 충만히 넘치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롬 14:17).

예배는 치유를 낳습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의 생명이 예배자에게 넘치면, 자연히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전인격이 "치료하는 여호와"(출 15:26)께

[290]김의작, *예배음악* (서울: 아가페음악선교회, 1992), 65.

맞닿을 때 건강한 상태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가 싸매어지고 쓴 뿌리가 제거되며 육신의 병도 고쳐집니다. 예배는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예배를 통해 임한 하나님의 능력은 미움이나 원망, 경쟁심 같은 정신적인 묶임이나, 악령에 의한 눌림으로부터 예배자를 자유케 합니다.[291] 말하자면 예배자의 전 인격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사탄의 "견고한 진"이 여지없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잘 안다"고 할 때는 그와 사귐이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그에 대해" 훤히 알아도 직접적인 교제가 없으면 "그를 잘 안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을 더욱 더 알고 싶어하는 갈망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호세아 6 : 3-5을 읽으십시오.

(11)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 모임은 교회의 의례적인 "정기 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만남과 사귐의 장입니다. 주 사람이 자주 만나면 친하게 되고 그래서 서로 잘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만나 친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 예배자는 하나님을 닮아 갑니다.[292] 예수님을 통해 회복되는 것은 생명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도 회복됩니다. 물론 타락한 육신의 성품이 아직 남아 있지만, 이제 예배를 통해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1 : 1-4을 읽으십시오.

---

[291]김병삼, *열린예배? 현대예배!* (서울: 도서출판 프리셉트, 2000), 57.

[292]김연택, *건강한 교회와 예배* (서울: 프리셉트, 2000), 58.

(12) 주님을 앎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13) 하나님이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친한 친구나 부부는 서로 닮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사귐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인격에 배고 또 사귐을 통해 안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열매 맺는 삶으로 이끕니다.[293]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을 때 영양분을 공급받아 꽃을 피우고 결실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 끊임없이 공급되는 생명력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요한복음 15 : 1-5을 읽으십시오.

(15)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비유되어있습니까?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배자의 삶에서 맺혀지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 : 22-23과 베드로후서 1 : 5-7을 참고하십시오.

예배는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게 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알게 되기 때문에 세상의 참 모습도 알게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창조 되었고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에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 에베레스트 산이나 깊은 바다도 다 주의 지혜와 솜씨를 드러내는 것들입니다.

예배는 올바른 인간상을, 따라서 올바른 자아상을 갖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 갈수록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참 모습도

---

[293]가흥순, *성만찬과 예배갱신* (서울: 나단, 1994), 44.

알게 됩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294]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또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문화적 대명령(cultural mandate)을 받았습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세상 속에 구현하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도록 하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게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과 세상의 참 모습을 예배자에게 보여주어 경배와 찬양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게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며 자연은, 곧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간의 관리의 대상입니다. 이 관계를 분명히 알면 우리는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295] 예배는 이웃과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게됩니다. 그래서 인간과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고 그 생각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 품어진 하나님의 마음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따라서 인본주의(humanism)적인 사랑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예배는 참다운 가치관을 정립시켜 줍니다. 예배는 인격보다는 비인격적인 조건에, 하나님보다는 인간이나 세상에 가치를 두기 쉬운 우리의 타락한 성향을 바로잡아 줍니다. 따라서 예배는 일에 매여 진정한 사귐을 - 하나님에 대해서나 인간에 대해서나 - 잃어버려 소외된 인간들에게 인격에의 관심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과 "뜻"의 가치를 알게 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깨닫게 합니다. 세상에서의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의 삶의 궁극적 의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또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알게 합니다. 따라서 예배는 우리의 삶을 참되게, 가치 있게, 아름답게 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이웃과 세상과 나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참다운 가치가 무엇

---

[294] 김명혁, *한국 교회 쟁점 진단* (서울: 규장, 1999), 75.

[295] 김남준,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 (서울: 규장, 2003), 77.

인지 알게 되었으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하는 지도 알게 된 것입니다.[296] 하나님 안에서, 가장 귀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랑의 사귐 속에서 말입니다.

3. 마치며

(1) 당신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당신의 마음은 주로 어떤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2) 당신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시간을 가집니까? 예를 들어, 기도할 때 감사의 고백이 차지하는 분량은 얼마나 됩니까?

(3) 당신은 당신의 삶의 능력의 근원을 하나님으로 삼고 있습니까? 그리고 능력이 바로 예배를 통해 주어진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4) 당신이 영적인 싸움의 현장에서 지금까지 의지해 온 무기는 무엇이었습니까?

한 주간 동안 다음 사항을 실천해 보십시오.

(1) 차가 고장이 나면 정비소로 가야하고 연료가 떨어지면 주유소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피곤하다든지 어려운 사정에 빠졌다든지 너무 바빠 시간이 없다든지 하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소홀히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때가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주님이 바로 안식과 평안과 치유와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의 생활 속에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십시오. 피곤할수록, 바쁠수록, 아플수록, 어려운 일을 만나 바로 그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

[296]문희곤, *예배는 콘서트가 아닙니다* (서울: 도서출판 예수전도단, 2009), 63.

(2) 매일 규칙적으로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것이 거룩한 습관이 되어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분이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열매가 많이 열릴 것입니다.

(3) 주님이 평안을 주시는 분 이전에 바로 평안이라는 사실을 묵상하십시오., 주님이 곧 안식이자 치유이며 생명이고 기쁨이시며 자유가 되심을 묵상하십시오.

(4)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에 오늘 배운 과정을 적용시켜 보십시오.

Ⅹ. 참고문헌(Bibliography)

1) 한국서적

가흥순. *성만찬과 예배갱신*. 서울: 나단, 1994.

강남순. *현대여성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김기영. *미국 교회의 구도자예배의 현황과 흐름. 목회와 신학*. 서울: 두란노, 1997.

김남준.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 서울: 규장, 2003.

김명용. *열린신학 바른 교회론*.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97.

김명혁. *한국 교회 쟁점 진단*. 서울: 규장, 1999.

김병삼. *열린예배? 현대예배!*. 서울: 도서출판 프리셉트, 2000.

김성민. *융의 심리학과 종교*. 서울: 동명사, 1998.

김성태. *열린예배를 위한 스킷 드라마*. 서울: 예찬사, 2006.

김세광. *예배의 역사와 그 발전*. 서울: 장신논단 제6집, 1998.

김욱동. *포스트모더니즘과 예술*. 서울: 청하, 1991, 102.

김운용. *설교의 새로운 패러다임*.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5.

김연택. *건강한 교회와 예배*. 서울: 프리셉트, 2000.

김용복. *공동체 운동과 커뮤니케이션 기독교사상*.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9.

김의작. *예배음악*. 서울: 아가페음악선교회, 1992.

김태곤. *한국무속연구*. 서울: 집문당, 1981.

김형효. *데리다의 해체철학*. 서울 : 민음사, 1993.

두란노편집부. *일대일 제자양육 성경공부*. 서울: 두란노, 2002.

문희곤. *예배는 콘서트가 아닙니다*. 서울: 도서출판 예수전도단, 2009.

박기순. *인간, 매체, 커뮤니케이션*.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0.

박노권. *목회상담학*. 대전: 세종문화사, 1999.

박근원. *오늘의 예배론*. 서울: 대한기독서회, 1992.

박은규. *예배의 재발견*. 서울: 대한 기독교 서회, 1988.

방선기. *대중문화도 거룩해질수 있는가*.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1999.

송두율. *現代와 思想*. 서울 :한길사, 1990.

양낙흥. *한국 기독교 사회의 역사적 책임*. 서울: IVP, 1998.

오세인. *영상매체란 무엇인가*.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옥한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7.

______. *제자훈련교재1.2.3*.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7.

이상훈. *문화로 엿보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문화*. 서울: 대한기독서회, 2003.

이어령. *디지로그 선언*. 서울: 생각의 나무, 2006.

이연길. *말씀목회 패러다임*. 서울: 쿰사, 2002.

이유선. *기독교 음악사*. 서울: 기독교문서회, 1990

이재창 외 5인. *인간 이해를 위한 심리학*. 서울: 문음사, 2004.

이중택. *예배와 교회음악*. 서울: 예찬사, 1991.

이형기 외. *기독교 사상사1*.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인물강해 편찬 위원회. *성경인물강해*. 대구: 서진문화, 1994.

장성배. *글로벌 시대의 교회, 문화 그리고 사이버 스페이스*. 서울: 성서연구사, 2001.

정삼지. *성장하는 제자*. 서울: 도서출판제자, 2007.

정성욱. *스피드 조직신학*. 서울: 홍성사, 2007.

정일웅. *21세기를 향한 한국 교회와 실천신학*. 서울: 여수룬, 1999

______. *기독교 예배학 개론*. 서울: 솔로몬, 1993.

정장복. *예배학 개론*. 서울: 종로서적, 1997.

정정호. *강내희 편. 포스트모더니즘론*. 서울 :도서출판 터, 1989.

조기연. *한국교회와 예배갱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조계광. *참된 예배를 회복하라*.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2.

조영엽. *왜 열린예배는 잘못 되었는가?*. 서울: 미스바, 2001.

조태현. *열린예배 기획. 웍샵*. 서울: 도서출판 예루살렘, 1998.

주숙일. *찬송의 향기를 온누리에*. 서울: 코이노니아, 1993,

최대복. *예배에 목숨을 걸라*. 서울: 규장, 2007.

하정완. *열린예배 매뉴얼*. 서울: 나눔사, 2006.

황성철. *예배학*. 서울: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1998.

황수관외 16인. *우리는 행복한 예수쟁이들*. 서울: 오늘, 1999.

2) 번역서적

Anthony, Giddens. *현대사회학*. 김미숙 외 6인 역. 서울: 을유문화사, 1993.

Clowney, Edmund P. *교회*. 황영철 역. 서울: IVP, 1998.

David A, Seamnds. *상한 감정의 치유*. 서울: 두란노, 2009.

Dietrich, Bonhoeffer. *신도의 공동생활*. 문익환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9.

Didake, *열두 사도들의 가르침*. 정양모 역. 서울: 분도출판사, 1993.

Don, Tapscott. *N세대의 무서운 아이들*. 허운나 역. 경기 안양: 도서출판 물푸레, 2000.

Ed, Dobson. *열린예배 실습 보고서*. 박혜영, 김호영 역. 서울: 홍성사, 1998.

Eugene H, Peterson. *묵상하는 목회자*. 차성구 역. 서울: 좋은씨앗, 2008.

_______, *영혼을 살리는 설교*. 이승진 역. 서울: 좋은씨앗, 2008.

_______, *현실을 새롭게 하는 영성*. 홍병룡 역. 서울: IVP, 2009.

F. White, James. *예배의 역사*. 정장복 역. 서울: 쿰란 출판사, 1997.

Gary R, Collins. *폴 투르니에의 기독교 심리학*. 정동섭역. 서울: IVP, 1998.

Gary Smalley, John Trend. *사랑언어 그림언어*. 서원교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96.

Gary W, Kuhne. *개인적 새신자 양육의 원동력*. 정학봉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95.

Gallsoway, Dale E. *20/20. 비젼*. 송영조 역. 서울: 서울성경학교 출판부, 1994.

Hans, Kung. *교회*. 정지련 역. 서울: 한들출판사, 2007.

Ilion T, Jones. *복음적 예배의 이해*. 정장복 역. 서울: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출판국, 1988.

Johns, M. Roide. *회심: 심리적인 것인가 영적인 것인가?* 이정선역. 서울: 생명의 샘, 1994.

Kendrik, Graham. *경배*. 김성웅 역, 서울: 두란노, 1993

MacArthur Jr, John. *참된 예배*. 한화룡 역. 서울: 두란노, 1993.

Mackay, John. *에큐메닉스-세계교회운동원론*. 민경배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MacArthur, John. *진리 전쟁*. 신성욱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7.

Marshal, Paul. *정의로운 정치*. 진웅희 역. 서울: IVP, 1997.

Martin, Ralph. *초대교회예배*. 오창윤 역. 서울: 은성출판사, 1986.

Morgenthaler, Sally. *이것이 예배다*. 임하나 역. 서울: 하늘사다리, 1998.

Naisbitt, J. Naisbitt, N. Philips, D. *하이테크 하이터치*. 안진환 역. 서울: 한국경제 신문, 2000.

Peterson, H Eugene. *묵상하는 목회자*. 차성구 역 서울: 좋은씨앗, 2008.

Raymond, Abba. *기독교 예배의 원리와 실제*. 허경삼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2.

Reuel, L. Howe. *대화의 기적*. 김광선 역. 서울: 대한기독교교육협회, 1989.

Richard, H. Niebuhr. *그리스도와 문화*. 김재준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Richard, J. Foster. *영적 훈련과 성장*. 권달천 . 황을호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9.

Robert, E. Webber. *예배학*. 김지찬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8.

Robert, G. Rayburn. *예배학*. 김달생 & 강귀봉 공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2.

Ron, Nicholas 외 4인. *소그룹 운동과 교회성장*. 신재구 역. 서울: IVP, 2005.

Segler M, Franklin. *예배학 원론*. 정진황 역. 서울: 요단 출판사, 1979.

Stott, John.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양혜원 역. 서울: IVP, 2004.

Tournier, Paul. *고독*. 윤경남 역. 서울: IVP, 1999.

____________. *서로를 이해하기 위하여*. 한정건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2.

Wallace, B. Clift. *융의 심리학과 기독교*. 이기춘. 김성민 역. 서울: 대한기독교 출판사, 1994.

Wayne Orts. *현대종교심리학*. 정태기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Walliham, James. *종교체험의 여러 모습들*. 김성민, 정지련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7.

3) 논문자료

김석균, *복음성가가 한국교회에 미친 영향.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김환, *한국교회의 찬양에 대한 연구*. 감리교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김영한, *21세기 포스터 모더니즘과 기독교*. 서울: 숭실대 한국 기독교 문화 연구소, 1995.

양경준, *교회음악을 통한 청소년 신앙함양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4) 정기 간행물

김기영. *미국 교회의 구도자 예배의 현황과 흐름, 목회와 신학 통권94호*. 서울: 두란노, 1997.

김기영. *미국 교회의 구도자예배의 현황과 흐름, 목회와 신학.* 서울: 두란노, 1997.

권 준. *구도자 예배의 한국적 적용을 모색하며, 목회와 신학 통권94호.* 서울: 두란노, 1997.

박은규. *예배신학, 제9회 연신원 목회자 신학세미나 강의집, 현대교회의 예배와 설교* 서울: 연세대학교 유니온 학술 자료원, 1989

송인규. *이민교회 이야기, 빛과 소금, 제59호.* 서울: 두란노서원, 1990.

5) 참고 사이트

국민일보 미션라이프, *http://missionlife.kukinews.com*

뉴욕새교회, *http://www.newchurchny.org*

바나바교육원, *http://www.bmc153.com*

삼일교회, *http://www.samil.org*

위키페디아, *http://en.wikipedia.or*

크리스천헤럴드, *http://cafe.naver.com/newsyoun*

하나임교회, *http://www.hanaimchurch.org*

New Jersey Homebuy, *http://www.njhomebuy.com*

city-data, *http://www.city-data.com*